

교회 회장



교회 회장

교사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 1989, 1993, 199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영어 승인: 2/96

번역 승인: 6/05

*The Presidents of the church*의 번역

목차

공과 번호 및 제목	페이지
교사를 위한 도움말	v
1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선택	1
2 경전-후기를 위한 확실한 지도서	5
3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는 계시가 지상에 다시 나타남	10
4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라는 부름을 받았음	14
5 오늘날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	17
6 선지자 조셉 스미스-어둠 속에 비치는 빛	23
7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굳건히 함	28
8 계시	32
9 제일회장단 계승	37
10 브리검 영-진실한 사도	42
11 브리검 영: 의로운 성역을 통해 왕국을 건설함	48
12 존 테일러-신앙인	53
13 존 테일러-신앙의 수호자	57
14 전 생애를 통한 선교 사업	63
15 월포드 우드럽-충실하고 진실함	69
16 월포드 우드럽: 의로움과 주님의 보호	74
17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한 로렌조 스노우	77
18 로렌조 스노우: 하나님 왕국의 재정을 담당함	84
19 친구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끔	88
20 조셉 에프 스미스-용기 있는 음성	93
21 조셉 에프 스미스: 죽은 자를 구속함	98
22 히버 제이 그랜트-결단력 있는 지도자	105
23 히버 제이 그랜트: 주님께 의지하여 성공을 거둠	110
24 약점과 시련을 장점으로 바꿈	116
25 조지 앨버트 스미스: 선한 것에 반응함	120
26 조지 앨버트 스미스: 사랑의 성역	126
27 고난 속의 평화	132

28	데이비드 오 맥케이: 가정과 가족을 존중함	136
29	데이비드 오 맥케이-하나님의 사절	141
30	영원한 가정을 준비함	147
31	경전 읽기의 즐거움	152
32	조셉 필딩 스미스-약속의 자녀, 경전 탐구가	158
33	부름을 영화롭게 한 조셉 필딩 스미스	164
34	귀하면서도 강력한 기도	171
35	해럴드 비 리: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	175
36	해럴드 비 리-활동적인 지도자	179
37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연단하는 자의 불 속에서 성장함	184
38	스펜서 더블류 김볼-용서의 표본	190
39	“걸음의 폭을 넓히라”	194
40	에즈라 태프트 벤슨: 주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가르침	197
41	에즈라 태프트 벤슨-충실한 종	202
42	하워드 더블류 헌터: 구주의 발자취를 따라	207
4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전에 초점을 맞춤	213
44	고든 비 힝클리: 올바른 선택을 함	218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 구성

자료 사용

이 교재에는 공과 42개만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한다. 그렇지만 각 공과에는 이야기, 활동, 성구 인용, 시청각 보조 자료들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다. 어떤 공과는 시간을 더 들여 가르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더 사용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몇몇 공과는 두 주에 걸쳐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다뤄야 할 만큼의 자료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제시된 자료를 얼마큼 사용할 것인가 결정할 때에는 영의 인도에 따른다. 반원들의 필요 사항과 공과 시간에 맞추어 공과를 계획한다. 모든 공과 자료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영에 따르고, 경전을 활용한다. 경전은 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공과를 계획할 때 언제나 경전에 대한 토론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함을 기억한다.

각 공과를 자세히 검토한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한다. 집회소 도서실에서 그림, 분필, 지우개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칠판 대신에 글자카드나 포스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과 전 주에 미리 준비한다.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생애도 적절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확인한다.

이 교재는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주일학교 교재의 표준 형태를 따르고 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본 교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교회 회장 아홉 명의 간단한 간증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가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을 강화해줄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과 전에 미리 전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그 비디오를 구할 수 없더라도 본 교재에는 비디오 없이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
2. 공과 활동 제언이 좀 더 다양해졌다. 반원들이 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것이다. 어떤 활동은 반원들이 일어서서 움직이도록 고안되었다. 종종 이러한 육체 활동은 공과를 발표할 때 큰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변화를 줄 수 있다. 반원 참여에는 종종 독서 과제나 숙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반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명해야 한다.
3. 이 교재는 반원들이 경전을 읽도록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제작되었다. 경전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원들이 경전을 통해서 직접 구주께 인도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겪은 경전에 대한 경험을 말하게 한다. 반원들에게 공과 시간 중에는 항상 경전을 지참하며 교실에서나 가정에서 그것을 읽고 표시하며 주석을 달도록 권고한다.(교사는 반원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경전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분의 경전에 대해서는 집회소 도서실을 점검해 본다.) 교사는 공과 중에 반원들에게 성구를 읽게 하면서 그들의 독서 능력과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교사의 책임 중 하나는 반원들이 경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청남 청년들이 공과 중에 다룰 구절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짧은 구절이라도 읽어 오도록 지명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4. 교재 끝에는 그리스도와 교회 회장들의 사진 및 그림들이 실려 있다. 각 교회 회장 사진 또는 그림 뒷면에 있는 일대기에는 중요한 일이 있었던 일부 날짜, 그분들이 기여한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나와 있다. 또한 교회 회장 사진 및 그림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그림과 클로드 모네의 해바라기 그림도 같이 실려 있다. 흑백으로 된 일부 사진들도 교재 중간 중간에 실려 있다. 다른 그림이나 사진들은 집회소 도서실에서 해당 물품 번호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은 복음 그림 패키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번호도 함께 실려 있다. 예: 문 앞의 예수님(62170 [집회소 도서실 물품 번호]; 복음 그림 패키지 237)
5. 유의 사항: 선지자의 별세로 새로운 선지자가 지지되었다면 곧 이어 소개될 새로운 교회 회장에 관한 리아호나 기사를 활용하여 마지막 41과에 이어서 한 공과를 마련한다.

가르침에 관한 제언

수준 높은 가르침을 위한 네 가지 기본 원리

1. 먼저 교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교사는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강화시킨다. 교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도 활용한다. 주일 학교 교사들은 서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도 지극히 중요하지만 각 반원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각 반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반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과 뜻있는 경험을 나눌 계획을 한다.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나 학교 활동에서 계속 도움을 주면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공과보다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
4. 반원들과 함께 배운 것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본다. 예를 들어 다음 질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적인 시련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원리가 수준 높은 가르침을 만드는 비결들이다.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디모데후서 1:7, 9)

여러분은 “기록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할 때 가르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것이며, 시간을 들여 봉사를 행할 때 반원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연구하고 준비할 때 복음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그것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이 가르치는 책임에 충실할 때 교사는 자신의 부름이 성스럽다는 것과 그 부름의 특별한 축복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선택

제 1 과

목적 반원들이 그들이 전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으며 이생에서도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한다.

준비사항

1. 반원들에게 각자 어린아이 때의 사진들을 갖고 오게 하거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 오게 한다.
2. 공과 끝에 나오는 선택 용지를 활용하도록 준비한다.
3. 시간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와드 주일 학교 회장단이나 감독단의 일원, 상호부조회 회장단 또는 청년 회장단의 일원을 공과 시간에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히 말씀하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반 활동 및 토론

교사는 반원이 수집해 온 사진이나 이야기를 적절한 시점에서 활용한다. 반원들이 사진에 찍힌 모습과 그들이 매우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한다. 모든 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한다.

-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로 되돌아가 탄생하기 전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시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하고 행했겠는가? (반원들이 전세와 이곳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성약에 대해 토론하도록 인도한다.)

전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음

반원들에게 다음 내용을 읽어 준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기 전, 즉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낳으신 영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는 우리의 맏형이 된다. 그는 이 지상에 오기 전, 하늘에 있을 때 신화의 일원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의 자녀가 아버지와 같이 되기를 바라신다. 영의 자녀가 승영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른다.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제시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우리가 지상에 내려와서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얻는 계획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충실하게 생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받는다.

구원의 계획에는 구주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험을 받기 위해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할 것임을 아셨다. 성스럽지 못하거나 죄지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구주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계획을 제안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아브라함서 3:27) 그러나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영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아브라함서 3:27)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루시퍼는 성을 내었으며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 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아브라함서 3:28)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천군의 삼분의 일을 그들의 선택의지로 인해 내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나니”(교리와 성약 29:36)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충실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영들과 대적했다.(요한계시록 12:7 참조)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오게 되었고, 사탄, 즉 마귀로 불리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사탄의 편에 섰던 모든 영들도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오게 되었다.(요한계시록 12:9 참조)

이 지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사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택했었다. 지상으로 쫓겨난 마귀와 모든 영들은 결코 육신을 입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갈 수 없다.

한편,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택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현재에도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사탄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친구, 관람하는 영화, 언행,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 등에 달려 있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십일조를 내는 것, 모임에 참석하는 것, 신권을 영화롭게 행사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연구 문제

-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전세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은 전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과 대적해서 싸우기를 선택하겠는가?

시련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성구 토론

다음 성구들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가르침을 반원들과 함께 읽고 토론한다.

가. 교리와 성약 1:35.

나. 요한계시록 12:17.

다. 디모데후서 3:1~7.

라. 디모데후서 3:13.

마.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저는 주님의 인도를 구하던 중에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6:9, 11:9)는 주님의 선언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조셉 스미스는 그의 선지자라는 간증과 함께 모든 후기 선지자들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작고하신 위대한 선지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이 주제는 그의 말씀과 그의 훌륭한 저서인 *용서가 낳는 기적*과 같은 책의 여러 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의 모든 회원과 비회원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과수꾼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우리는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앨마서 60:23 참조) 우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Conference Report, 1986년 4월, 3쪽;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쪽)

활동

우리가 매일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사탄을 따르려는 선택 중 하나라고 반원들에게 말해준다. 이러한 선택들은 매일 선이나 악에 투표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러분이 준비한 선택 용지를 나누어 주고 토론을 진행한다. 반원들에게 각자의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는다.

교실 방문자

성인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간증 및 목표

반원들에게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해 왔음을 말해 준다. 이터서 12장 41절을 읽은 다음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간증을 읽어 준다.

“이 강한 자들과 고대 선지자들의 간증에 저는 제 자신의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이자 구주이시며,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12쪽)

반원들에게 그들이 전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이생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택하도록 목표를 준다. 반원들은 매일 결정하는 선택에서 의로움을 택하고 사악함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반원들에게 교사의 간증을 전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 | | |
|---|--|
| <input type="checkbox"/>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선택 | <input type="checkbox"/> 사탄을 따르려는 선택 |
| <input type="checkbox"/> 성찬식에 참석함. | <input type="checkbox"/>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음. |
| <input type="checkbox"/> 매일 기도함. | <input type="checkbox"/> 기도하기를 거절함. |
| <input type="checkbox"/>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함. | <input type="checkbox"/>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함. |
|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 | <input type="checkbox"/> 이기적인 마음을 가짐. |
| <input type="checkbox"/> 매일 경전을 공부함. | <input type="checkbox"/> 불건전한 책을 보거나 음란물을 시청함. |
| <input type="checkbox"/>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함. | <input type="checkbox"/> 거짓말, 도둑질, 기만하는 생활을 함. |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 | | |
|---|--|
| <input type="checkbox"/>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선택 | <input type="checkbox"/> 사탄을 따르려는 선택 |
| <input type="checkbox"/> 성찬식에 참석함. | <input type="checkbox"/>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음. |
| <input type="checkbox"/> 매일 기도함. | <input type="checkbox"/> 기도하기를 거절함. |
| <input type="checkbox"/>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함. | <input type="checkbox"/>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함. |
|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 | <input type="checkbox"/> 이기적인 마음을 가짐. |
| <input type="checkbox"/> 매일 경전을 공부함. | <input type="checkbox"/> 불건전한 책을 보거나 음란물을 시청함. |
| <input type="checkbox"/>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함. | <input type="checkbox"/> 거짓말, 도둑질, 기만하는 생활을 함. |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 | | |
|---|--|
| <input type="checkbox"/>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선택 | <input type="checkbox"/> 사탄을 따르려는 선택 |
| <input type="checkbox"/> 성찬식에 참석함. | <input type="checkbox"/>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음. |
| <input type="checkbox"/> 매일 기도함. | <input type="checkbox"/> 기도하기를 거절함. |
| <input type="checkbox"/>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함. | <input type="checkbox"/>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함. |
|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 | <input type="checkbox"/> 이기적인 마음을 가짐. |
| <input type="checkbox"/> 매일 경전을 공부함. | <input type="checkbox"/> 불건전한 책을 보거나 음란물을 시청함. |
| <input type="checkbox"/> 진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함. | <input type="checkbox"/> 거짓말, 도둑질, 기만하는 생활을 함. |

경전-후기를 위한 확실한 지도서

제 2 과

목적 반원들이 리하이의 쇠막대 시현은 경전을 그들 생활의 확실한 지도서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준비사항

1. 니파이전서 8장과 니파이전서 11장을 읽고 리하이와 니파이의 시현과 그 해석을 숙지한다.
2. 공과에 나오는 리하이의 꿈에 관한 그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각 반원이 몰몬경을 지참하게 한다.(집회소 도서실에 있는 경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4. 공과에 나오는 두 이야기에 대한 사본을 만들어 반원 두 명에게 주고 공과 중에 읽도록 준비시킨다.
5. 눈가리개와 끈을 준비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이야기 반원 한 명의 눈을 가린다. 눈을 가린 반원을 한두 번 정도 제자리에서 돌게 한 다음, 교실 구석까지 걸어가게 한다. 그 반원은 아마 주위를 더듬으며 비틀거리면서 걸을 것이다.(이때 눈을 가린 사람이 다치지 않게 유의한다.) 이제 그 반원이 잡고 따를 수 있는 끈을 제공한다. 오직 끈만 잡고 교실을 가로지르게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경전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강한 인도자와 같다고 설명한다.

경전이라는 쇠막대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함

반원 한 명에게 다음 이야기를 읽게 한다.

몇 년 전, 적도 근처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한 아기가 페드로와 낸시 칸토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음에 아기는 정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곧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기의 장기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선천적인 심장 결함도 있었다. 부모는 이미 두 자녀를 치명적인 질병으로 잃었다. 그들은 어린 페드리토까지 잃게 될까 봐 근심하며 슬픔에 잠겼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다.

“페드리토가 약 10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낸시는 부엌 창문 너머로 평소에 보던 건물들이 아닌 저 멀리까지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잔디밭을 보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멀리서 어떤 사람이 땅을 파고 있는 것도 보았다. 낸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그 사람은 ‘나는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때 낸시는 가까이에서 이상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낸시는 ‘그 나무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예요?’ 라고 물었다.”

“그 낯선 사람은 ‘그 나무는 페드리토의 질병을 치료할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낸시는 ‘그 나무의 약을 내 아이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 낯선 사람의 대답을 듣기 전에 낸시는 저 멀리에서 있던 또 한 사람을 보았다. ... 곧 그와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 [그들은 낸시에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당신의 신앙과 근면성 덕분에 당신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 낸시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은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두 명의 선교사들이 캔토스 가족의 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그 선교사들은 낸시 가족에게 첫 번째 토론을 가르쳤다.”

“장로들은 떠나기 전에 그들이 토론했던 구절들이 표시된 물문경 한 권을 그 가족에게 주었다. ... 그들은 생명나무와 관련된 리하이의 꿈에 관한 구절 밑에 밑줄을 치라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일은 전에는 하지 않던 것이었다.”

“후에 낸시 캔토스는 리하이의 꿈에 관한 구절을 읽으면서 흥분을 느꼈다. 그 구절의 내용은 그녀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너무도 흡사했다! 낸시는 이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알았다. ...”

“[이후 곧 캔토스 가족은 침례를 받았다. 어린 페드리토는 신권 축복을 받았고,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시 병이 악화되었고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어려운 시련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아기는 두 번째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곧 페드리토는 다른 어린 아이들처럼 뛰놀게 되었다.]”(비라 에이치 블레이크, “어머니의 꿈”, *Ensign*, 1986년 3월호, 53~54쪽)

낸시의 꿈에 나온 나무는 실제로 이 가족에게 위대한 기적의 근원이 되었다.

그림

리하이의 꿈 장면이 그려진 그림을 반원들에게 보여 준다.

성구 토론

니파이전서 8장 5~35절을 반원들과 읽는다.

- 이 성구는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나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하는가?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니파이전서 11:25])
- 여러분은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곳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빛이 없는 깊은 동굴이나 광산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 그 때 자신을 터널 밖으로 인도하는 밧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쇠막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니파이전서 8장 23~24절을 참조한다.)
- 쇠막대를 잡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니파이는 쇠막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니파이전서 11:25 참조) 경전은 어떻게 쇠막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성구 토론

경전 연구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반원들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성구들을 읽고 토론한다.

신명기 6:6~7
 사도행전 17:10~11
 디모데후서 3:15~17
 니파이후서 4:15
 앨마서 37:8
 교리와 성약 33:16

니파이전서 15장 23~24절에서 쇠막대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토론을 마친다.

경전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

토론

한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이러한 기타 모든 활동[교회 활동, 성찬식 참석률, 선교사 배출 수, 성전 결혼]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커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Ensign, 1986년 5월호, 81쪽)

- 경전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벤슨 회장의 약속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이야기

지명된 반원에게 다음 이야기를 읽게 한다. 이야기를 끝낸 후 경전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미국의 한 십대 소녀인 자넷은 7층 과학 교실로 올라갔다. 자넷은 그곳에서 선생님이 무엇인가에 당황한 채 서 계시는 것을 발견했다. ...”

“그는 과학 수업이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미사일을 적재한 함대를 쿠바로 보내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봉쇄 작전을 폈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책상을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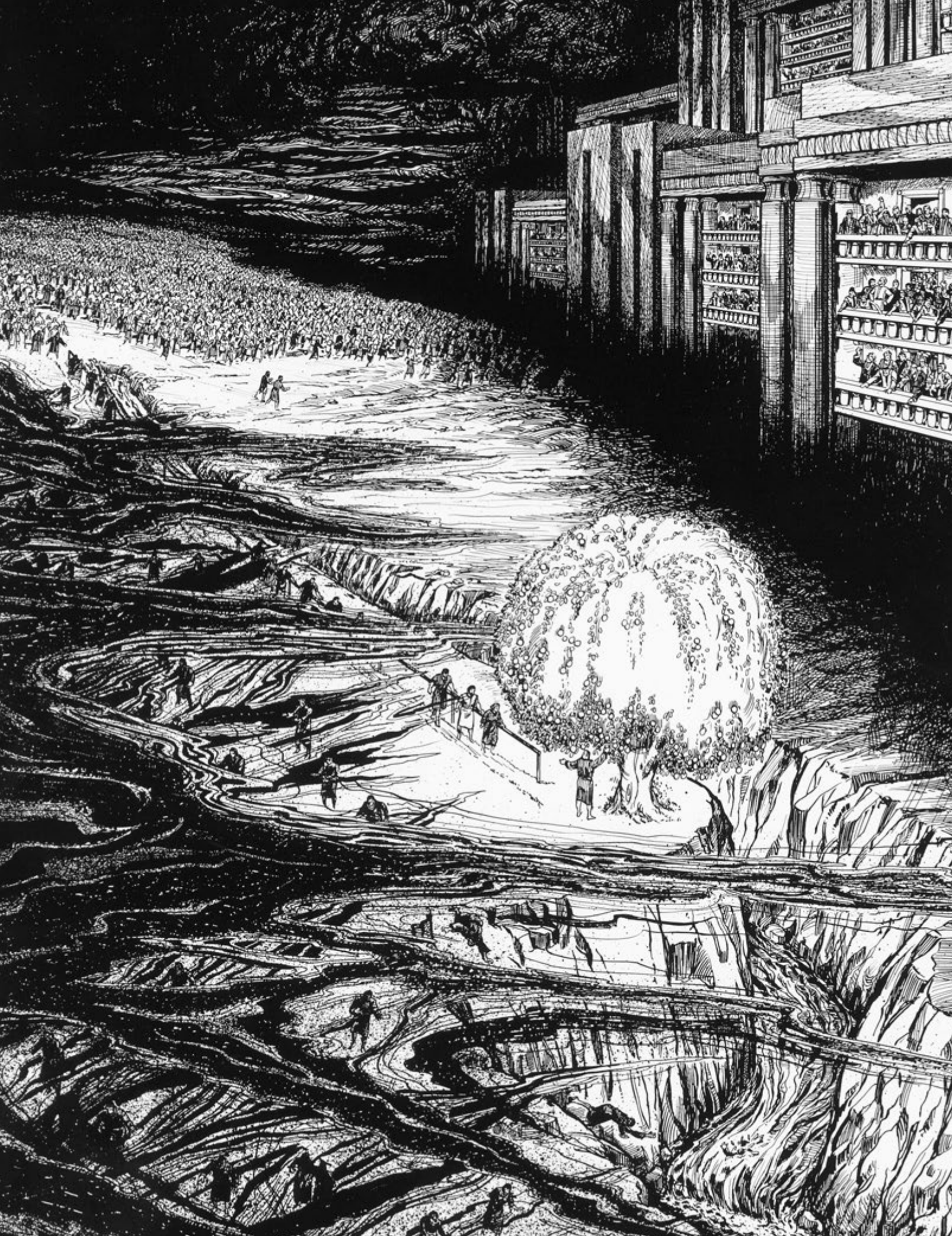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 시간 안에 세상이 끝이 날 수도 있어요. 핵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끝과 같은 것입니다!’ ... 나는 무서웠다. ...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엉망이 되었다.”

“나는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학 선생님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반 시간 안에 세상이 끝이 날 수도 있어요. ...’ 저녁을 먹은 다음 나는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다. ... 잠시 후, 숙제를 하다가 싫증이 난 나는 ... 종이 뭉치를 헤쳐 보다가 그 해 초에 꿀벌반[청녀]에 들어갔을 때 받은 서표를 집어 들었다. 그 뒤편에는 한해 동안 읽을 독서 목록이 있었다. 나는 그 목록을 한번도 눈 여겨 본적이 없었지만 ... 그 목록의 처음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값진 진주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마태복음이었다.”

“그날 과학 시간에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며, 세상의 사건은 예언된 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자넷 토마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성도의 벗, 1987년 3월호, 42쪽)

간증 및 목표

경전의 진실성과 가치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인다. 반원 각자에게 매일 경전을 읽도록 목표를 준다. 경전 읽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다음 주에 말하게 한다.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는 게시가 지상에 다시 나타남

목적 반원들이 후기에 게시가 주어지는 큰 축복에 감사하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 각자가 경전과 값진 진주 한 권씩을 갖고 있는지 유의한다.(여분의 책이 있는지 집회소 도서실을 확인한다.)
 2. 반원 각자에게 종이 또는 기타 컵들을 준비하게 한다.
 3. 공과 끝에 나오는 컵을 든 거지에 관한 그림을 보여 주도록 준비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 지난 주 매일 경전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지난 주의 목표를 따른 반원에서 그들의 느낌을 기꺼이 전하고자 하는 반원들에게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데서 비롯됨

- 성구 토론** 아모스 8장 11~12절을 읽는다. 이 성구는 게시가 없어지는 것을 기근에 비유했다.
- 기근의 결과는 무엇인가? (음식이 조금밖에 남지 않거나 없어져서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된다.)
 - 여러분은 식량 없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 여러분은 먹을 음식이 없어 얼마 동안 굶주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 그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살찌워야 함

성구 토론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는다. 예수님은 이 성구에서 영적인 양식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빵과 물이 우리의 몸을 위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셨다.

보기 한 후기 성도 소녀는 그녀가 영적인 양식에 굶주림을 느꼈던 때에 관해 말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독일을 방문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렀던 가정에서 아주 친절하게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도착한 첫날 저녁에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활동을 한 후 나는 낮설고 새로운 침실에 혼자 있게 되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나는 폭신한 침대 속으로 나 자신을 내맡겼다.”

“시차 때문에 피로가 밀려 왔으며, 나는 울기 시작했다. 울면 울수록 더욱 격심하게 눈물이 났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울고 있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가족과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달 안에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나의 새로운 가족들은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 주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허전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울던 나는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잊지 않고 있었으며 온종일 내게 그것에 관해 주의를 환기시켜 왔던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으며 거리도 너무 멀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고향에서 했던 전형적인 일요일의 가족 기도, 일지 쓰기, 함께 저녁 식사 하기, 주일 학교와 성찬식 참석하기 등을 상상해 보았다. 그 날은 여느 때의 일요일에 했던 활동이나 성찬식이 없었고, 나는 그 때문에 심한 허전함을 느꼈다. 나는 그때서야 그러한 시간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릎을 꿇고 다음 일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동안 나의 눈물이 흘러 베개가 적셔지고 있었다.”(커스틴 크리스찬슨, “성찬식이 없던 일요일”, *New Era*, 1986년 1월호, 49쪽) 커스틴의 독일 가족은 다음 일요일까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토론

- 여러분이 만일 수 년 또는 일생 동안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면 잃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의 기도 덕분에 축복을 받고 있음

대부분의 사람들과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지상으로부터 그 축복이 보류되었다. 후기에 주님은 한 국가, 즉 미국을 예비하셨고, 그 정부에 복음이 번성하기에 필요한 자유를 허용하셨다. 또 다시 주님은 지상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은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셨다. 주님은 1820년 한 겸손한 어린 소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 그 소년은 누구였는가?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영적인 굶주림을 보았다. 조셉 역시 영적으로 굶주림을 맛보았으며 여러 교회가 말하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 때문에 혼란을 느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조셉에게 권고하였다. 조셉은 번민에 빠졌다. 그의 생애에 대한 한 기사에서 그는 이렇게 기술했다.

“12세에서 15세 사이에 나는 논쟁과 불화, 사악함과 증오, 어둠이 인간의 마음속에 만연된 당시 상황에 관해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골똘히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죄를 깨닫게 되었고,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인류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살아 있는 신앙으로부터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몹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조셉 스미스, “커틀랜드 서한집,” 1829~1835년, 1~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사과)

반원들에게 조셉이 신앙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경전을 읽음으로써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조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신앙을 나타냈다.

성구

반원들과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26절을 읽는다.

활동 및 그림

각 반원에게 하나의 종이 컵이나 컵 종류 하나씩을 나누어 준다. (종이 컵을 사용할 경우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하라”와 같은 글을 꼬리표로 붙일 수 있으며 그 컵을 각 반원의 가정에 갖고 가게 할 수 있다.) 공과에서 컵을 들고 있는 거지의 그림을 보여 준다.

세상의 여러 곳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식량을 살 돈을 구걸하기 위해 컵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설명한다.

칠판 토론

-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영적인 양식에 주려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 만일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기도와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컵” 안에 쌓일 영적인 양식은 어떤 것들이겠는가? (칠판에 대답들을 적는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확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함)

간증 및 목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양식에 대해 많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접하게 될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에 굶주려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주님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영적인 양식의 결핍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기뻐하신다.

반원들에게 값진 진주(조셉 스미스-역사 1장 1~26절)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강화하도록 목표를 준다. 반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전하도록 준비할 수 있게 목표를 준다.

반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반원들이 복음을 나누고자 간구할 때에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 주신다고 간증한다.



우리는 시온을 건설하라는 부름을 받았음

목적 반원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돕는다.

- 준비사항**
1. 반원들에게 빗자루, 먼지떨이, 청소기 등과 같은 청소 도구를 가지고 오게 한다.
 2. “문앞의 예수님”(62170; 복음 그림 팩킷 237)과 에녹과 시온의 도시(62564)를 나타내는 그림을 얻어 게시할 수 있게 준비한다.
 3. 엘마서 17장~19장을 읽는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본 제이 패더스토운 장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몇 년 전 어떤 아버지는 내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장남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약 1년 동안 브리검 영 대학에 다녔으며 그 해에 약혼을 하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솔트레이크시티로 가서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은 매우 진지해 보였습니다. 전에 그 아이는 항상 쾌활하고 즐거움에 차 있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약 30분 후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서재로 데려갔으며, 아들은 아버지가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보통 하셨던 것처럼 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아들은 저쪽으로 가서 크고 폭신한 의자에 앉았으며 아버지는 딱딱한 등받이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으며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아해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때 자신이 밝게 빛나는 등불 아래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윽고 아들은 ‘아버지, 다음 주 제가 결혼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라고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래 알고 있단다. 아들이’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이 세상에 데려왔을 때처럼 제가 깨끗하고 순결한지 알고 싶어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다. 눈물이 그의 눈에 비쳤으며 이윽고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가슴이 벅차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Pure of Heart*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2년], 42~43쪽)

성전을 성스럽게 지킴

활동 및 토론

반원들에게 청소 도구들을 보여준다.

- 특별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게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만일 아주 특별한 손님일 때 어떻게 다르게 청소하겠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힐라맨서 4장 24절을 읽고 주님의 영은 성스럽지 못한 성전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한다.

- 위 성구에서 “성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영혼-육신과 영)

반원들에게 그들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깨끗이 하고 있는지 묻는다. 만일 선지자나 주님이 방문할 때 집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는지 반원들에게 묻는다.

그림 및 성구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주며 반원 한 명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게 한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는다.

주님은 백성들이 청결하기를 바라심

그림 및 토론

에녹과 시온 그림을 보여 준다. 교리와 성약 97편 21절을 읽고 칠판에 시온-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쓴다. 반원들에게 시온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다음 내용을 복습하며 주님은 항상 지상에 시온을 세우고 싶어하셨음을 설명한다.

1. 홍수가 있기 오래 전인 에녹의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으며, 주님은 그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모세서 7:18~21; 히브리서 11:5 참조)
 2. 침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누가복음 1:17)시키기 위해 보내졌다.
 3. 주님이 미대륙의 백성들을 방문한 후 그들은 약 200년 동안 의롭고 청결한 백성들이 되었다. (제4니파이 1:1~49 참조)
 4. 후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6)
-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백성들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 돌아가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토론

암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앨마서 17:19; 19:36)

암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레이맨인들의 땅으로 갔다. 그는 포로가 되어 레이맨인의 왕인 라모나이 왕에게 끌려 갔다. 암몬은 라모나이 왕에게 그가 종이 되기를 원하며, 왕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암몬은 빼앗겼던 왕의 양떼들을 찾았으며, 왕의 부하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였다. 라모나이 왕은 암몬의 용기에 대해 듣고 암몬을 불러들였다. 암몬은 라모나이 왕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며 라모나이 왕은 개종하였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구 토론

앨마서 19장 33절을 읽는다.

- 오늘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칠판 및 성구 토론

-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도록 영향을 주는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원들에게 다음의 예들을 각각 언급하게 하고 그것들을 칠판에 적는다. 주님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들을 어떻게 주셨는지 강조하기 위해 인용된 성구들을 사용한다.)

합당한 친구들을 선택한다.(교리와 성약 38:42; 앨마서 5:57 참조)

경전을 공부한다.(교리와 성약 26:1; 모사이야서 1:7; 교리와 성약 11:21~22 참조)

기도한다.(교리와 성약 31:12 참조)

사탄의 흔적만 보더라도 피한다.(테살로니가전서 5:22 참조)

책, 잡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 영화 등은 좋은 것만을 선택한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생각과 행동을 깨끗이 한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 이것들은 각각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각자 시온을 건설할 수 있는가?

토론 및 칠판

- 우리는 어떻게 시온을 건설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칠판에 간략하게 대답들을 적는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시온을 건설할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모범을 보인다.

선교 사업을 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합당한 가족이 된다.

개인적인 성실함을 유지한다.

십일조와 헌물을 바친다.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한다.

간증 및 목표

반원들에게 그들이 매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다음 그것들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게 기도로 간구하도록 반원들에게 목표를 준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과 축복에 관해 반원들에게 간증한다.

오늘날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

제 5 과

목적 반원들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유의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준비사항**
1. 다음 그림들을 사용한다.
 - ㄱ. 교사나 반원의 가족 사진 중 걸음마를 막 익힌 어린 자녀의 사진이나 집회소 도서실에서 아기가 있는 가족(62307) 그림을 찾아 보여준다.
 - ㄴ.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
 2.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낱말 띠를 준비한다.
 3. 휴 비 브라운에 관한 이야기 낭독극을 적거나 복사하여 나누어 준다. 공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주 전에 두 명의 유능한 반원들을 지명한다.
 4. *리아호나*에서 최근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선택한 다음 반원 한 명에게 그것을 읽도록 지명하고 그 선지자가 전한 가르침에 관해 발표하게 한다.(공과에서 이 발표를 위해 5분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및 토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의 그림을 보여 주며, 다음 이야기를 읽거나 말해 준다.

이 아이를 매우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가정한다. 여러분은 오늘 오후 그와 함께 정원에서 놀아 줄 책임이 있다. 정원의 한편에는 차가 속력을 내며 달리는 매우 번잡한 길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물이 흐르는 깊은 도랑이 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길 옆에서 놀거나 길 쪽으로 가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지만 아이는 지금 도랑 가에서 놀고 싶어 한다. 여러분이 아이를 정원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려 할 때 그는 큰소리로 울며 발버둥치면서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 여러분은 이에 굴복하겠는가? 아이를 도랑 가에서 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며,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 십대 청소년들이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영화를 보지 말아라”, “마약을 멀리 해라”, “집에 일찍 오너라”, “16세가 될 때까지는 데이트하지 말아라.”(부모, 교사 및 교회 지도자들)
- 부모, 교사 및 교회 지도자들이 “위험한 곳”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는 이들은 누구인가? (성신의 인도, 하나님의 선지자, 그들의 경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도록 선지자들에게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에서의 위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교회 지도자들을 예비하신다.

- 부모와 교사,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가?(아니다. 그들도 역시 성신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인도가 필요하다. 선지자들은 우리 모두를 가르치며 경고한다.)

오늘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

그림

살아 있는 선지자의 사진을 보여 준다.

낱말 띠 또는
칠판 및 토론

-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반원들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거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의 특성 중 하나이다. 토의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고 언급된 대로 칠판에 낱말 띠를 붙이거나 각각 기재한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다.
그는 죄를 비난하고 형벌을 선포한다.
그는 의로움을 가르친다.
그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경전을 설명해 준다.
그는 현재 교회 정책의 집행자가 된다.

다음 글을 읽기 위해 반원 한 명을 지명하거나 교사가 읽는다.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들이라는 것과 예수가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개인적인 계시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주 작은 영의 음성까지 인식할 수 있는 분이다. 참된 선지자는 성스러운 신권을 갖고 있으며 율법의 집행자이자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분이다. 참된 선지자는 복음의 진리를 계시 받는 합당한 교사이며 복음의 진리를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해의 왕국에서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분이다. 참된 선지자는 증인, 즉 알고 간증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증인이다. 이러한 선지자는 필요한 경우 미래를 예견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바를 인간들에게 알려 준다.” (*The Mortal Messiah*, 4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0년], 2:169)

우리에게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필요함

낭독극

미리 지명된 반원들에게 낭독극을 발표하게 한다.

교사: 사도이며 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휴 비 브라운 장로님은 전 “영국 대법원” 판사와 대담을 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브라운 장로에게 물론 신앙에 관해 몇 가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 “조셉 스미스가 공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 관해 제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브라운 장로: “우리는 아마 몇 가지 공통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판사님께서 기독교인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판사: “좋습니다.”

브라운 장로: “저는 판사님이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을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렇습니다!”

브라운 장로: “판사님은 기도를 믿으십니까?”

판사: “믿습니다!”

브라운 장로: “제가 믿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상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판사: “제게는 그렇습니다.”

브라운 장로: “판사님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한 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판사: “확실히,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그에 관한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운 장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판사: “예”

브라운 장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과 그 밖의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요?”

판사: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브라운 장로: “하나님과 인간의 접촉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나타났을 때 중지되었다고 믿으니까?”

판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통이 절정에 달했고 그 당시가 절정의 때였습니다.”

브라운 장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판사: “그렇습니다.”

브라운 장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한 적이 있음을 믿으니까?”

판사: “제가 기억하기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다소 사람 사울이 한 시현을 보고 소리는 들었지만 눈이 멀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브라운 장로: “사울이 들은 것은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판사: “아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라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브라운 장로: “판사님, 저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예였음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판사: “저도 그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기독교도의 시대 1세기 후에 곧 중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장로: “왜 중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브라운 장로: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몇 가지 가능한 이유들을 말씀드려 볼까요. 아마 말씀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상실해 버리신 것이죠.”

판사: “불경스러운 말씀이군요.”

브라운 장로: “만일 판사님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다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판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브라운 장로: “그러면 제가 알기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교육과 과학에서 장족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판사: “브라운씨, 세계 역사상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를 제게 말할 수 있겠죠.”

브라운 장로: “그분은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호, 117~118쪽에서 발췌; *Improvement Era*, 1967년 12월호, 36~37쪽, 또한 “선지자의 인물평”, *Speeches of the Year*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출판부, 1956년], 3~5쪽 참조)

토론

- 우리에게 왜 살아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가? (반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존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담에게 준 계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노아에게 준 계시는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는 계시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어떤 계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는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계시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수,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조셉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한 계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난파하게 됩니다.”(존 테일러, *The Gospel Kingdom*, 지 호머 더햄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 1943년], 34쪽)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또한 우리 시대에도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구 토론

“그런즉 교회를 뜻하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교리와 성약 21:4~5; 교리와 성약 1:38 참조)

- 우리에게 관한 한 모세나 아브라함, 니파이 또는 그밖의 다른 고대의 선지자만큼 중요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살아 있는 선지자. 그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선지자보다 성경에 나오는 분들과 같은 고대의 선지자들을 더 존경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사람들은 살아 계신 분들의 인간적인 결점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후기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를 줌

이야기 및 토론

다음 사건을 말해 준다. 한 젊은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계시를 받는 주님의 선지자에 의해 인도된다고 구도자에게 설명했다. 그 사람은 매우 관심을 갖고 그 장로에게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말해 줄 어떤 특별한 내용을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신의 선지자가 선포한 가장 최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라고 그 사람은 물었다. 선교사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 우리는 그 당황한 선교사보다 더 잘 답변할 수 있는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해왔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물몬경을 공부하고, 일지를 쓰고, 선교 사업을 하고, 낙태, 음란물, 동성애 및 기타 오늘날 행해지는 심각한 죄에 대해 경고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발표

반원을 지명하여 선지자의 말씀에서 발견한 중요한 지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한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죄악을 경고하시며 세상이 낡은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려 주셨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신중하게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2세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부족합니다.”(1948년 10월, Conference Report, 80쪽)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선지자를 따르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선지자의 권고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가 선지자가 된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자신의 손에 넣고 스스로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잘못 인도되게 될 것이다. 단지 편리할 때만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 우리는 어떤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선지자가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다면 그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반원들에게 대답하게 한다.)

성구 토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는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토론

- 조셉 스미스가 지혜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발표하고, 성도들에게 술뿐만 아니라 담배, 차, 커피까지 금하도록 권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확실하고 중요한 권고로 인식했는가?(아니다. 반원들에게 말하도록 허용한 다음, 그 권고가 과학적인 진리로 인식되기까지는 백 년 이상 걸렸음을

설명해 준다. 당시에는 의사들까지 담배, 차, 커피가 인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곤 했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건강의 축복을 얻었다.)

-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청결하라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신앙과 간증을 상실함, 가정이 파괴됨,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걸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영원한 축복을 상실함.)

우리의 순종심은 충실함의 척도가 됨

성구 토론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이렇게 말했다.

“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니파이후서 9:28~29)

물론 우리 각자는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종종 우리는 친구들의 권고와 선지자의 권고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그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위선적인 그들을 비난하셨다. 주님은 위선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간증 및 목표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간증을 전한다. 반원들에게 신앙을 발전시키고 현재 선지자의 권고에 따르도록 격려한다. 그들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필요한 회개를 하며, 이곳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진정한 후기 성도는 선지자를 지지하며 선지자를 따라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어둠 속에 비치는 빛

출생: 1805년 12월 23일 회장 재임 기간: 1832~1844년

목적 각 반원들이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스스로 알아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한다.

준비사항

1. 공과에 앞서 반원 한 명에게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3~26절을 읽고 그에 관한 느낌을 반원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 성구를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이 공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해야 할 어떤 부분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시간을 배정한다.
2. (공과의 끝에 나오는) 반원용 “나에게 조셉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유인물을 준비한다.
3. 지구본(또는 지구를 나타내는 큰 공)을 준비하고 공과에 앞서 매우 검은 천으로 그것을 덮어 놓는다.
4. 반원들이 물몬경과 값진 진주를 지참하게 한다. 필요할 경우 여분의 책이 있는지 집회소 도서실을 확인해 본다.
5. 그림 “첫번째 시험”(62470; 복음 그림 패킷 403), 그림 “조셉 스미스의 방에서 조셉에게 나타난 모로나이”(62492; 복음 그림 패킷 404), 그림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62371; 복음 그림 패킷 408)
6. 조셉 스미스가 그러한 간증을 어떻게 얻었는지 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와드나 지부에서 간증을 얻기 위해 고심했던 한 사람을 초청할 수 있도록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허락을 구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포스터 또는 칠판

공과 전에 다음 질문들을 포스터에 써 오거나 칠판에 적어 둔다.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가 보았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보고 들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포스터를 게시하고 반원들에게 그것을 읽게 한다.

유인물 및 토론

유의 사항: 다음 토론은 반원들이 간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교사의 강한 확신은 반원들을 영적으로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조셉 스미스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각 반원에게 “나에게 조셉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유인물 사본을 한 장 씩 나누어 준다.(공과 끝에 있는 사본 참조)

나에게 조셉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반원 한 명에게 유인물에 있는 다음 글을 읽게 한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내가 이곳 지상에 있는지, 이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았다.” 반원들에게 1820년 당시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의 계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 그들은 왜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는가? 다른 시대의 선지자들은 완전한 진리를 알고 가르쳤다. (사약함 때문에 경전의 많은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이 빠졌음. 니파이전서 13:20~29 참조)

조셉 스미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순종한다면 악마의 모든 교리와 속임수를 물리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반원 한 명에게 유인물에 있는 두 번째 글을 읽게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실재하시며 내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 세상의 교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이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육신이 없는 하나의 영적 실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만져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승영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반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들인지 알고 인간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

실물 공과

세상을 나타내는 검은 천을 덮은 지구본이나 공을 탁자나 교실 앞에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는다. 1820년대는 영적이 암흑기였다고 설명한다. 비록 많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노력했지만, 선지자나 권세가 없었다.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교회가 없었으며, 너무나 많은 그릇된 가르침과 원리들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일었다.

그때 주님은 어린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진리, 새로운 이해력, 권세, 계시,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과 흡사하다. 천을 벗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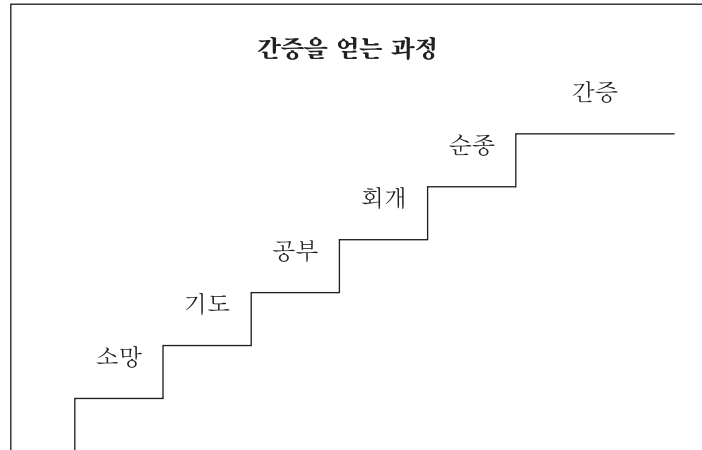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경륜의 시대가 왔음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은사인 복음을 갖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와 귀중함을 배울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

토론

반원 한 명에게 유인물에 있는 세 번째 글을 읽게 한다. “참된 교회가 지상에 있으며 나는 내가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지금은 교회가 참되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간증을 강화시키고 확실히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 성구 모로나이서 10장 4절을 읽는다.
- 칠판 및 토론 칠판이나 큰 포스터 위에 아래와 같이 “간증을 얻는 과정”이란 도표를 붙인다.(각 계단은 공란으로 한다.) 제일 위 계단에 간증이라고 기입한다.



- 조셉이 참된 선지자였는지, 또는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올바른 대답이 나오면 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적절한 단계마다 기입한다.)

- 간증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허락을 얻었을 경우 와드나 지부에서 간증을 얻는 데 고심했던 한 분을 초대하여 그가 어떻게 그 간증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게 한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확대함

- 토론 소년기의 조셉 스미스에 대한 지식과 당시 그의 느낌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조셉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닮았는가? (그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다. 그는 생계를 돕는 일과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했다. 그는 질병과 같은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항생제나 마취제, 또는 면역 물질 등이 없었다. 그는 어렸을 때, 다리에 매우 고통스러운 관절염을 앓은 적이 있었다. 그는 가족을 돕기 위해 힘든 일을 했으며 운동을 좋아했다. 그는 부상을 당했을 때 고통을 맞보았다. 그는 기도했다.)

- 그림 및 복습 성스러운 숲 속에 있는 조셉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 준다. 성스러운 숲으로 조셉을 인도했던 그의 느낌을 간단히 복습하거나 그에 관해 반원 한 명에게 말하게 한다.

첫번째 시현을 공부하면 우리의 간증이 강화될 수 있음

- 성구 읽기 및 토론 반원들에게 경전을 펼쳐 속으로 조셉 스미스-역사 1장 13~26절까지를 천천히 읽게 한다. 다 읽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도록 반원들에게 말한다.

읽기를 마친 후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묻는다.

- 여러분은 사탄이 왜 조셉이 이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복음의 진리와 빛, 그리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지상에 다시 오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가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의 적이다.)

- 여러분은 왜 사탄이 조셉을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사탄의 권능보다 강하며, 하나님은 사탄이 조셉을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 당시 조셉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 평안함과 성신의 영이 우리 각자를 위안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것은 기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 조셉은 왜 시현을 본 후 “기운이 없었”는가? (그것은 육체적으로 탈진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주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하는 권능과 영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조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거나 강건하게 되어 보호를 받아야 함을 설명한다. 그 어떤 필멸의 남성이나 여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 어느 때든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

발표

지명된 반원에게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경험했던 일에 대해 느낀 점이나 간증을 말하게 한다.

간증 및 목표

칠판이나 포스터에 붙였던 “간증을 얻는 과정”을 다시 언급하고 반원들에게 조셉이 행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목표를 준다. 조셉은 계시를 받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복음에 관한 질문 이외에도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즉 학교 생활,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금전 관계 또는 행동하는 방법 등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혜가 매일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갖고 참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응답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구 및 간증

야고보서 1장 5~6절을 읽고 자신의 간증을 전한다.

나에게 조셉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조셉 스미스는 참된 선지자이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나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내가 이곳 지상에 있는지, 이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았다.(아브라함서 3:22; 교리와 성약 45:56~59; 교리와 성약 76편 참조)
2.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실재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조셉 스미스-역사 1:16~20 참조)
3. 참된 교회가 지상에 있으며, 나는 내가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알았다.(교리와 성약 20:1 참조)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굳건히 함

목적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간증을 키우도록 한다.

- 준비사항**
1. 공과 끝에 나오는 “친구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이해하도록 도움”이라는 유인물을 반원 수만큼 복사한다.
 2. 칠판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이해함”(29쪽 상단 참조) 내용을 쓰거나 단어 카드에 미리 써서 가져 온다.
 3. 각 학생에게 성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다면 집회소 도서관에 성경이 더 있는지 확인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읽는다.

열네 살인 준수는 교회 회원이다. 어느 날, 준수의 비회원 친구인 병철이는 준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교회의 선교사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토론을 하고 있어. 우리는 네가 훌륭한 교회에 속해 있고 이 교회가 훌륭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나는 조셉 스미스가 시현을 보았고 금판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토론 및 성구

- 병철은 조셉의 시현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준수는 친구인 병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준수는 조셉의 시현이 당시에 특별한 것이긴 했지만 선지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를 통해 주님은 그의 선지자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셨다.)
- 이 밖에도 주님을 만나 이야기한 선지자들에는 누가 있는가?(다음 선지자들을 언급할 수 있다. 아담 [창세기 3:8~13; 교리와 성약 107:54~55; 모세서 6:22 참조], 에녹 [창세기 5:22, 24; 교리와 성약 107:49; 모세서 7:4], 노아 [창세기 6:9; 모세서 8:27], 아브라함 [창세기 12:7; 18:1; 아브라함서 2:6], 이삭 [창세기 26:2], 모세 [출애굽기 24:1, 9~11; 33:11], 이사야 [이사야 6:1], 에스겔 [에스겔 1:1; 44:4], 스테반 [사도행전 7:55~56], 야렛의 형제 [이터서 3:6~15], 니파이 [니파이후서 11:2~6], 야곱 [니파이후서 11:3], 몰몬 [몰몬서 1:15],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역사 1:17].)

이외에도 여러 다른 선지자들이 주님을 보았다.

토론 및 성구 고리

- 병철이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준수는 다른 성구들과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칠판에 세 문장과 참조 성구들을 쓰거나 단어 카드를 준비하여 붙인다.)

칠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이해함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1:19 참조)

1. 하나님의 권능과 영으로 굳건하게 되고 보호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교리와 성약 67:11 참조)
2. 오직 합당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요한복음 6:46 및 교리와 성약 93:1 참조)
3.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스스로를 보여 주신다.(출애굽기 33:20 참조. 또한 그 구절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 33:20과 비교해 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다른 경전 구절에 대해서는 경전 안내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필멸 이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필멸 이후의 나타남”을 참조한다.)

성구 토론

반원들에게 다음 성구들을 찾아 같이 읽게 한다. 창세기 12:7; 출애굽기 24:9~10; 출애굽기 33:11. 이러한 많은 성구들은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일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 그러한 시현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1. 그러한 시현에는 요구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의 시대는 복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던 때였다.
 2. 합당한 사람이 요구된다.
 3. 시현은 단순히 인간이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했을 때 일어난다.
-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 주님이 그의 선지자들과 가졌던 오래된 대화 형태의 한 예에 불과하다는 말로 매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인물

각 반원에게 “친구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이해하도록 도움”(공과 끝에 있다) 유인물의 사본을 한 장씩 나누어 준다. 반원 한 명에게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 특별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교사 유의 사항: 금판을 담은 돌상자는 특별하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기록을 기록하는 금속판은 고대에 흔하게 있었다.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은 모든 종류의 금속판들이 기록을 남기는 데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고 있다. -에이치 커티스 라이트, “돌상자에 담긴 고대 금속 기록”, *Journal of Library History*, 고대 탐사 및 물문 연구회, WR-1981 참조)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

토론 및 성구

- 병철이와 같은 친구가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말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반원들이 성신에 관해 토론하도록 인도한다.)

우리는 몰몬경 모로나이서 10장 4절에서 선지자 모로나이가 만일 진리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실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성신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다.

모로나이서 10장 4~5절을 반원들에게 읽어 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친구에게 조셉 스미스가 가졌던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들려줄 수 있다.(조셉 스미스-역사 1:5~26 참조) 우리는 친구에게 경건한 자세로 그것을 읽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제언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성신의 권능”으로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모로나이서 10:4 참조)

간증 및 목표

조셉 스미스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여러분의 확신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반원들에게 목표를 준다.

친구가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이해하도록 도움

1. 하나님은 종종 선택하신 선지자들과 직접 대화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또는 구주는 다음 선지자들과 직접 대화하셨다.

아담 (창세기 3:8~13; 교리와 성약 107:54~55; 모세서 6:22 참조)	이사야 (이사야 6:1)
에녹 (창세기 5:22, 24; 교리와 성약 107:49; 모세서 7:4)	에스겔 (에스겔 1:1; 44:4)
노아 (창세기 6:9; 모세서 8:27)	스테반 (사도행전 7:55~56)
아브라함 (창세기 12:7; 18:1; 아브라함서 2:6)	야렛의 형제 (이더서 3:6~15)
이삭 (창세기 26:2)	니파이 (니파이후서 11:2~6)
모세 (출애굽기 24:1, 9~11; 33:11)	야곱 (니파이후서 11:3)
	몰몬 (몰몬서 1:15)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역사 1:17)

2. 만일 사람이 참마음으로 진리를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그에게 계시를 주신다.(모로나이서 10:5)

목적 반원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계시의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 준비사항**
1.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유타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1981년 9월 29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행한 말씀을 공부한다.(이 말씀은 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0~41쪽에 실려 있다.)
 2. 이 공과에 필요한 포스터나 칠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다음 상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발표한다.

한 학급 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곳의 문은 잠겨 있고 출입 금지 팻말이 있긴 하지만 문 옆 평평한 돌 밑에 열쇠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열쇠로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 여러분과 한 친구는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학급 친구의 말은 맞았다. 그곳은 아름답고 따뜻한 호수였다. 여러분은 재미있게 수영을 즐겼다. 그러나 집에 오는 도중에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며 이상한 회색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는 집에 도착할 때쯤 몸 전체에 큰 물집들이 생겼다. 입원 치료를 해야 할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의 친구는 호수가 유독한 화학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다.

- 토론**
-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만일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그랬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반원들과 얼마 동안 이것에 관해 토의한다.)

이것은 사탄의 행위이다. 그는 종종 그 결과가 잘될 것이라고 여러분을 속이면서 큰 약속을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 사탄은 종종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가게에서 물건 훔치기, 담배 피우기, 부도덕한 짓, 마약 등의 행위가 괜찮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칠판 또는 포스터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칠판에 다음 사항을 적는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죄	사탄의 유혹	결과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	곧 부를 얻을 수 있다	신망을 잃고, 전과 기록을 남기며, 감옥에 갇힌다.
마약 남용	순간적인 즐거움, 인기	뇌손상, 건강을 해치고 죽음에 이름
부도덕성	자기 만족	유덕함과 자존심의 상실, 혼외 임신, 질병

사탄이 이 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하며 시험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시련과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병약함,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 사고, 재정적인 어려움, 친구간의 반목, 교육을 받을 때 겪는 어려움 등)

다행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이러한 은사 중 가장 위대한 한 가지는 계시이다.

칠판

칠판에 이렇게 쓴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시는 대화이다.” (델린 에이치 옥스)

계시는 대화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시는

계시에는 많은 목적이 있음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 모두가 계시를 받아 왔으며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계시”, 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0~41쪽 참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대화하시는 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그리 하신다.

칠판 및 토론

다음 목적들을 칠판(또는 포스터 사용)에 적으면서, 반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계시의 목적은

1. 간증하는 것이다.
2. 예언하는 것이다.
3.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4.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다.
5. 알리기 위한 것이다.
6.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7.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8. 재촉하기 위한 것이다.

(반원들에게 공과가 진행되는 대로 질문을 하고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나누게 한다. 여덟 개의 목적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칠판에 있는 “간증하는 것이다.”에 줄을 친다.

옥스 장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복음이 참되다는 성신의 간증 또는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2쪽)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지식을 간구해야 한다.

“예언하는 것이다.”에 줄을 친다.

계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밝혀줄 수 있다.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의 다섯째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다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커질 수 없다고 결론짓고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성전에 있는 동안 성령이 아내에게 다시 아기를 낳으리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예언적 계시는 1년 반 뒤에 우리가 13년이나 기다려 온 여섯째 아기의 탄생과 더불어 성취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2쪽)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에 줄을 친다.

“어떤 사람은 헤어져 사랑하는 사람의 시현이나 그들이 같이 있다는 느낌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상의 이익,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잃는 상태에서 적응하는 동안 위안을 받았습니다. 위안의 계시는 또한, 신권의 축복과 관련해서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위안의 계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씀했다.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다.”에 줄을 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의기소침, 불길한 예감이나 부적당하다는 느낌, 또는 영적인 침체에서 들어올려질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씀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3쪽)

“알리기 위한 것이다.”에 줄을 친다.

“특히 성스러운 순간에는 고대와 현대 경전에서 밝히는 시현 등과 같이 하늘에서 온 분과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가운데 알려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고요한 속삭임에 의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이런 순간에 성신은 교사로서, 계시자로서 그의 직분을 행합니다.”라고 옥스 장로는 말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4쪽)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에 줄을 친다.

니파이는 억제하는 것에 사용된 계시의 예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더 말할 수 없노라. 영이 나의 말함을 그치게 하시나니”(니파이후서 32:7)

옥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 시절 겪었던 다음 경험을 이렇게 말씀했다.

“몇 년 전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가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에 서명하려고 탁상용 펜을 집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적어도 수십 번씩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대학교에서 우리가 결정한 어떤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사전조치는 다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명하려는 순간 매우 부정적인 느낌과

예감으로 압도되어 그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 두고 그 문제를 전부 다시 검토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새로운 몇 개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만일 그 조치를 취했다라면 장래에 이 대학교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5쪽)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에 줄을 친다.

옥스 장로는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말씀을 인용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 재능, 능력, 감각, 판단력, 선택의지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앙으로 간구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인하시는 주님의 대답을 간구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6쪽)

종종 우리는 주님에 의해 어떤 결정을 하도록 요청되며, 주님은 우리가 단지 그 결정을 확인하기만 하도록 요청하시기도 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서 역원으로 부름받을 때와 보좌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할 때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런 결정을 확인해야 한다. 옥스 장로는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그런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했다.

“재촉하기 위한 것이다.”에 줄을 친다.

이런 형태의 계시는 우리가 특별한 권고를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옥스 장로의 다음 사건은 우리를 재촉하는 계시의 한 가지 예가 된다.

“저의 할머니 에스티 올슨 해리스도 어린 소녀였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유타 주 캐슬 데일에 사셨던 할머니는 집 근처에 있던 메마른 강바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며 어린이들을 강바닥에서 강둑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으며 비가 올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아이들은 계속 강바닥에서 놀았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급하게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시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강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막 독에 도착하자 엄청난 강물이 계곡을 휩쓸고 내려와서 어린이들이 놀던 곳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 강물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에 내린 폭우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재촉하는 계시가 없었다면 할머니와 어린이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12월호, 37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이 전하는 첫 번째 알림에 유의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내면으로 흘러 들어오는 깨끗한 예지를 느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주목하여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같은 날, 혹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진 일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닮게 될 것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46쪽)

청남 청년들은 교회 부름을 받으면서 그들의 책임을 더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촉하는 계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계시와 인도는 교회의 원리와 정책에 따른 것이며 결코 복음 원리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합당한가?

토론 및 성구

계시는 훌륭한 영의 은사 중 하나이다.

- 그런 가치 있는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반원들에게 대답하게 한 다음 교리와 성약 46편 8~9절을 반원들에게 읽어 준다. 9절의 다음 부분을 강조한다. “그러한 것[영의 은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
-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가?(반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다. 그러나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계시는 우리 중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애쓰는 사람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영의 은사 중 하나이다. 여러분에게는 옳은 일을 행하도록 매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간증 및 목표

반원들에게 다음 주까지 주님께서 그들과 교통하고자 하셨던 때가 언제였는지 살펴보도록 목표를 준다. 그들에게 욱스 장로가 언급한 계시의 형태, 즉 간증하고, 예언하고, 위안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알리고, 억제하고, 확인하고, 재촉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나타난 계시의 권능에 대해 간증한다.

각각의 사도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임

그림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최근 사진을 보여 준다. 사도로 성임된 각 사람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성임되었음을 설명한다. 우리는 그들을 대회에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지지한다. 각각의 사도는 사도직에 성임되어 교회 회장이 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도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졌던 선임 사도가 될 때까지 그는 그 열쇠를 행사할 수 없다. 선지자의 사망시에 선임 사도는 제일회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교회를 감리한다. 제일회장단이 조직될 때 그는 교회의 새로운 회장과 선지자가 된다.

교회 회장이 사망할 때마다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감리해 왔다. 때때로 그들은 새로운 회장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수년 동안 감리해온 때도 있었다. 그러나 윌포드 우드럽이 교회 회장이었을 때 그는 앞으로 주님은 교회 회장이 타계한 직후에 즉시 십이사도 정원회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를 원하신다고 사도들에게 말했다.

토론

- 만일 오늘 교회 회장이 타계한다면 다음 교회 회장은 누가 될 것인가?(살아 있는 선임 사도가 다음 회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확립된 절차이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만이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 이름을 반원들에게 말하고 이 사도가 현재 교회 회장 다음으로 오랫동안 사도직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회장이 타계하면 그의 보좌들은 사도직에 성임된 일시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에 복귀한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일깨워 준다.)

정원회의 한 구성원이 사망하면 성임 일자가 사망한 사람보다 뒤에 있었던 사도들은 열두 번째가 열한 번째로 되는 것처럼 순위가 오르게 된다. 새로운 사람이 사도로 부름받으면, 그의 성임 일자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정된 순위를 결정한다. 즉, 새로운 사도는 정원회의 열두 번째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 회장이 될 모든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한다. 주님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며, 그런 다음 주님이 그들 중 한 사람을 교회 회장으로 부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는 이미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해 있으며 그 정원에서 선임 사도가 되어 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회장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자 이와 같이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열네 명의 사도가 열쇠를 갖고 계시며, 그 중 열두 사람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고 두 분은 제일회장단의 보좌로서 필요한 때 사도의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 서열에 따라서 회장직에 성임됩니다.”

“조셉 스미스 시대 이래 교회에는 모두 약 80명의 사도가 임명되었으며 그 중 열한 분만이 회장으로 성임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종들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이미 예임된 사람에게만 그 자리에 허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탄생은 모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도가 주님께 의해서 택함을 받으며 그런 연후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그를 성임합니다.”(성도의 벗, 1973년 7월호, 3쪽)

선지자의 겉옷

이야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음을 당한 후 십이사도들이 교회를 감리하게 되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새로운 교회 회장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시드니 리그돈은 11년 동안 회장 조셉 스미스의 보좌였으며 여러 가지로 조셉을 도왔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자신이 다음 번 교회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감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의해 회장으로 선출되기를 원했다.

시드니 리그돈은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감리하게 될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모임을 요구했다. 선임 사도인 브리검 영과 그 밖의 사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음을 당한 지 6주 후인 1844년 8월 말 그들의 선교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부에서 모임이 개최되었다. 시드니 리그돈과 브리검 영은 모두 모임에서 말씀을 했다.

또 다른 모임이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리도록 요구되었다. 그 모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브리검 영이 말씀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잠시 그는 조셉 스미스처럼 보였으며 그의 음성으로 말했다.

그림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의 그림을 보여 준다.

후에 교회 회장이 되었던 윌포드 우드립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나부에서 영 형제에 대해 간증한 두세 명의 형제들에 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남녀들, 아마 수천 명이 되었을 그 사람들은 모두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고, 십이사도와 그 밖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모습이 어떻게 브리검 영에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시드니 리그돈이 그곳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말하자면 우왕좌왕하며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검 영이 그 모임에서 일어났을 때 그에게는 조셉의 겉옷이 그에게 입혀져, 그의 얼굴은 조셉 스미스의 얼굴이었으며, 조셉 스미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고, 조셉의 음성으로 말했으며, 그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 브리검 영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드니 리그돈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브리검 영이 성도들의 적절한 지도자임을 마음속으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을 확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았고 들었습니다.”(*Journal of Discourses*, 15:81)

에밀린 비 웰스도 역시 그 모임에 있었으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차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지만 앉아 있던 사람들은 일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아주 잘 볼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선지자 조셉이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리검 영이 몇 마디 말씀을 한 후 격동은 가라앉았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선지자 조셉이 아니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안 적도 본 적도 없는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에밀린 비 웰스, “나의 간증” 프레스턴 니브리 편, *Faith-Promoting Stories*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43년], 137쪽)

주님은 성도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사도인 브리검 영이 교회의 다음 회장이 될 것임을 알려주셨다.

지도자가 변경되는 일에는 질서가 있다

토론

오늘날 교회에는 지도자 변경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다음과 같은 체계가 있다.

- 여러분은 교회 회장이 타계할 때 교회의 제일회장단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본 적이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어떻게 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주님의 선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엔 엘돈 태너 회장의 말씀을 읽어 준다. “리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 김볼 회장님은 12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솔트레이크 성전 평의회실에서 모든 사도들의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롬니 회장님과 저는 그 평의회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앉았으며, 따라서 그 모임에는 열네 명이 참석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롬니 회장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김볼 회장님은 매우 겸손한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분은 금요일을 성전에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새로운 책임을 맡고 보좌를 선택하는 일에 인도를 간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신권의 예복을 입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저에게 그 모임을 사회하라고 하시고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님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김볼 회장님은 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시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열에 따라 정원회 회원 각자가 그날로 제일회장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또는 십이사도 평의회로서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지금 조직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김볼 회장님에 대하여, 또한 십이사도들과 함께 그분이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님이 스펜서 더블류 김볼을 교회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이 똑같이 지명하고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자 김볼 회장님은 엘 엘돈 태너를 제1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를 제2보좌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기꺼이 그 직책을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을 바치겠다는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하셨습니다. 그러자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두 번째 서열인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이 십이사도의 선임 회원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이 소리를 내어 스펜서 더블류 김볼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열두 번째 회장으로 축복하고 성임하고 성별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9년 10월, 62~63쪽,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62쪽)

칠판 또는 포스터 및
토론

현재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를 올바른 순서대로 칠판에 적거나 준비된 포스터를 게시한다. (이 작업을 돕기 위하여 현재의 모든 총관리 직원들의 최근 사진을 얻는다. 이것은 보통 최근의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려 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현재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한다.

토론

우리 각자는 언제 새로운 교회 회장이 선출될 것이며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이신 교회 회장이 주님께 의해 선출되었다는 간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증 및 목표

- 어떻게 우리는 그런 간증을 얻을 수 있는가?(반원들이 응답하게 한다.)

반원들에게 주님께서 선택한 종인 선지자가 계시된 절차에 따라 그 직분에 성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목표를 준다.

교회 회장들은 각각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었고, 교회를 인도하도록 선출되었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선지자와 오늘날 교회 회장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출생: 1801년 6월 1일 회장 재임 기간: 1847~18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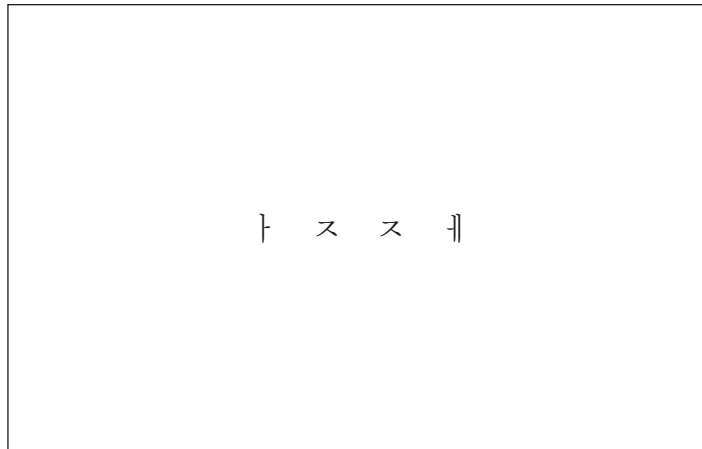
목적 각 반원들이 브리검 영의 생애를 공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강한 결심을 키우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들이 신약전서와 교리와 성약을 지참하게 한다.
 2. 집회소 도서실에서 연필과 그 밖의 필요한 재료들을 얻는다.
 3. “브리검 영 단어 찾기 문제” 및 “브리검 영 단어 찾기 퍼즐” 유인물 사본들을 준비한다.
 4. 다음 그림들을 얻어 게시하도록 준비한다. *어부의 부름*(62496; 복음 그림 패킷 209), 교재 끝에 있는 브리검 영의 그림, 현재의 선지자, 교재 끝에 있는 모네가 그린 *해바라기*
 5. 공과 전에 여섯 명의 반원들을 지명하여 브리검 영의 생애에 대한 발표를 하게 한다. 만일 반원 숫자가 여섯 명보다 적을 때에는 교사 자신이 발표 중 어떤 것을 담당하거나 각 반원에게 하나 이상의 과제를 지명할 수 있다. 공과에 있는 발표문 사본을 나누어 준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칠판 및 토론 칠판에 다음 문자들을 적고 이 문자로 이루어진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정답: 제자[disciple])



- 제자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림 *어부의 부름*이란 그림을 게시한다.

성구 토론	<p>반원들에게 신약전서를 펴게 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그림	<p>어부의 부름 그림 다음에 브리검 영의 그림을 놓고 브리검 영의 그림 위나 밑에 제자란 단어를 기입한 다음 다음을 읽는다.</p>
단어 찾기 문제	<p>오늘 우리는 진실한 사도였던 브리검 영의 생애를 공부할 것이다.(이때 유인물 사본을 배부하고 각 반원에게 연필 한 자루씩을 준다.) 우리는 여섯 가지의 짧은 반원 발표로 시작할 것이다. 각 발표를 가능한 주의 깊게 듣고 발표가 끝난 뒤 유인물에 있는 질문에 답한다. 우리는 나중에 하는 그룹 활동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브리검 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지에 대한 각각의 발표를 듣는다.</p> <p>여섯 명의 지명된 반원들의 발표로 시작한다.</p>

인생 초기에 겸손을 배우

발표 1	<p>브리검 영은 1801년 6월 1일 버몬트주 워팅햄에서 가난하지만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정식 교육이라곤 11일 밖에 받지 못하였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정식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관목을 줍고, 나무를 베며, 통나무를 굴리고, 나무를 오르내려 밭과 밭가락을 다칠 수 있는 특권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빵을 만들고, 접시를 닦으며, 소젖을 짜고, 버터를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르레스톤 니블리, <i>Brigham Young: The Man and His Work</i>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6년], 1쪽)</p>
------	---

놀라운 책의 발견

발표 2	<p>1828년에 브리검 영은 뉴욕 주 멘단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은 교회가 조직된 곳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이었다. 멘단에서 그는 몰몬경을 읽었다. 최초로 선교 사업을 나갔던 선지자 조셉의 동생인 새뮤얼 스미스는 브리검의 형인 피네스 영에게 몰몬경을 팔았다. 피네스는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책을 읽고 그의 가르침을 믿었던 피네스는 그 책을 아버지와 브리검에게 소개했다. 브리검은 그것을 열심히 읽었으며 그곳에 몰몬의 훌륭한 뜻이 있는 것을 느꼈다고 형에게 말했다.</p> <p>브리검 영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거의 2년 동안 골똘히 그 문제에 관해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될 때까지 모든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원했습니다.”(수사 영 게이트 및 리 디 윌소, <i>The Life Story of Brigham Young</i> [뉴욕: 맥미란 사, 1930년], 9쪽) 2년 후 그는 침례를 받았다.</p>
칠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리검 영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 예비되었던 사건이나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하는 것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며, 몰몬경을 접하기 위해 뉴욕 주로 이사 가도록 주님에 의해 인도되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선지자 조셉을 사랑하게 됨

발표 3

어떤 사람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만큼 브리검 영의 생애에 영향을 준 사람은 없었다. 이제는 유명한 사람들이 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브리검 영이 침례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시점, 즉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미리암 위크스가 죽은 지 몇 주 후인 1832년 9월에 이루어졌다. 조셉 스미스의 동생과 친구인 히버 시 킴볼과 함께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여행했던 브리검 영은 이날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두세 명의 형제들과 함께 나무를 쪼개 나르는 선지자를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악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나는 기쁨에 충만했으며, 나는 그가 참으로 참된 선지자인 것을 예언의 영에 의하여 간증으로 얻을 수 있었다.” (“브리검 영의 역사”, *Millennial Star* 25 [1863년 7월 11일:439])

브리검 영은 이 만남 이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충실한 친구이자 추종자가 되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언제나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싶습니다.”(브리검 영, *Discourses of Brigham Young*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54년], 458쪽)

브리검 영은 주님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응했다고 설명한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발표 4

나무시의 생활 여건은 미시시괴강 근처 습지 때문에 대단히 불결했으며, 많은 성도들이 모기 때문에 학질에 걸렸다. 이때 브리검 영과 그의 동료 사도들은 주님께 의해 가족을 떠나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매우 쇠약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든 가족을 남겨 두고 떠나야 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기록했다. “저는 건강이 매우 쇠약해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강까지 160미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후 10일 밖에 안된 아기를 데리고 있는 병든 아내와 쇠약해져 서로 돌볼 수도 없는 모든 자녀들을 두고 떠났습니다.”(“브리검 영의 역사”, *Millennial Star* 25 [1863년 10월 10일:646])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가호 아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났다.

그는 영국에서 12개월 16일을 체류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 그와 동료들은 “칠팔천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물문경 오천 권과 찬송가 삼천 권, *밀레니얼 스타* 2,500부(영국 선교부 간행) 및 소책자 50,000부 등을 간행했다.”(*Millennial Star* 26 [1864년 1월 2일:7]) 또한 운송 회사를 설립하여 개종자 천 명을 나부로 이주시켰다.(*Millennial Star* 26:7 참조)

토론

브리검 영은 교회에 들어온 이후 10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 브리검 영에 대한 이 자료는 그의 충실함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그는 선지자를 끝까지 따랐으며 주님의 모든 부름을 완수했다.)

선지자 조셉을 옹호함

발표5

브리검 영은 이렇게 기록했다.

“언젠가 물문경의 증인이었던 몇몇 십이사도들과 그 밖의 교회 총관리 직원들이 커틀랜드 성전 이층 방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날 모임은 몇몇 총관리 직원들을 포함한 몇 명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반대했으며, 그를 몰아내고 교회 회장으로 데이비드 휘트머를 지명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었다.

존 스미스, 히버 시 김볼 형제와 그 밖의 사람들은 그런 방법에 반대했다. 나는 일어나 명료하고 힘찬 태도로 그들에게 조셉은 선지자이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 자신은 원하는 대로 조셉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부름을 탈취할 수는 없으며 단지 그들 자신의 권세만을 단절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연결시킨 끈을 스스로 잘라 내서 지옥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단호한 방법에 크게 격분했다. 그 배도자들은 그들의 목적에서 합의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해산했다.”(*Manuscript History of Brigham Young*, 1801~1844년, 엘든 제이 윌슨 편 [솔트레이크시티: 스미스 서기로의 봉사, 1968년], 15~16쪽)

지위를 탐하지 않았음

발표 6	<p>활동 초기에 그는 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시온 진영, 즉 쫓겨난 미주리 주 잭슨군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1834년 선지자 조셉에 의해 조직된 소수의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다. 브리검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으며 영국 선교부를 인도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직책을 탐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는 일이었다. 브리검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 번도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배울 기회를 지나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겸손한 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i>Journal of Discourses</i>, 12:270)</p>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리검 영은 선지자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는 “한 번도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배울 기회를 지나쳐 본 적이 없었다.”) <p>브리검 영은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를 지지하며 선지자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지자로부터 배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리검과 조셉 스미스의 관계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선지자를 지지했다”와 같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선택 공과: 단어 찾기 퍼즐	<p>복습할 시간이 있을 경우 “브리검 영 단어 찾기 문제”의 정답이 퍼즐에 숨겨져 있음을 설명한다. 퍼즐을 풀기 위해서 숨겨진 정답을 찾고 줄을 친다. 정답은 가로, 세로, 대각선 또는 거꾸로 퍼즐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완성하기 위해 대략 10분 정도 허용하고 재빨리 공과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 간다.)</p>

주님의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들

그림, 칠판 및 토론	<p>살아 있는 선지자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사진 옆에 <i>여러분</i>이라는 단어를 적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의 관계는 오늘날 선지자와 우리가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따르며, 그로부터 배우고 그를 지지하여야 한다.)
성구 토론	<p>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1편 38절을 읽게 한 다음 반원들에게 주님은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나 중, 즉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나 같다고 말씀하셨음을 지적한다.</p>
그림	<p>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해바라기 그림을 게시한다.</p> <p>“해바라기는 충성의 상징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름답지만 평범한 이 꽃은 이른 아침부터 대낮까지 태양을 따라가며, 마침내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내내 태양을 따라가며 바라본다.”(<i>Relief Society Courses of Study</i>, 1986년, 172쪽)</p>

우리는 해바라기와 브리검 영처럼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제일회장단의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스럽고 훌륭한 것입니다.”(“여러분의 상속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75쪽)

간증 및 목표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목표를 준다.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고 계시며 살아 있는 선지자를 통해 인도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증을 전한다.

브리검 영 단어 찾기 정답

- | | | | |
|-----------|------------|---------|------------|
| 1. 버몬트 | 2. 고된 일 | 3. 몰몬경 | 4. 새뮤얼 스미스 |
| 5. 조셉 스미스 | 6. 예수, 선지자 | 7. 할렐루야 | 8. 영국 |
| 9. 커틀랜드 | 10. 제자 | | |

몰 경 은 다 름 아 민 국 동
 리 몬 표 터 랜 들 책 아 심
 버 몰 래 (드 랜 틀 커) 루 이
 몬 지 스 통 (일 된 고) 벨 라
 트 집 스 미 스 셉 조 할 면
 리 본 림 슈 스 르 르 예 을
 올 때 선 창 문 열 수 지 끝
 국 지 하 던 마 남 무 먹 여
 자 영 글 (제 자) 자 도 새 랑

브리검 영 단어 찾기 문제

단어 찾기 문제의 정답은 단어 찾기 퍼즐 속에 숨겨져 있다. 각 질문을 읽은 다음 아래 퍼즐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 동그라미를 친다. 정답은 퍼즐 안에 가로나 세로, 대각선 방향 또는 아래서 위로 숨겨져 있으므로 주의해서 찾는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답에 동그라미를 친 후 다음 빈칸을 채운다.

1. 브리검 영은 어느 주에서 태어났는가? _____
2. 정규 학교 교육은 오직 11일 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는 _____을 통해서 가치있는 삶의 교훈들을 배웠다.
3. 브리검 영은 집에 놓여 있던 _____을 연구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다.
4.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였던 _____는 그 책을 전해줌으로써 브리검 영이 개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 _____를 만난 일은 브리검 영이 교회에 들어온 후 그의 생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6. 브리검 영은 종종 자신을 _____ 그리스도와 _____ 조셉 스미스의 제자라고 말했다.
7. 브리검 영은 그가 조셉 스미스를 알게 된 일을 생각하면 _____라고 외치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8. 사도 직분과 순종의 증거로서 브리검 영은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그에게 _____으로 선교 사업을 하라고 부름을 주었을 때 이를 위해 미국을 떠났다.
9.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암흑기를 겪는 동안 브리검 영이 조셉 스미스를 옹호했던 초기의 물몬 지역은 어느 곳인가?

10.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_____

브리검 영 단어 찾기 퍼즐

물 경 운 다 름 아 민 국 동
리 문 표 터 랜 들 책 야 심
버 물 래 드 랜 틀 커 루 이
문 지 스 통 일 된 고 렐 라
트 집 스 미 스 셉 조 할 면
리 본 럼 쥬 스 르 르 예 을
을 때 선 창 문 열 수 지 끝
국 지 하 던 마 님 뮤 먹 여
자 영 글 제 자 자 도 새 랑

브리검 영: 의로운 성역을 통해 왕국을 건설함

목적 브리검 영의 생애를 공부함으로써 각 반원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의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들이 값진 진주와 물몬경을 지참하게 한다.
 2. 지시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세 명에서 다섯 명의 반원들을 지명한다.(발표 자료는 공과 자료에 나와 있으며 지명된 반원들에게 복사하거나 적어 주어야 한다.)
 3.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이나 여성 한 명을 초대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 그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며 주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반원들에게 말하게 한다. (만일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지시된 대로 공과를 진행한다.)
 4. 공과 끝에 있는 벌집통 그림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토론

이 공과의 끝에 나오는 벌집통 그림을 보여준 다음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브리검 영과 물몬 개척자들이 유타에 정착했을 때 사용했던 상징의 하나이다. 이 벌집은 브리검 영이 지은 아름다운 집에 있는데 그 집은 꿀벌의 집(Behive House)이라고 명명되었다. 이 상징은 또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곳에는 문 손잡이에 벌과 벌집이 그려져 있다.

벌집은 또한 유타 주 기에도 하나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다.

토론

- 브리검 영과 물몬 개척자들에게 벌집이 상징했던 것은 무엇인가? (벌집과 벌은 근면과 일을 상징했다.)
- 이 상징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가? (벌의 상징은 그들에게 서부의 산과 계곡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이 서부의 새로운 땅을 데저렛이라고 처음 명명하였다. 데저렛은 야렛인들이 꿀벌을 지칭할 때 썼던 이름이다. [이더서 2:3 참조] 야렛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꿀벌 떼를 갖고 왔었다.)

성구 토론

하나님께서 브리검 영이 하도록 기대하셨던 사업은 오늘날 우리가 하도록 기대되는 사업과 같은 것이다. 반원들에게 값진 진주를 펴고 모세서 1장 39절을 읽게 한다.

- 이 생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자신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발표

각각의 짧은 발표는 토론을 유도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브리검 영과 오늘날 회원들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뒤따르도록 계획되었다.

일에 대한 브리검 영의 모범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영감을 불어 넣었으며, 도움이 되었다. 지명된 회원들이 짧은 발표를 할 때 유의해서 듣고 이런 예들을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

발표 1

조셉 스미스처럼 브리검 영도 실천적이면서도 비전을 쫓는 사람이었다. 그는 후기에 행하도록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였다. 조셉이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놓았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그 기초 위에다 왕국을 건설해야만 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브리검 영이 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선지자와 선거자로서 봉사한 그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취한 일부 조치들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 나부를 떠나야만 했던 바로 직전에도 영 회장은 성도들이 나부 성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 성전을 완성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돈, 그리고 재능이 요구되었다.

토론

-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사용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리검 영이 나부 성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주님이 성전을 건립하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음을 알았으며(교리와 성약 124:27 참조) 그것을 단지 잠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서부로 가는 동안 직면할 고난에 도움이 될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브리검 영이 성도들을 서부로 인도함

발표 2

조셉 스미스의 곁옷이 브리검 영에게 입혀진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브리검 영은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충실한 성도들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인도했다. 그들은 미국 서부에 약 350개의 정착지를 세웠으며 솔트레이크시티를 건설했다. 성도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예언했던 것처럼 록키 산맥의 중앙에서 강건한 백성들이 되었다.

브리검 영은 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정착하기를 바라시는 곳을 보았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는 프라이팬 밖의 불 속으로 내던져졌고 가장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게 될 곳은 이곳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를 세울 것이며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세계 열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지상의 지도자들과 현자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제임스 브라운 자서전, 119~123쪽; 프레스톤 니블리 인용, *Brigham Young: The Man and His Work*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6년], 127~128쪽)

토론

- 선지자 조셉이 놓았던 영적인 기초 위에 브리검은 무엇을 건립했는가? (그는 성도들을 서부로 인도하여 그 지역으로 주민을 이주시켰고, 그곳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다.)

- 어떤 원리가 브리검 영과 성도들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이사야 35:1)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는가? (신앙과 일)

브리검 영은 일과 문화, 교육을 권장했음

발표 3 “가정을 일으키고, 농장을 일구며, 행정 체계를 세우면서도 브리검 영은 성도들이 인생의 훌륭한 면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교육, 종교, 미술, 연극, 음악은 사람들의 사회적, 정신적 발전을 촉진시켜 주었다. 성도들은 극장을 건립했으며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음악을 가르쳤다. 개인적인 거처를 건립함과 동시에 각 이민 그룹들은 협력해서 예배당, 학교, 무도회와 연극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공회당을 건립했다.”(밀턴 알 헌터, *Brigham Young the Colonizer*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 출판사, 1940년, 359쪽])

토론

- 브리검 영은 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교육, 연극과 같은 문화적인 일에도 이해를 높이도록 권고했는가? (그는 성도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랑의 귀감이 됨

발표 4 브리검 영이 가족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했던 것은 단지 그의 행정 능력만은 아니었다. 그는 성도들 사이에 한 아버지로서 솔직하고, 친절하며,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성도들과 함께 일하면서 브리검은 나무를 하고 목재를 잘랐으며, 다리를 만들고, 땅을 개간하며 길을 건설했다. 서부로 이동할 때 그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밤에는 가장 늦게까지 자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살피기 위해 항상 주위를 돌아보곤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는 꾸짖으면서 사랑과 감화를 주었고, 요구하면서 주고, 앞장서 지도하면서 따랐다. 그는 박해로 피로해진 성도들을 용기와 익살로 대하여 봉사하면서 시련을 헤치며 나아갔다. (“브리검 영”, *교회 회장* [종교 345, 학생 교재], 1979년, 61쪽)

토론

- 브리검 영의 어떤 성품이 성도들로부터 더 깊은 사랑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는가? (성도들 가까이에서 가까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인내심 있는 지도자

발표 5 “브리검 영은 33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교회 회장으로서 성도들을 인도했다. 그는 일의 신성함과 결과를 알았다. 조셉이 놓았던 기초에서 브리검 영은 온 세상을 시온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왕국을 건설해 나갔다.”(*교회 회장* [종교 345, 학생 교재], 61쪽)

토론

- 브리검 영의 성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기꺼이 추진해 나가는 것)

주님은 브리검 영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심

성구 토론
 회원들에게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펴게 한다. 주님께서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라반이 가지고 있는 낫쇠판을 가져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라고 명하셨다는 이 성구의 배경을 복습한다.

반원 한 명에게 니파이전서 3장 7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

- 니파이는 왜 가서 주님이 명한대로 행하겠다고 말했는가? (니파이는 주님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니파이처럼 브리검 영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반원들에게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임을 이해시킨다.

초대 손님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허락을 얻었을 경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남성이나 여성을 공과에 초대하여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주님의 도움에 대해 말하게 한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간증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곧바로 칠판 및 토론으로 들어간다.

칠판 및 토론

-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다음과 같은 것들이 칠판에 기록되고 포함되어야 한다. 자신감, 훈련, 신앙심, 봉사, 연민, 자립심, 행복감)

브리검 영은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이 근면하고 의롭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Discourses of Brigham Young*, 존 에이 윗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4년], 235쪽)

간증 및 목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설사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꺼이 행할 때 주님은 그분이 명하신 바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한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반원들에게 의로운 사업을 통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목표를 준다.



출생: 1808년 11월 1일 **회장 재임 기간:** 1880~1887년

목적 성신의 속삭임을 따랐던 존 테일러의 모범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키우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들이 신약전서를 지참하게한다.
 2. 교재의 끝에 있는 존 테일러 그림을 게시할 준비를 한다.
 3. 실물 공과에서 눈가리개로 사용할 수 있는 스카프나 천 조각을 가져 온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토론

다음 세 질문을 활용하여 존 테일러의 어린 시절에 대한 토의를 이끌어 낸다.

-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꿈이나 느낌, 또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 그에 관해 무엇을 했는가?
- 그 생각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질문에 대해 토의를 한 후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수도 있다.) 존 테일러에 대한 다음 자료로 들어간다.

그림

존 테일러의 그림을 게시한다.

영적인 소년 존 테일러

전기 및 토론

존 테일러는 1808년 11월 1일 영국 웨스트 모어랜드 밀스로프에서 열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정은 부유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굳게 단합되어 있었고, 종교적이었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다. 존은 가족 농장에서 일을 했으며, 후에 여러 용도로 나무를 가공하는 녹로공이 되었다.

존은 유아 시절에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의 모태 신앙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그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시현을 통해 그는 입에 나팔을 불며 열방에 말씀을 전하는 하늘 천사를 보았다. 그는 이 시현의 뜻을 나중에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비 에이치 로버츠, *The Life of John Taylor*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3년], 28쪽)

존 테일러는 영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예입된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는 십대 소년이었을 때 감리 교회에 가입했었다. “어느 날 지역 전도사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가고 있던 중 그는 한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야만 한다는 강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폴 토마스 스미스, “존 테일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레오나르드 제이 애링턴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6년], 77쪽)

1832년에 그에게는 미국으로 이민가게 될 길이 열렸다. 대양을 건너는 동안 그가 탄 배는 심한 폭풍을 만나 선장과 선원들은 어느 때 배가 침몰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존 테일러는 동요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영의 음성이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미국에 가야만 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의 음성이 나의 운명에 관한 것임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한밤 중에 배 갑판에서 미친 듯이 격노하는 폭풍우 속에서도 마치 집의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미국에 도착하여 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로버츠, *The Life of John Taylor*, 29쪽)

토론

- 주님은 존 테일러가 장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이것과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 존 테일러가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에 따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 존 테일러처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존 테일러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랐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주님의 인도를 믿었던 존 테일러

실물 공과 및 토론

반원 한 명의 눈을 가린 다음 의자들과 근처에 있는 다른 반원들 사이를 지나 해의 왕국을 나타내는 특정 지점까지 인도할 다른 반원을 선택하게 한다. 선택된 “인도자”가 눈을 가린 반원에게 지시할 때 다른 반원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지시해야 한다.(이것을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유의한다!) 반원이 목표 지점(상징적인 해의 왕국)에 도착한 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실물 공과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 (눈을 가렸던 반원에게 묻는다.) 자신의 인도자로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우리의 목표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이 실물 공과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반원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부탁한다.)

존 테일러는 진리를 찾는 일에서 큰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설명한 다음 존 테일러에 대한 다음 경험을 말해 주거나 읽어 준다.

이야기 및 토론

존 테일러는 1832년에 영국을 떠나 뉴욕 주로 이민을 간 몇 개월 후부터 북부 캐나다로 가서 그곳 감리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다. 그곳 청중 가운데는 존이 후에 결혼하게 된 레오노라 캐논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존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교회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느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기술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경전을 탐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어떤 교리들은 감리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며, 어떤 종파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만일 성경이 참된 것이라면 근대 그리스도 교회는 거짓된 것이고, 만일 근대 그리스도 교회가 참된 것이라면 성경이 거짓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우리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상 어디엔가 복음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사람이나 성직자들을 갖고 계시다면 그가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Journal of Discourses* 23:30)

- 존 테일러는 진리를 탐구할 때 어떻게 그의 신앙을 나타냈는가?(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 왜 존 테일러는 기도하고 금식했는가?(그는 진리를 전하기에 합당한 성직자를 원했다.)

주님은 팔리 피 프랫을 캐나다에 선교사로 보내셨으며, 이로써 존 테일러가 드린 신앙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은 존 테일러

- 여러분은 돈 없이 기꺼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가?(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재정적인 보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존 테일러는 거의 아무런 돈이 없이 그의 사업을 수행했다.)

존 테일러의 생애에서 나타난 경험을 통해 그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펴 본다.(여러분의 말로 다시 이야기해 준다.)

교회에 들어온 후, 존 테일러는 캐나다에서 오하이오 주의 커틀랜드로 그의 가족을 데려왔다. 후에 그는 미주리 주로 갔고, 미주리 주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절에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는 간신히 가족을 성도들의 새로운 집합지인 일리노이 주 나부에 정착시켰으며, 그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졌다. 존 테일러의 동반자는 윌포드 우드럽이었다. “지갑이나 전대 없이”, 돈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존 테일러는 그의 돈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로버츠, *The Life of John Taylor*, 71쪽) 영국으로 떠나기 전 뉴욕에 도착한 그에게는 겨우 1페니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궁색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누가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물으면 그는 “돈을 풍족하게”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어느 날 팔리 피 프랫 장로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다. “테일러 형제님, 형제님은 돈을 풍족하게 갖고 있다면서요?” “네, 프렛 형제님, 사실입니다.” 프렛 장로는 그의 “경고의 음성”과 시집 하나를 재출판했기 때문에 돈이 몹시 아쉬울 때였다. “그렇다면 저에게 한 이삼백 달러만 빌려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는데요.” “그리고말고요. 제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리지요.”라고 테일러 장로는 대답했다.

“그는 곧바로 동전 한 개를 팔리에게 주었다. 이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형제님은 돈이 풍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라고 팔리 장로가 말했다.

테일러 장로는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잘 입고,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이 있고 또 거기에다 1페니가 남았으며, 내가 아무 것도 빚진 것이 없으니 어찌 풍족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The Life of John Taylor*, 72~73쪽)

토론

- 선교사들은 그들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존 테일러 시대에 살았고, 돈이 없었을 때 외국 선교부로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연구 문제

-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반원들에게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에 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여러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음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앙)

존 테일러는 영국에 도착한 후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교회에 들어오기 여러 해 전에 보았던 나팔 부는 천사의 시현에 관해 간증했다. 그 시현은 성취되었다.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왔고, 복음은 회복되었다.(요한계시록 14:6~7 참조) 존 테일러의 노력을 통해 그의 고국인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는 영의 인도와 속삭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함

칠판 토론

- 오늘날 교회에서 존 테일러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 요구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칠판에 대답을 적는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십일조와 헌물을 바침, 선교 사업을 나감, 활동이 저조한 회원을 도와서 활동화시킴, 가정 복음 교육)
-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키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희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전거나 차, 또는 유행하는 옷과 같은 소유물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은 선교 사업을 위해 친구를 포기하거나 학교를 연기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분의 시간이나 수입을 바칠 수도 있다.)

성구 토론

반원들에게 야고보서 2장 20절을 읽게 한다.

-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
- 존 테일러는 그 성구를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주님은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서 존 테일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위해 희생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

존 테일러 회장에 대한 다음 글을 읽어주면서 공과를 마친다.

“오래지 않아 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맞서는 세력을 이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정력, 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주위 환경에 자신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고 이끄시며 가르쳐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0년], 479쪽)

간증 및 목표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간증한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를 때 주님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준다.

존 테일러- 신앙의 수호자

제 13과

목적	반원들이 존 테일러의 생애를 공부함으로써 회복된 복음의 표준을 수호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굳은 결심을 하게 한다.
----	---

준비사항	1. 공과 끝에 있는 숲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소나무 한 그루 그림을 반원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한다. 2. 반원들이 교리와 성약과 신약전서를 지참하게 한다. 3. 각 반원에게 “좋은 재목”(공과 끝 참조)이란 시의 사본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및 시	반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진 시 하나를 읽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숲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소나무 그림을 보여준다. 반원들에게 나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경청하게 한다. (이 공과 끝에 나오는 시 “좋은 재목”을 사본으로 만들어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읽게 한다.)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반원들이 그 시에서 받은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짙막한 토의를 인도한다. 역경을 극복할 때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역경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시간과 상태이다.)• 그 시에서는 어떤 상태가 나무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는가? (태양, 하늘, 공기, 빛, 강한 바람과의 투쟁) <p>오늘 여러분은 역경이 어떻게 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성품을 형성하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존 테일러의 생애에서 세 가지 일화를 공부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면제받고 싶어했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가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청한다. (각 이야기를 읽어 주거나 요약해서 말해 준다.)</p>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옹호한 존 테일러

이야기 및 토론	1836년에 교회에 가입한 존 테일러는 1837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방문했다. 이때는 한 때 교회의 강력한 지지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반기를 들어 그가 커틀랜드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때였다. 선지자는 존 테일러를 대제사로 성임하였으며 그에게 캐나다 교회의 지부들을 책임지게 하였다. 이후 커틀랜드 성전 모임에서 선지자가 없었을 때 배도한 자들 중 한 사람이 선지자의 인격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그 모임이 끝날 무렵, 테일러 장로는 발언권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이 허락되자 그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 언급했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	---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예지와 율법의 지식과 하나님 왕국의 계시와 교리를 얻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교리의 첫째 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까? 기독교 세계에서는 누가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예지로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왕국의 신비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 밑에서 첫 번째 원리를 발전시킨 자는 바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더 많은 지시를 구해야만 합니다.”(비 에이치 로버츠, *The Life of John Taylor*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3년], 40~41쪽)

토론

-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존 테일러의 특성은 무엇인가? (철판에 답변을 적는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며 충성, 용기, 용감성, 간증의 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토의한 후 다음 일화를 읽어주거나 말해준다. 반원들에게 신앙을 수호했던 존 테일러의 용기에 다시 주목하게 한다.

타르칠에 깃털을 꽂는 위협을 저지시킨 존 테일러

이야기 및 토론

“오하이오 주 컬럼버스 근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존 테일러 장로가 말썽하는 것을 듣기 위해 모였다. 테일러 장로는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지방의 교회 회원들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타르와 깃털을 갖고 있으며, 만일 그가 설교를 한다면 그에게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꽂겠다고 떠벌리는 경고를 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로버트, *The Life of John Taylor*, 53쪽) 용감한 테일러 장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테일러 장로는 그 날 설교에서 인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인 자신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쓰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권리, 즉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신성한 권리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싸워서 얻은 것임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의 종교 때문에 저에게 타르칠을 하고 깃털을 꽂으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선조들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이것입니까? 그들의 값진 피의 대가로 얻은 축복이 이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는 지금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속옷을 열어 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타르와 깃털을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제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존 테일러는 그 상황의 주인공으로서 주변을 압도하여 평온하지만 담대하게 서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말씀을 계속했으며 약 세 시간 동안 대답하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 모임 후 그에게 타르칠을 하고 깃털을 꽂자는 군중들의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테일러 장로의 담대함에 놀려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로버츠, *The Life of John Taylor*, 54~55쪽)

토론

- 여러분은 왜 군중들이 존 테일러를 해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존 테일러에게는 그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지할 용기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배도의 바람이 몰아쳤을 때 그는 그것에 견딜 수 있는 깊은 간증의 뿌리를 갖고 있었다.)

핍박의 시기에 교회 회원들을 강화한 존 테일러

다음 사건은 후기 성도들에게 지극히 위급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1854년에 존 테일러에게는 뉴욕으로 가서 신문을 제작하여 간행하라는 특별한 부름이 브리검 영으로부터 주어졌다. 그 일의 목적은 일 년

이상 누적되어 왔던 반몰몬들의 생각을 순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회의 원리와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밖의 형제들도 다른 중요한 도시인 워싱턴 디시,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에서 후기 성도 신문을 제작하고 간행했다.”(프랜시스 엠, 기본스, *John Taylor: Mormon Philosopher, Prophet of God*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5년], 138쪽) 테일러 장로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거기에서 1857년까지 있었다.

이 시기는 워싱턴 디시에 있는 미합중국 정부가 유타 주로 군대를 보냈던 위기의 시절이었다. 군대는 반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평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뉴욕에서 테일러 장로는 몰몬들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몇몇 정부의 힘에 대항하여 몰몬 백성들을 수호하였다. 그는 교회를 적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였다. “몰몬이즘이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이며, 이론상의 근거도 희박하고 유타 주의 애국심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덜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밝히십시오. 우리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조사를 받는다 해도 조금도 꺼릴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주장을 옹호해 보십시오.”(비 에이치 로버츠,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4:63)

교회와 복수 결혼에 대한 공공의 반응과 입법 조치 결과로 많은 교회 회원들이 투옥되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투옥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겼다. 존 테일러는 1880년 교회 회장이 된 후 그의 보좌인 조지 큐 캐넌과 조셉 에프 스미스와 함께 몸을 숨기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존 테일러처럼 우리도 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함

존 테일러는 용기있는 생활과 오랫동안 복음 원리를 수호하고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했던 명성 덕분에 ‘신앙의 수호자’, ‘자유의 투사’로 알려지게 되었다.(에머슨 로이 웨스트, *Profiles of the Presidents*, 개정판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0년], 90쪽) 그의 용기와 충실함에서 우리는 신앙의 수호자가 되고 의로움의 투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그룹 활동 및 토론

반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복음 원리를 수호하는 방법들을 말하게 한다.(교사는 지역의 특별한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적당한 상황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황 1: 한 무리의 십대 청소년들이 친구 집에서 비디오를 보기 위해 모였다. 모든 사람들은 한 친구가 음란 테이프와 폭력이 난무하는 테이프를 트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상황 2: 역사 시간에 교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몰몬에 관한 복수 결혼에 대해 모욕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상황 3: 밀폐된 방에서 교회 회원인 여러분의 한 친구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불쾌하고 당황하게 하는 외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의 상황들을 토론하도록 시간을 준 후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그랜트 벵거터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 준다.

“이제 저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과 관용과 존경심으로 대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교리와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에 관해서 우호적인 태도로 파스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변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와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그것은 쌍방 통행로입니다”, *성도의 벗*, 1987년 3월호, 39쪽)

간증 및 성구

교회와 그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증하고 다음 두 성구를 읽어 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올 수 있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로마서 1:16 및 교리와 성약 14:7)

토론

-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위대한 은사인 구원과 영생)

간증 및 목표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으로 공과를 마친다. 각 반원에게 역경이나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목표를 준다. 진리는 언제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좋은 재목

태양과 하늘과 공기와 빛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었고
드넓은 평원에 서 있어
목마름을 모르고 지냈던 나무는
숲속의 제약은 되지 못하였으니
그저 살다가 잡목으로 죽어갔네

땅을 얻어 경작하고자
땀 흘릴 필요가 없었고,
태양과 하늘과 빛과 공기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던 사람은
군센 사람이 될 수 없었으니
그저 살다가 평범하게 죽어갔네

좋은 재목은 쉽게 자라지 않네
바람이 매서울수록 나무는 강해지고
하늘이 높을수록 힘은 더 세어지니
태양과 추위, 비와 눈으로
나무든 사람이든 좋은 재목은 성장하네

질게 우거진 숲속에서야 우리는 가장 큰 재목을 찾을 수 있네
그들은 별들과 대화하니
이들의 잘라진 가지는 오랜 풍파와
술한 투쟁의 상처
이것은 평범한 자연의 법칙이네

(스털링 더블류 실, *Making the Most of Yourself*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1년], 23쪽에서 인용)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토론

여러분은 초등학교 노래인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어린이 노래책, 91쪽)을 불렀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점차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모든 합당한 청년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요청 받는다. 그들의 자녀를 모두 양육시킨 노부부들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청년들도 만일 그들이 합당하고 봉사하려는 소망을 갖고 있을 경우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Conference Report, 1959년 4월 6일, 122쪽)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19세 이상 된 모든 회원을 뜻했는가? 그가 뜻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반원들에게 대답하게 한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부름은 교회 회장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전 생애를 통해 선교사가 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포스터 또는 칠판

첫 번째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칠판에 쓴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함양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했다. “1.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 2. 준비하는 인내, 3. 기꺼이 일함” (*Be Your Best Self*,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59쪽)

첫째, 선교사는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함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교리와 성약 64:34) 교리와 성약 4편 2절은 선교사들에게 주는 지시이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 왜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요구 사항인가?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성구

반원 한 명에게 모사이야서 28장 3, 5절을 읽게 한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위대한 소망을 가졌었다! 그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강박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감동을 받아 개종했으며 침례를 받았다.

젊은 시절 엘마도 위대한 소망을 가졌었다.

반원 한 명에게 엘마서 29장 1절을 읽게 한다.

엘마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엘마서 29:3)

- 여러분은 주님이 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는 대신 인간들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대답을 허용하되 반원들에게 인간이 만일 마지막 심판 후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끈다.) 인간이 항상 천사에 의해 가르침 받아야 한다면 그들은 신앙을 발전시킬 수 없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내려와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을 위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됩니다. 여러분은 경전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행하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사는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지시했으며, 그것을 행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186쪽)

여러분은 아마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왕국을 포기한 청년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가치 있는 직장, 가족, 그리고 학문과 스포츠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장학금을 포기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들 중 몇몇 사람은 참으로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몬슨 장로가 말씀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소망을 함양해 온 사람도 있다.

이야기

톰은 두 가지 큰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보다 앞서 그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 사업을 위해 전 생애 동안 계획을 해왔다.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한편 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부의 유능한 수비수로서 그 지역의 우수한 대학에 스카우트되고, 이어서 프로 축구로 갈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원했다. 그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가 꿈꾸어 오던 대학에서 경기를 해달라고 요청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는가! 적어도 그가 몰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심사 담당 코치가 “당신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선교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아님니까?라고 물을 때까지는 말이다. 그에게 어떤 소망이 더 큰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때는 바로 그때였다. 코치에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코치의 관심은 끝이 나고 말았다. 톰은 후에 종종 그가 만일 장학금을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톰은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유익으로 가득찬 그의 생활 때문에 선교사로 나갔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사실 축구는 그가 진정한 통찰력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 중요한 것은 못되었다.

이야기

1950년 초기에 열병에 걸린 모든 자녀는 부모들의 마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제발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어떤 소아마비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매우 극소수의 환자들만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1954년 백신이 개발되기 6개월 전에 14개월 된 데비는 일종의 소아마비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 병이 그녀를 심각한 불구자로 만들기는 했지만 데비와 부모님은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다. 데비는 아름다웠지만 첫해에는 특히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스물 두 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다.

7학년이 될 때까지 데비는 대부분의 학교 수업을 수술 기간 사이에 그 지역 학교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받았다. 그녀는 목발에 의지하면서도 그것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고 학교와 교회에서도 잘 어울렸다. 데비는 재치가 많았으며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주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파티와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켰으며 그것을 활용하였다.

데비의 부모는 그녀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가능한 한 자립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뜻했다. 사실 데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을 마쳤다.

대학을 졸업한 후 데비는 걸어서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망만을 꿈꾸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걷고 안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위대한 소망은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데비는 선교사로 나갔으며 보통의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선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깊은 소망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밝은 모습을 갖게 해 주었다.

셋째,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함

- 만일 오늘이 시험날이고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가 시험지를 나누어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두렵고, 당황하며, 부끄러운 느낌) 여러분이 만일 약기를 들고 연주하거나, 낭독이나 독창을 불러야 할 경우, 전에 연습하지 않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하겠는가?

주님은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은 하려고 하는 일에 흥분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은 준비되고 열망을 가져야 한다.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느낌도 같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가고 싶은 것이며, 준비되지 않았을 때 두려워할 것이다.

토론

다음 각 문항들을 반원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짧은 시간 동안 토론한다.

1. **공부:** 우리가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교리와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
2. **기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을 받을 수 있으며 진리를 알 수 있다.
3. **봉사:** 봉사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된다.
4. **세미나리, 주일 학교, 신권회, 청년 공과에 참석함:** 이런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배우고 발전하게 된다.
5. **의로운 생활:** 계명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다.
6. **금전 관리:** 저축은 선교사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건강과 영양 섭취:**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양 관리를 배우고 따르며 운동을 함으로써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체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우리는 기꺼이 일하는 마음을 함양해야 함

위의 일곱 가지(공부, 기도, 봉사 등)는 물질적이거나 영적, 또는 지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것들이 함께 조화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실제로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성구 토론

반원 한 명에게 교리와 성약 58편 26~29절을 읽게 한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 그것은 선교사로서 하는 여러분의 봉사가 단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기꺼이 행해야 한다.)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선교사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함

토론

- 아직 선지자로부터 공식적인 부름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이런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가장 열성적인 구도자들 및 개종자들은 복음을 통한 유익과 기쁨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던 훌륭한 후기 성도들과 친분을 맺어 왔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회원들의 훌륭한 생활을 본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회원들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 여러분이 만일 어떤 종교나 생활 방법을 찾고자 할 때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면을 보겠는가? (대답에는 친절, 겸손,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모범, 선함, 기쁨, 용기, 믿음, 사려 깊음, 좋은 습관, 행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볼 경우 이런 성품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포스터 또는 칠판

몬슨 장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해 다시 몇 가지 좋은 권고를 하였다.

두 번째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그 내용을 칠판에 쓴다. “첫째, 진리로 마음을 채운다, 둘째, 봉사로 인생을 채운다, 셋째,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다.”(토마스 에스 몬슨, *Be Your Best Self*, 68쪽)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음

우리는 이미 교회 회원이 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왜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단지 비회원 친구들에게만 기울이고 비활동인 회원들의 요구에는 게을리 하는가? 그들도 역시 복음을 통한 축복이 필요하다.

이야기

문수와 경태는 좋은 친구였었지만 경태는 어렸을 때 세상적인 몇몇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문수도 그들을 따라 행동하거나 경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를 떠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태야, 나는 네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래.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친구였잖아, 하지만 네가 담배를 피울 때 나는 괴로움을 느끼곤 해.” 그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행동했다.(에베소서 6:20 참조) 경태는 문수의 사랑에 찬 권고로 인해 그의 습관을 바꾸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주님은 그것이 비회원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주일학교 공과나 종교 교육원 중등부 시간에 참여한 영혼도 여러분이 대양을 건너 구원하려 간 사람들의 영혼만큼 주님께는 값진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영혼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일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축복된 상태에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강화시킬 수 없다.

간증 및 목표

복음은 값진 은사이고 우리의 의무이며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할 특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 생애를 통해 선교사가 되기를 요청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함양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를 보이고, 기도, 경전 공부, 합당한 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문슨 장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진리로, 생활을 봉사로,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을 합당하고, 유용하며, 행복하다고 인식하여 그들이 복음을 따르며 우리와 같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선교 사업을 하라는 계명의 중요성과 아울러 만일 반원들이 그 계명에 따라 생활할 경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영향력에 대해 간증한다.

월포드 우드럽- 충실하고 진실함

제 15 과

출생: 1807년 3월 1일 회장 재임 기간: 1889~1898년

목적 반원들이 복음을 알았던 첫 순간부터 충실하게 봉사했던 월포드 우드럽의 모범을 따르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월포드 우드럽의 그림을 게시할 준비를 한다.
 2. 중앙에 '나' 라는 단어가 쓰여진 작은 사진들을 준비한다.
 3. 낱말 띠 두 개를 만든다.

월포드 우드럽—충실하고 진실함

—————충실하고 진실함

4. 반원들에게 창문 밖에서 교실 문 밖까지 늘어뜨리게 될 긴 끈 조각이나 실 하나를 가져오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월포드 우드럽의 그림을 게시한다. 그가 4대 교회 회장이었음을 설명한다.

시범 및 토론

월포드 우드럽은 이 생이 짧지만 영생에 이르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다. 끈을 길게 늘어뜨려 방을 가로지르게 한 다음, 한쪽 끝은 문 안으로, 그리고 다른 쪽 끝은 창문 밖으로 나오게 한다. 만일 창문이 없다면 끈을 벽의 모서리까지 잡아당긴다.

끈은 영원을 나타내며 그것은 양쪽 끝에서 한없이 연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방은 이 생을 위해 고안된 시간과 공간이라고 상상한다.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이 방에 의해 나타나는 인생의 작은 부분인 필멸의 세계는 별로 긴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필멸의 세계는 우리가 영원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

전 생애 동안 충실히 봉사한 월포드 우드럽

앞날을 명백하게 보았던 월포드 우드럽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필멸의 상태에서 한 그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순히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상을 원했다.

이런 이해를 갖고 그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 본다.

첫째, 그는 선교사였다. 그는 전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히 15년 동안 복음 선교사로서 봉사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이 개종자들의 가족들까지 헤아려 본다면 그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늘어날 수 있겠는가!

히버 제이 그랜트는 월포드 우드럽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지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많이 인도했던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Gospel Standards*, 지 호머 더햄 편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9년], 20쪽)

어떤 반원들은 아마 우드럽 회장의 선교 사업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중 여러 사람은 아마 월포드 우드럽의 경우처럼 수천 명의 진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다.

그가 것처럼 성공한 것을 보면 월포드 우드럽의 선교 사업은 쉬웠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는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들려 준다.

미주리 주 남부에서 월포드 우드럽과 그의 동반자는 온종일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걸었다. 그들이 찾아갔던 마을에는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먹을 것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밤을 지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 아래로 또다시 19킬로미터를 더 걸어야만 했다.

월포드는 그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뿡 한 조각도 주려고 하지 않던 그 사악한 목사는 길을 속여서 우리에게 늪을 건너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꼬불꼬불한 강을 따라 무릎까지 올라오는 진흙 물 속에서 밤 10시까지 허우적거리며 걸어야 했다. 우리는 늪을 지나 밤새도록 풀이 덮인 초원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늪에서 나왔을 때 인디언이 깡통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매우 어두웠지만 우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따라 가서 인디언 진영에 가까이 갔을 때 많은 큰 인디언 개들이 몰려 와 우리 냄새를 맡았으나 쫓거나 물지는 않았다. 곧 오세이지 인디언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왔으며, 제투씨와 인디언인 그의 아내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훌륭한 저녁과 좋은 잠자리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날 피로가 가신 후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나는 베게를 베고 누워 문명화된 목사로부터 야만적인 대접을 받은 후 미개인인 오세이지 인디언의 자비롭고 친절하며 관대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적에 따라 보답을 주실 것이다!”(마티아스 에프 카우리,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8년], 48쪽)

그는 순종심이 강하고 겸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를 “충실한 월포드”라고 불렀다.(프레스톤 니블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01쪽)

날말 띠

월포드 우드럽의 그림 밑에 “월포드 우드럽-충실하고 진실함”이란 날말 띠를 게시한다.

우드럽 회장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다음은 그의 일지에서 발췌한 기사이다.

어느 날 월포드 우드럽은 길에서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월포드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다. 월포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여러 해 전 영국의 헤리포드셔어에서 이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의 손을 얹고 축복할 때까지 한 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는 병어리였으며 그는 그 이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Wilford Woodruff*, 지 호머 더햄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314쪽)

우드럽 회장은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신앙이 강하고 시현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신앙을 통해 교회와 그의 성도들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시를 받고 시현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천사와 세상을 떠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의 방문을 받았다. 어느 날 꿈에서 브리검 영은 우드럽 장로에게 “솔트레이크 성전의 열쇠를 건네주며, 가서 주님께 그 성전을 헌납하라고 말했다.”(카울리, *Wilford Woodruff*, 582쪽) 그 일은 나중에 우드럽 회장이 이 성전을 실제로 헌납함으로써 성취되었다.

윌포드 우드럽은 또한 미합중국의 독립 선언문과 헌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의 방문도 받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벤자민 프랭크린과 조지 워싱턴같은 사람들의 성전 의식을 해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카울리, 586쪽 참조)

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우드럽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을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를 소집해서 20명의 젊은 인디언들을 불러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에서 교육시켜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시키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의 마음은 인디언의 선교 사업에 가있었다. 그는 그 백성들의 위대한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고 있었다.”(카울리, 540쪽)

미국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은 우드럽 회장과 교회 제일회장단에게 그와 병든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벤자민 해리슨의 부인이 죽었을 때에 우드럽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마치 우리 자신의 일처럼 슬펍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깊이 조의를 보내며 우리 모두의 운명을 손안에 쥐고 있는 하나님에게 대통령께서 이 엄청난 시련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과 위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카울리, 580쪽)

그는 근면한 사람이었다. 그의 일지를 읽으면 윌포드 우드럽이 얼마나 손수 일하기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손자와 옥수수 밭을 간 후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술했다. “내 평생에서 나의 자녀 중 어느 누가 옥수수 밭을 갈거나 그 밖의 다른 손으로 하는 일에서 나보다 낫게 한 일은 이때가 처음이었다.”(카울리, 564쪽) 이때에 그는 여든두 살이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다. 육체와 개인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순종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그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랐다.”(카울리, 534쪽)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줄이는 나이가 되어서도 우드럽 회장은 산중에 있는 정착민들과 작은 부락들을 방문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1일 동안 그러한 곳에 머물렀다. “눈보라가 심히 몰아치는 가운데 나는 목자의 천막 바닥에 침상을 만들며 생활했다. 나는 하루에 두 번 빵과 고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다. 나는 눈을 녹인 찬 물을 마셨으며 최상의 건강을 유지했다. 또한 찬 북풍이 나의 뺨을 때릴 때에도 하루에 여덟 시간에서 열 시간까지 말 안장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 나는 곧 일흔세 살이 될 것이다.”(카울리, 531쪽)

한번은 감리 감독이던 에드워드 헌터 감독이 윌포드 우드럽이 교회 회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었다. 우드럽 회장은 “그를 힐책했다. 그는 스스로 어떤 명예도 구하지 않았다.”(카울리, 560~561쪽)

그는 위대한 역사가였다. 그의 위대한 선교 사업 이외에도 그가 기록한 역사 기록은 교회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일지는 칠천 쪽 이상 되는 분량을 자랑한다.(카울리, 600쪽 참조)

여러분도 월포드 우드럽처럼 될 수 있다

반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준다. 여러분도 월포드 우드럽처럼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여러분들은 개종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며 훌륭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충실한 남성과 여성이 될 수 있다.

사진

월포드 우드럽 사진 옆에 나라는 단어가 적힌 사진틀을 게시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사진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월포드 우드럽과 같은 축복을 받는 특권을 얻을 것이다. 동정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 할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다.

낱말 띠

사진틀 밑에 “_____—충실하고 진실함”이란 낱말 띠를 부착한다.

사진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한다.(그들의 이름을 말한다. “성희-충실하고 진실함, 영수-충실하고 진실함” 각자에게 교사의 신뢰를 나타내 보인다.)

비디오카세트
또는 읽기

가능하다면, 비디오의 제1편 월포드 우드럽의 간증(38초)을 보여준다. 가능하지 않다면, 다음에 나오는 월포드 우드럽의 간증을 읽는다.

월포드 우드럽의 간증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만일 그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전 인류를 다스리게 된다면 남녀노소 모두 각자 자기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지닌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교회와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임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1844년 이른 봄, 나부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십이사도를 부르고 그들에게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의식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했던 열쇠와 모든 권능을 넘겨 주고 우리의 머리 위에 인봉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 왕국을 지켜 나가야만 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직접 그러한 간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는 이 왕국에 대하여 세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티 하나 없이 맑은 표정이었으며 제가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후기 성도들이 받는 엔다우먼트를 집행할 권세를 가진 분이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의 지시와 손으로 저의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이 엔다우먼트가 참된 원리에 근거를 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브리검 영, 히버 시 김볼, 윌라드 리차즈, 조지 에이 스미스, 존 테일러와 그 외 형제들도 선지자 조셉의 지시와 손으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의 아내와 페베, 밧세바 스미스, 레오노라 테일러, 메리 스미스, 그 외 제가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으니 그분은 순교자로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면전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간증하는 동안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91세가 되는 1897년 3월 19일, 제 자신의 녹음기에 녹음해 둔 저의 간증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간증 및 목표

반원에게 간증을 하고 그들에게도 평생 동안 선교사가 되도록 권고한다. 반원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과 “준비를 위한 인내”를 갖고, “기꺼이 일”하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제14과 참조)

목적 사탄이 실재하며 의로움과 용기로 사탄과 맞서 이길 수 있음을 반원들이 배울 수 있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들이 표준 경전을 지참하게 한다.
 2. 공과를 하기 오래 전에 관련된 모든 성구를 읽는다. 제언된 성구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윌포드 우드럽이 기록한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구원은 곧 현세의 모든 적과 내세의 모든 악령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막(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악마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는 불법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쫓겨났는데 그 때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큰 형벌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성막을 허락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루시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목적으로 파멸시킬 대상을 찾아 지구를 맴돌고 있습니다.”(마티아스 에프 카울리,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4년], 174~176쪽)

토론 사탄이 현대인들, 특히 청소년들을 공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교사는 반원들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한 것들을 첨가할 수 있다.)

1. 약물 남용
2. 술
3. 부도덕
4. 자살
5. 무분별한 운전
6. 전쟁
7. 기근
8. 어린이 학대
9. 낙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십이사도 보조였던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는 우리에게 “사탄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범법자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힘을 쓸 수 있을 뿐이며, 성신이 우리의 내부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사탄을 이기는 권능”, *성도의 벗*, 1975년 5월호, 45쪽)

주님께서 월포드 우드럽을 보호하셨음

우드럽 장로는 독에 의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다가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신에 독이 퍼졌고, 그는 곧 죽을 것만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브리검 영 회장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드럽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그대는 죽지 않으리라. 그대는 지상에서 그대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살게 되리라. 적이 그대의 생명을 여러 번 노렸지만 주님께서 그대를 지켜주셨으며 그대의 일이 끝나는 날까지 그대를 보호하여 주시리라.”(카올리, *Wilford Woodruff*, 368쪽)

월포드 우드럽이 특별히 의로움에 뛰어난 종임을 알고 사탄은 그의 육신을 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우드럽 회장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다음을 읽는다.

“월포드 우드럽은 일찍부터 주님의 권능을 마음속 깊이 믿어 왔습니다.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많은 고초와 역경을 지나 왔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살 때 끓는 물이 담긴 솥에 빠진 적이 있었고, 그의 집 창고의 대들보에 올라갔다가 거꾸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양팔이 부러졌었습니다. 그는 황소의 뿔에 받힐 뻔했다가 겨우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황소의 뒷발로 배를 차인 적도 있습니다. 건초를 잔뜩 실은 마차가 전복하는 바람에 건초 더미 속에 파묻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노란 말이 끄는 마차에 타고 있을 때 마차가 전복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5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등을 대고 떨어진 적도 있었으며, 9미터나 되는 강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하려고 흙이 파진 사과 나무 속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어 가다가 행인의 눈에 띄어 동사 직전에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왼쪽 발등이 도끼에 찍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또 공수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달아나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양쪽 관절이 상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가 20세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후에도 그는 물레방아 꼭대기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서 위험 직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놀라 달아나는 말에 질질 끌려 다닌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실수로 그의 가슴에 겨냥되어 당겨진 총이 불발되어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가슴을 치는 바람에 가슴뼈와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지고 왼쪽 정강이와 둔부와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월포드 우드럽: 신앙과 열정의 인간”, 레온 알 하트슨, *성도의 빛*, 1972년 11월호, 40쪽 참조)

토론

반원들에게 월포드 우드럽이 시련을 겪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마음속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 질문을 한다.(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반원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 이러한 이슬이슬한 사건들은 어떻게 월포드 우드럽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가?
-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도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 주님의 보호를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 여러분은 월포드 우드럽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과 뜻 속에 어떠한 속성들을 강화시켰다고 생각하는가?

- 사탄은 모든 악과 사고에 책임이 있는가? (순전한 사고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선택이 사고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월포드 우드럽과 같이 모든 일에서 주님께 의지하여 최대한 주님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된다.)

의인은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음

성구 토론

다음 성구들을 읽고 토론한다.

모세서 4:1~3.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갖고자 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다.

모세서 4:4~21.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멀하려 했다. 그는 저주받았으며 의인에게 굴복했다.

모세서 1:12~22. 사탄은 모세를 속이려 했다. 그러나 그는 발각되었고 모세가 지닌 의의 권세에 의해 쫓겨났다. (13~14절은 사탄이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점을 특히 반원들에게 지적한다. 모세는 사탄에게 영광이 없음을 알았고 모세는 육신 그대로 있으면서 사탄을 볼 수 있었다.)

마태복음 4:1~11.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멸시키려 했다. 구주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셨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1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에게 인도되”었다고 나와 있는 것에 주목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15~16. 사탄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조셉의 기도와 신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쫓겨났다.

비록 주어진 모든 예가 선지자와 연관되어 있지만, 사탄은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유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권능을 물리칠 수 있다. 선지자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간증 및 목표

교리와 성약 21편 4~6절을 읽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간증한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면” ...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우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21:4, 6)

사탄은 주님의 사업을 멀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움과 기도, 그리고 신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원들에게 의롭게 살겠다는 목표를 준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한 로렌조 스노우

제 17 과

출생: 1814년 4월 3일 회장 재임 기간: 1898~1901년

목적 로렌조 스노우의 삶을 통하여 반원들이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겠다는 소망을 갖게 한다.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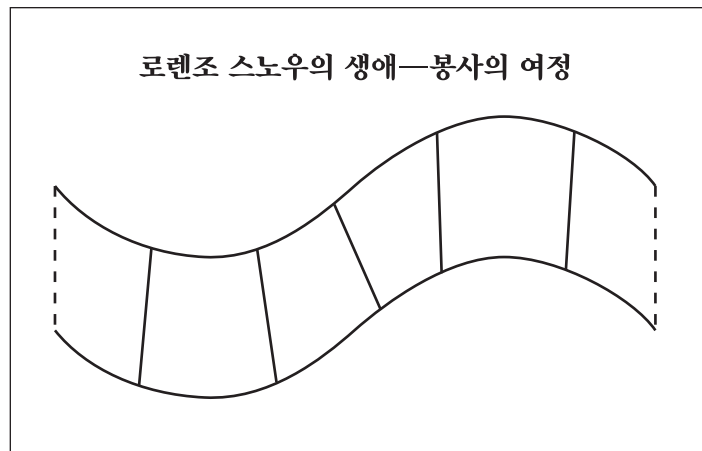
1. 반원들이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지참하게 한다.
2. 교재 끝에 있는 로렌조 스노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공과 시간 전에 칠판에 아래에 있는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봉사의 여정” 그림을 그려둔다.
4. 네 명의 반원을 지명하여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하게 한다. 공과 중에 나와 있는 사건 내용을 미리 복사하여 전해주되, 가능한 한 자신의 말로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5. 본 공과 끝에 있는 군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공과 전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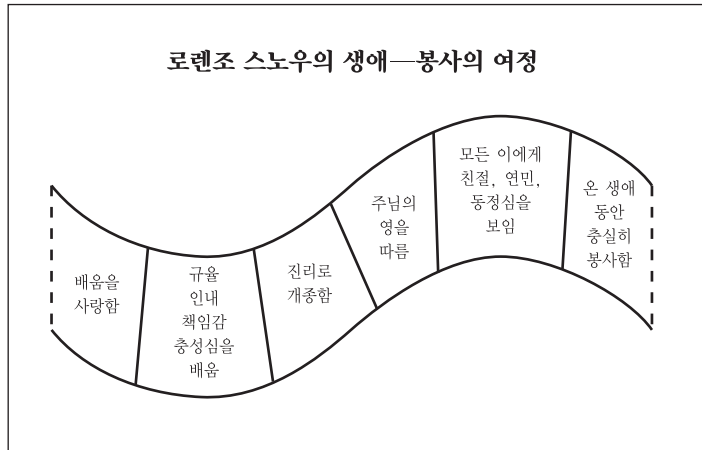
소개

칠판

칠판에 제목과 길만 그린다.(아래의 예 참조) 공과를 진행하면서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빈 칸에 적어 넣는다. 처음 칠판에 그려진 그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공과를 하면서 완성된 칠판 그림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는 제5대 교회 회장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였던 사랑과 봉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림 및 칠판

로렌조 스노우의 그림을 들고 질문한다. 이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오늘 우리는 로렌조 스노우가 생애 동안 걸었던 길을 따라가 볼 것이다.

로렌조 스노우는 어린 시절부터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했음

이야기 및 토론

로렌조 스노우의 초기 시절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 뒤 토론을 위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을 한다.

로렌조 스노우는 1814년 4월 3일 오하이오주 만투아에서 출생했다. 종교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로렌조는 초기 생애에서는 종교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편이었다. 청소년기에 그는 부모로부터 책임감과 동정심, 인내심을 배웠다. 그의 가정은 어떤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책과 배움에 대해 깊이 심취해 있었다.(토마스 시롬니, *The Life of Lorenzo Snow*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릿 출판사, 1955년], 16~18쪽 참조)

칠판

첫째 칸에 '배움을 사랑함'이라고 적는다.

어렸을 때 로렌조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다. 스노우 가문은 대대로 군인들을 그들의 조상 중에 “명망 있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의 번쩍이는 군복과 힘찬(군대) 행진곡은 그를 감동시켰다. 그를 무척 사랑하던 누이 엘리자 알은 그가 군에 입대했다가 전쟁터로 나가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그에게 마음을 바꾸도록 간청했다.”(롬니, *The Life of Lorenzo Snow*, 19쪽) 그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는 로렌조를 위해 군복을 만들었으며, 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그것을 입었다. 그는 군에서 오하이오 주 정부로부터 중위로 임명될 때까지 봉사했다.

그림, 토론 및 칠판

공과 끝에 있는 군인의 그림을 보여준다.

- 로렌조가 소년 시절의 경험과 군대 생활을 통해 얻은 가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정심, 규율, 인내, 책임감, 충성심 등)

둘째 칸에 이러한 답들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적어 넣는다.

커틀랜드로 간 로렌조 스노우

하나님은 우리가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며, 로렌조 스노우에게도 그렇게 해 주셨다. 반원들에게 로렌조 스노우가 간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어떻게 키우게 되었는지 경험하도록 권유한다. (다음의 예를 이야기 식으로 들려준다.)

이야기

로렌조는 오하이오 주 오베들린 소재 오베들린 대학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르쳐진 종교(장로교)에는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1831년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 레오노라가 몰몬이즘을 받아들였고, 누이 엘리자는 1835년에 교회에 개종하여 커틀랜드로 갔다. 그곳에서 엘리자는 조셉 스미스의 “가족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엘리자는 로렌조가 히브리어 공부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선지자 학교(선지자 학교는 형제들의 교육을 위해 조셉 스미스가 설립했다.)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도록 커틀랜드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게 되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린 “축복 모임”의 폐회 시에 로렌조는 교회의 축복사였던 선지자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와 대화하던 중 그 축복사는 “스노우 형제님, 당신은 몰몬이즘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계시군요.”라고 말했다.

“예, 그것이 제가 가진 목표입니다.”라고 로렌조가 대답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이해해 보길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경전들을 대조해 보십시오. 형제님이 사귀고 있는 형제들과 토론해 보십시오. 그러면 형제님은 곧 몰몬이즘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The Life of Lorenzo Snow, 24~25쪽)

토론

- 조셉 스미스 일세가 로렌조에게 한 조언을 듣고 어떻게 느끼는가? (대답을 듣는다.)
- 왜 이것이 훌륭한 조언인가?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마침내 로렌조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1836년에 로렌조 스노우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칠판

- 위에 기술된 로렌조 스노우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나 구는 무엇일까 (개종, 침례, 간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당한 답을 다음 칸에 적는다.

하나님과 인간을 섬긴 로렌조 스노우에게서 볼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헌신

토론

간증을 얻은 로렌조 스노우는 매우 큰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길 원했다.

1837년 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신권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되어 로렌조 스노우는 그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나갔다.

친척에게 복음을 가르친 로렌조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로렌조는 60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그의 아저씨가 사는 이웃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므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주님의 권능과 영감을 간구했다. 그날 저녁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성신이 강하게 내게 임하여 나의 마음을 빛으로 채워 주었으며 적절한 언어로 생각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그는 복음의 회복에 관한 강한 간증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두 번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후에 내 아내가 된 애달린과 사촌들을 침례주고 확인 의식을 베풀었다.”(엘리자 알 스노우 스미스,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사, 1884년], 16쪽)

토론

- 로렌조 스노우의 선교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으며 헌신적이었다.)
- 로렌조가 여기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에 귀 기울이는 것)

칠판

길의 네 번째 칸에 들어갈 단어나 구를 적는다.(주님의 영을 따름, 주님께 귀 기울임, 주님께 의지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로렌조 스노우는 후에 그가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한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영 자매에 대한 동정

1840년 봄, 스노우 장로는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영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도들의 부인 몇 명을 찾아가 그들의 남편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아 가려고 했다. 그는 바닥에는 엉성한 나무 판자가 깔려 있고 통나무로 된 벽은 틈새를 막지 않아서 그대로 바람과 폭풍이 들어치는 오두막집에 살던 브리검 영의 부인을 찾아냈다. 그녀는 전날 어디론가 가버린 젖소를 찾아 헤매다가 허탕을 치고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 소는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제공해 주는 소였다. “내가 그녀에게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그녀는 ‘지금 제 형편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이에게는 저에 대하여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저는 그이가 명예롭게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너무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그녀의 빈곤한 현실은 나에게 깊은 동정심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내가 일할 곳까지 가는 여비의 10분의 1도 채 못 되는 적은 돈을 가졌으며, 또 나머지 돈을 얻을 수 있는 전망도 없었고, 또 그때는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거절했다. 내가 그녀에게 받으라고 열심히 간청하던 중에 받은 고의로, 받은 우연히 돈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져 엉성한 판자 틈 사이로 들어가 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실랑이를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돈은 나중에 그녀가 한가할 때 찾게 하고는 그 집을 떠났다.”(스미스, *Biography and Family Record of Lorenzo Snow*, 47쪽 참조)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렌조 스노우가 여기에서 발전시켰다고 생각되는 품성은 무엇인가? (연민, 동정, 관용, 관심, 우정)
칠판	<p>길의 다섯 번째 칸에 넣을 핵심 단어나 구를 적는다.(친절, 동정, 이웃에 대한 연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p>

위안을 주기 위해 신권을 사용함: 기적

1891년 3월, 스노우 장로가 브리검 시에 있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 엘라 젠슨이라는 열네 살된 소녀가 죽었다. 그녀는 일주일째 넘게 성홍열로 시달렸었다. 소녀는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소녀는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를 듣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괴로웠다. 소녀의 영은 영의 세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스노우 장로가 대회에서 말씀하고 있던 중에 그에게 엘라 자매의 죽음을 알리는 쪽지가 전해졌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며 그 모임에서 빠져 나왔다.(롬니, *The Life of Lorenzo Snow*, 413쪽) 스노우 장로는 루드가 클로슨 장로와 함께 엘라의 아버지를 대동하고 엘라 자매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죽은 소녀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갔다. 스노우 장로는 클로슨 장로에게 기쁨 부음을 부탁하고 나서 그 자신이 그녀를 축복하면서 엄숙한 목소리로 “엘라 자매여 돌아올지이다. 지상에서의 그대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노라.”고 말했다.

“스노우 장로가 병자 축복을 한 뒤 한 시간 이상 경과되었을 때, 소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는 방을 둘러 보더니, ‘그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라고 물었고, 소녀는 ‘스노우 형제님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라고 대답했다.(*The Life of Lorenzo Snow*, 415쪽)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즉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축복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
----	--

성구 토론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29절을 읽는다.

- 우리는 어떻게 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주를 섬기며 주님의 계명을 지킴)
-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모사이아서 2장 17절을 읽는다)

칠판	<p>로렌조 스노우는 평생 동안 남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거듭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자 했다. 그는 그의 생애 자체가 희생의 산 간증이였기에 성도들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칠판의 마지막 칸에 ‘충실히 봉사함’이라고 적는다.</p>
----	---

간증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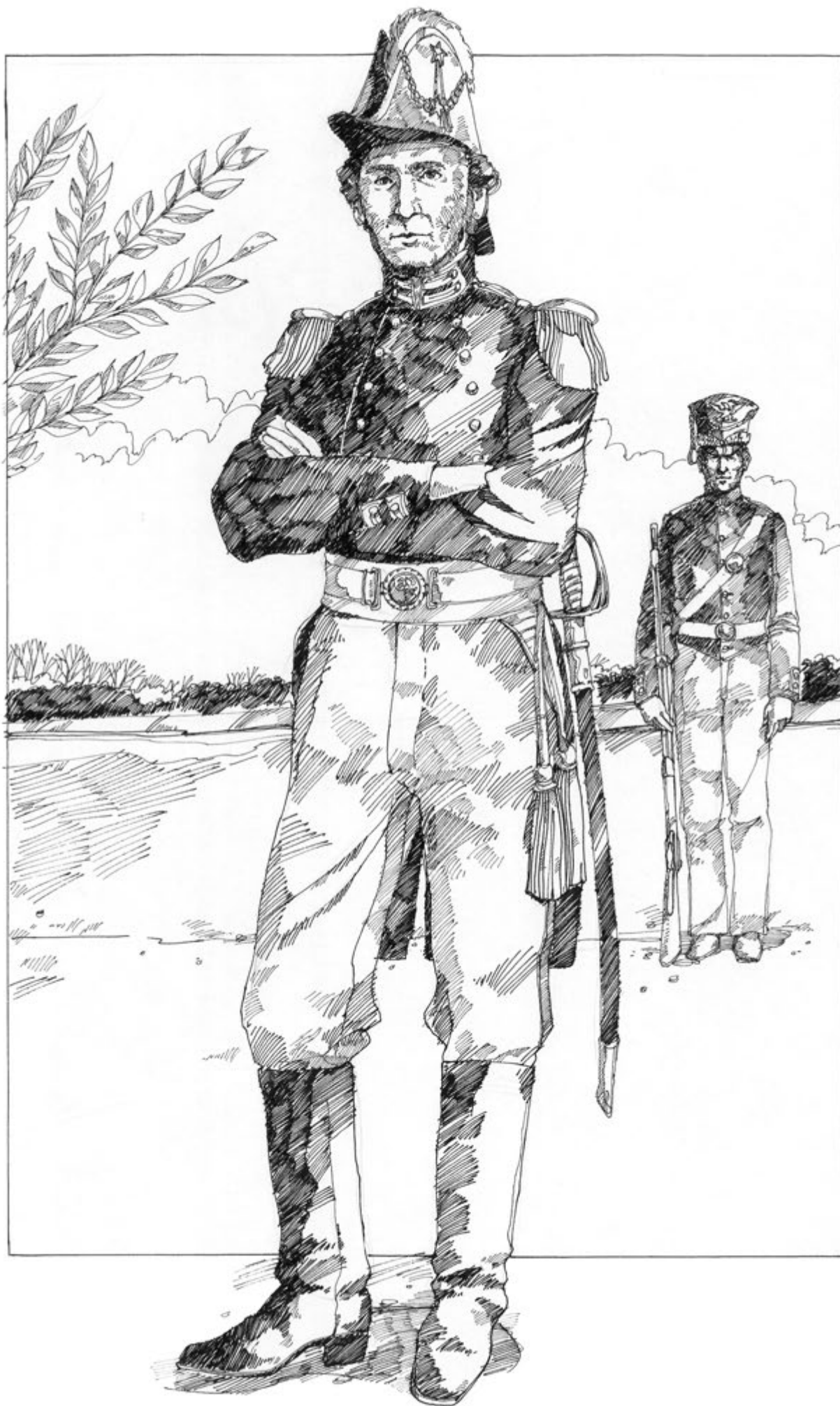
모든 반원들에게 로렌조 스노우가 행한 대로 생활하도록 권고한다. 반원들이 사심 없이 그들의 시간, 재능, 재산을 바쳐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킨다면, 그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에게 봉사할 때, 우리 또한 성신의 권능에 의한 더 큰 간증으로 주님과 그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생애에서 봉사가 가져다주는 힘을 간증한다.

성구

주님께서 의로움으로 그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된 교리와 성약 76편 5~10절을 크게 읽으면서 공과를 마친다.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은 완전한 십일조를 내기 전에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1899년 5월 18일, MS, 61:533)”(로렌조 스노우,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4년], 155쪽)

그리고 나서 스노우 회장은 주님께서 세인트조지 성도들에게 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은 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토론

- 주님은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노우 회장에게 어떤 기존의 원리를 강조하셨는가? (십일조, 십일조의 법이 완전히 지켜져야 함)
- 스노우 회장이 세인트조지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정직한 십일조를 낼 경우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비가 올 것이다)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십일조의 중요성을 가르쳤음

성구 토론

반원들에게 교리와 성약 119편 4절을 읽고 표시하게 한다.

위 구절에서 주님은 십일조를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이라고 선포하셨다. 여기에서 수익은 수입을 뜻한다.

인용 및 그림

지명된 반원들에게 다음 인용문을 읽게 한다. 원한다면 각 선지자의 말씀이 읽혀지는 동안 그분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

“저는 형제님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내는 십일조와 우리가 하는 노동과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에머슨 로이 웨스트, *Profiles of the Presidents*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155쪽)

로렌조 스노우 회장 (1899년 7월 2일, 솔트레이크 성전 내의 성회에서 십일조에 관해 하신 말씀)

“주님께서 계시하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하지 않은 십일조는 십일조를 전혀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Life of Joseph F. Smith*, 조셉 필딩 스미스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9년], 308쪽)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십일조의 법은 사람들을 개인별로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이 원리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시온의 복지에 무관한 사람이며 교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Gospel Doctrine*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226쪽)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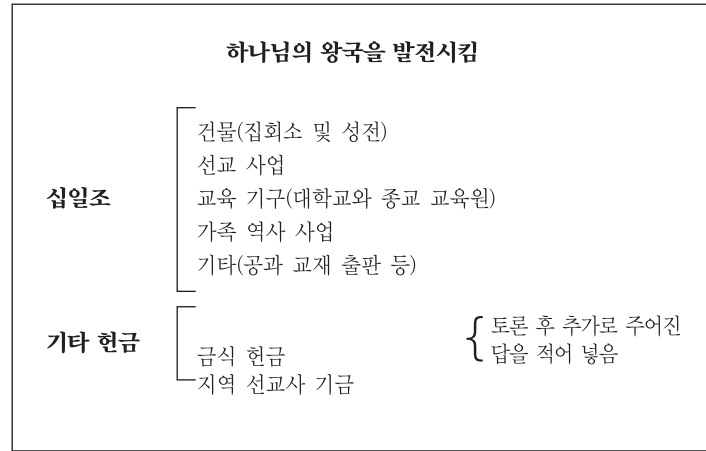
“저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정직하게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친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나머지 십분의 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 가치있는 것이 되도록 하셨으며, 그들이 주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웨스트, *Profiles of the Presidents*, 1972년 ed., 231쪽)

칠판에 이들 교회 회장들이 십일조의 법에 관해 하신 말씀을 요약하여 적는다.(십일조는 우리의 승영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축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부분 십일조를 내는 것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십일조의 법은 하나의 시험이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교회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교회 헌금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된다.

공과 시작 전에 다음 도표를 칠판에 그려 놓는다.



도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설명한다.

십일조는 우리가 교회에 내는 주요 헌금이다. 그것은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 즉 건물(집회소 및 성전), 선교 사업, 교육 기구 및 사업 (대학교와 종교 교육원), 가족 역사 사업, 경비, 행정 소요 경비(본 교재의 출판과 같은 경우)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렇지만 십일조만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헌금은 아니다.

- 그밖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교회에 내는 헌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이 열거하는 대로 도표에 하나씩 첨가한다. 금식 헌금, 선교사 기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표 참조) 헌금뿐 아니라 노동이나 헌물도 똑같은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헌금을 할 때 오는 축복 외에 우리는 그 헌금 덕분에 교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시설과 편의 또한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왕국의 건설을 위해 헌금하는 사람을 축복하심

약속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안헬 아브레아 장로의 다음 체험담을 들려 준다.

“1957년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지부의 새 지부 회장으로 일할 당시 저는 성도들과 십일조의 중요성에 관한 접견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호세 형제님, 형제님은 왜 십일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호세 형제는 제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질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부 회장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고 노동자의 급료는 너무나 적습니다. 이 달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신발도 사야 합니다.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저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세 형제님, 저는 형제님께서 십일조를 충실히 내면 자녀들이 학교에 신고 갈 신발도 갖게 되고, 또 집에서 쓸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그래도 형제님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면 형제님이 십일조로 바치신 액수만큼 제주머니에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 역시 결혼하여 인생의 첫 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호세 가족은 고사하고 제가 신을 구두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사랑하는 제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하여 저를 지지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호세 형제의 경제적인 복지를 위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저는 다시 호세 형제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복받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부 회장님,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봉급이 인상된 것도 아닌데 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신발도 사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36~37쪽)

성구 및 칠판

칠판에 *말라기 3장 10절,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이라고 적고 반원 중 한 명을 지명하여 소리내어 읽게 한다.

토론

아브레아 장로는 호세 형제가 십일조의 법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주님은 항상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는가? (그렇다. 십일조를 내는 모든 이에게 주님은 축복을 부어 주신다)

간증 및 목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간증함으로써 공과를 마친다. 십일조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반원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과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을 계속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서로 나누도록 격려한다. 반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목표를 준다.

목적 친구들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반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따를 결심을 하게 한다.

- 준비사항**
1. 작은 자석과 나침반을 마련한다.(지역 스카우트 조직이나 반원들 중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석을 구하기 어려우면 소형 렌치나 큰 못 같은 철물로 대신할 수 있다.(크롬 도금 제품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은 안됨)
 2. 반원들에게 나눠 줄 종이와 연필을 마련한다.
 3. 모든 반원이 성경과 물문경을 지참하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실물 공과

나침반을 들고 다음 질문을 한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침반은 항상 한 방향(자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반원 한 명에게 나침반을 들고 서 있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 앞으로 나와 지침의 위치를 확인하게 한다. 이어 나침반에 자석 또는 대용 쇠붙이를 대고 이리저리 움직여 지침을 흔들리게 한다. 반원들을 제자리로 들여보낸다.)

- 이 실험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나침반의 지침과 같다. 때로 어떤 영향력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영향을 미쳐 방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길에 굳건히 서 있고 선한 영향력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중요한 행동 결정 요소인 친구의 영향력

성구 토론

반원들에게 알마서 37장 38~41절을 읽게 한다.

리하이의 가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레이맨과 레뮤엘처럼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면 방향구의 지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신앙이 있을 때에만 지침은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할 때, 그에 필요한 적절한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활동 및 토론

반원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나눠 주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사물을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적으라고 한다.(가장 중요한 것을 1번으로 하고, 가장 미약한 것은 10번으로 한다.)

-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부모, 가족, 교회, 지도자, 청소년 역원 등)
- 자신의 이익을 먼저 찾는 영향력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친구, 광고, 텔레비전 등)

위의 활동에서 나오는 답변은 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반원들에게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도록 강조한다.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현명해져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영향력들을 주의하여 선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제6대 교회 회장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다음을 읽고 필요한 경우 설명한다.)

“우리의 오락은 건전한 사회 환경에 의하여 특정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락 대신에 우리가 사귄 수 있는 사람들의 성격에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나 친구나 교회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쾌락은 하나님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와 우리 신앙의 벼들과 교회 회원 상호간의 교제를 항상 규제해 온 참된 원칙들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회 환경에 있는 오락은 그 자체로는 합당하고 건전하지만, 만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자들이거나 그 장소가 합당하지 않고 적당한 제약이 없다면 이런 오락은 삼가 해야 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289쪽)

나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친구

이야기 및 토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한 말씀에서 나쁜 친구가 끼치는 영향력을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섬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를 잡는 대로 작고 납작한 바구니에 넣습니다. 한 마리를 넣어두면, 즉시 기어나옵니다. 그러나 두 마리만 넣어도 문제는 달라져서 하나가 기어 나오려고 하면 영락없이 다른 하나가 끄집어 내립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저씨에게서 들은 것인데, 코요테와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요테는 매우 영리한 동물이어서 어미 코요테는 새끼들을 양떼 우리 근처에서 뛰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새끼 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재미있어 보이는데’ 하며 새끼 코요테들과 놀러 나갑니다. 그러면 어미 코요테가 다가와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길ियो 다른 길은 없습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82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 [1982년], 67쪽)

-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간단한 토론을 거친 후, 이 두 이야기가 그들의 친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한다.)

연구 문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내 친구를 끌어내리는가? 내 친구가 나를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에서 나쁜 친구들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본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자주 슬픔과 비극과 통한으로 끝났는가? 본 활동은 명상, 즉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 재미로 나누는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이러한 경험과 이에 연관된 사람들을 언급하여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반원들이 그 일로 그들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이야기를 해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반원들이 잘 아는 상황이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른 길에서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며 유혹의 면전에서 용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전했던 다음 말씀을 반원들이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게 한다.

“아, 우리 청소년들이 늘 좋은 친구를 사귀며, 우리의 표준을 끌어 내리려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이 기본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선택하게 합시다. 결코 그들을 부주의 속에서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시다.”(*Love versus Lus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프로보, 1965년 1월 5일, 8쪽])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친구

이야기

친구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는다.

“어느 소녀의 무덤 가에 세워진 흰 작은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친구들이 “그녀가 함께 있으면 더욱 선하게 살 수 있었다”고 했던 소녀’”(File Favorites, 알버트 조벨 이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8년], 62쪽)

정의 및 활동

헤일즈 장로는 친구에 대해 단순하고도 의미있는 정의를 내렸다. “친구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친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 주는 사람입니다.”(로버트 디 헤일즈, “이것이 길ियो, 다른 길은 없습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81-82*, 67쪽)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가 친구를 정의한 다음 글을 읽는다.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수동적으로 동조하거나 불합리한 행동도 눈감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는 염려해 주는 사람입니다.”(마빈 제이 애쉬튼, “가난한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Ensign*, 1982년 9월호, 73쪽)

반원들에게 처음에 만든 영향력 목록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친구의 정의에 적합한 영향력들에 표시를 해보게 한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특히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더욱 그렇다. 때때로 교회의 청소년들조차 서로서로, 특히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 특히 외톨이가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 몰인정하게 따돌림 당한 사람들,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참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긍정적인 친구의 영향력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주님

성구 토론

모사이야서 18장 7~10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 위 구절에 나오는 특성 중 참된 친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반원이 답한다)
-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우애를 찾을 수 있겠는가? (교회, 선교 사업, 성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우애라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우애와 영향력을 나누지 않고, 교회 밖에서 그런 것을 찾을 때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 하나는 높고 고귀한 이상을 지닌 남자나 여자와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망과 격려, 친구들의 영감은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느낌과 동등한 것입니다. 우정은 신성한 재산입니다. 공기와 물과 태양이 꽃과 나무와 초목에게 필요하듯이 친구의 미소와 동정과 사랑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웃고 사랑하고, 그들로부터 사랑 받는 것은 파스한 햇살 아래서 훈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높거나 낮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귀하고 종교적인 우정 가운데서 친구를 사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권 정원회와 보조 조직과 성찬식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소홀히 하거나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만큼 자신의 영혼을 굶기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40년 4월, 116쪽)

-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구주, 성신)

우리의 가장 큰 영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성신

성구 토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 이 성구에 따르면 우리에게 대한 구주의 사랑은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보여 주셨다.)
- 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가? (구주)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즉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93:45 참조)

간증 및 목표

우리는 현대 선지자들의 삶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생애 동안 긍정적인 영향력을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최상의 특성을 개발했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성장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선택했을 때, 특히 구주와 그의 선지자들을 따르고자 할 때 안전과 행복이 있음을 간증한다.

반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찾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부정적인 영향력을 멀리 하도록 목표를 준다. 모든 사람, 특히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한 사람에게 친절하도록 권고한다. 맥케이 회장은 자신의 영혼을 굶기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했지만 세상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굶주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연구 문제

다음 질문들을 자문해 본다.

- 매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하거나 거절하겠는가?
- 매일 우정의 결핍으로 영혼의 굶주림을 겪는 이를 보면서도 그를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조셉 에프 스미스- 용기있는 음성

제 20 과

출생: 1838년 11월 13일 회장 재임 기간: 1901~1918년

목적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보여준 대로 반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육체적, 도덕적 용기를 보이겠다는 동기를 갖게 한다.

- 준비사항**
1. 시편 23편 4절과 로마서 8장 31절을 적은 포스터를 만들거나 칠판에 적는다.
 2. 교재 끝에 있는 조셉 에프 스미스 그림과 평원을 횡단하는 매리 필딩 스미스와 그 아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그림(62608; 복음 그림 패킷 412)을 준비한다.
 3. 반원들에게 나누어 줄 연필과 종이를 준비한다.
 4. 물론경 합본을 충분히 갖추어 반원들이 경전 안내서에 있는 지도 및 지명 색인에서 지도 6의 미국 지도를 참조할 수 있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활동

반원들에게 연필과 종이를 나누어 주고 공과를 소개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한다. 반원들에게 종이에 여러분이 내는 질문의 답을 쓰되 나중에 그 해답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이므로 이름은 쓰지 말라고 말한다.

- 지난 주에 한 일 중에 용기가 필요했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토론

- 용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용기는 위험과 두려움,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적, 도덕적 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 (*Webster's T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v. "courage.")

- 사람들은 이 힘 또는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
- 교회 안팎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용기를 보여 주었던 지도자들을 알고 있는가? (조셉 스미스, 스펜서 더블류 김볼, 콜롬버스, 이순신, 김구 등)
- 반면에 비겁하면서도 위대했던 지도자들을 알고 있는가? (대부분 없다고 하겠지만 답변을 들어본다)

용기는 지도력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특성이다. 세상은 용기를 찬양하며 용기 있는 지도자를 따를 것이다. 반면에 비겁자들을 경멸할 것이다.

육체적, 도덕적 용기를 지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그림

조셉 에프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준다.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매리 필딩 스미스는 첫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주의: 이 아들은 제10대 교회 회장 조셉 필딩 스미스가 아니라 그의 부친이자 제6대 회장인 조셉 에프

스미스(입)를 낳았다. 조셉은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성도들이 물문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미주리 주의 폭도들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는 나부에서 성장하여 여섯 살이 되던 해부터 그 투쟁과 핍박의 실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 하이럼 스미스와 작은 아버지인 조셉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에 의해 순교 당했다. 어렸을 때 그는 이 위대한 분들의 용기를 여러 번 목격했었다. 그의 어머니 매리 필딩 스미스 역시 용기와 강인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린 조셉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러한 특성들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아이오와 주 몬트로스에서 네브라스카 주 윈터쿼터스로 가는 길을 직접 마차를 몰고 갔을 때, 그는 이미 여느 여덟 살의 소년이 아니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용기를 보여 주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그림

조셉과 그의 어머니가 평원을 가로지르는 그림을 보여 준다.

그의 생애 중에 있었던 다음 이야기를 해준다.

조셉과 그의 어머니는 1847년 윈터쿼터스(현재 지명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서 겨울을 보내며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도

경전 안내서에 있는 지도 및 지명 색인의 지도 6의 미국 지도를 활용하여 아이오와 서쪽 경계에 인접한 윈터쿼터스를 보여준다.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나 아이오와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남은 1,600가량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정지했으며, 뒤따라 올 사람들을 위해 곡식을 심어둘 장소를 윈터쿼터스라 이름을 붙이고 그곳을 개간했다.

여덟 살의 어린 조셉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 목동으로서 소떼를 돌볼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그 소떼가 서부 여행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같은 또래 친구인 토마스 버딕과 함께 그는 마을에서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 경주를 하고 개천을 뛰어넘으면서 소떼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인디언들이 그들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왔다.

“토마스는 즉시 ‘인디언이다!’, ‘인디언이다!’ 하며 집으로 도망쳤다.”(조셉 필딩 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8년], 135쪽)

그러나 조셉의 머리를 스친 첫 번째 생각은 소떼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소떼를 빼앗길 경우 모든 일행이 올해 내로 윈터쿼터스를 떠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떼를 모으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두 명의 인디언이 그를 지나쳐 토마스를 뒤쫓아 갔는데, 토마스는 무슨 이유에선지 말에서 뛰어내려 달려갔다. 한 인디언이 토마스의 말을 잡았다. 그때 조셉은 소떼 앞으로 가서, 인디언이 들이닥칠 찰나에 소떼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조셉은 얼마 동안은 인디언들을 피했지만 결국 인디언 무리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조셉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한 인디언이 왼쪽으로 말을 타고 왔고, 또 한 인디언은 오른쪽으로 와서 내 팔을 잡아 올리고는 속력을 늦춰 내 말이 달려가 버리게 한 다음, 나를 땅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뒤따라오던 말들이 나를 넘어 뛰어갔지만 다치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내 말을 잡아서 그들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36쪽)

용기있고 결단력이 있는 어린 조셉은 결국 마을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인디언들을 지체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 비록 말은 찾지 못했지만 조셉의 용기 덕분에 소떼는 모두 구할 수 있었다.

조셉은 아홉 살 되던 해에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가는 길에서 네 필의 소가 끄는 마차를 몰았다. 그는 또 한 번 책임감이 강한 목동이 되었다. 그가 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동안 게으름 피워서 소를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은 울부짖는 늑대 무리에게서 송아지를 구해낸 적도 있었다.

신앙에서 오는 용기

토론

- 어린 조셉이 어디에서 이런 용기를 얻었을까? (어머니,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등)
-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가? (신앙)

포스터 또는 칠판

시편 23편 4절과 로마서 8장 31절을 적은 포스터를 보여주거나 칠판에 적는다.

신앙은 용기의 근본이 되는데, 조셉은 어머니의 강한 신앙을 보아 왔다. 그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종종 왜 그가 기도에 대해 그토록 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윈터쿼터스에 살던 시절, 어린 조셉은 어머니와 조셉 필딩 아저씨와 함께 솔트레이크계곡까지 여행할 때 필요할 양식을 마련하려고 미주리 주 세인트조셉까지 여행을 한 일이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소떼를 모는 사람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소들이 다른 소들과 섞여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날 밤 풀을 뜯기러 밖으로 내보낼 때도 멩에를 씌운 채로 내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소가 사라져 버렸다. 조셉과 아저씨는 아침 내내 소를 찾다가 끝내는 포기하고 돌아왔다. 조셉이 먼저 마차에 도착했는데 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돌아왔을 때 나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가 슬그머니 다가가 어머니가 주님께 우리를 곤경에 들게 마시고 잃어버린 소를 찾게 해주셔서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나를 보았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흘렸던 잔잔한 미소는 슬픔에 빠진 나에게 희망과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확신을 전해 주었다.”(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32쪽)

조셉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를 찾아 볼 테니 조셉과 아저씨는 식사를 들고 있으라고 했다. 아저씨는 가볼 만한 곳은 이미 다 가 보았다고 하며 어머니를 만류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보내며 강가 쪽으로 향해 가셨다. 근처에서 소떼를 몰던 사람들 중 한 일원이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아주머니, 새벽녘에 아주머니네 소들이 저쪽 너머로 가던데요(이때 그는 그릇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말했다.(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33쪽) 그래도 조셉의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강쪽으로 가셨다. 이를 본 그 목동은 황급히 자신의 모아 놓은 소떼로 가서 서둘러 몰고 가버렸다. 매리 필딩 스미스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았다.(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32~133쪽 참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여행은 시작되었고 조셉은 또 한 번 어머니의 신앙을 확인하게 된다. 시온에 거의 다 와서 소 한 마리가 지쳐 병들어 땅에 스러졌다. 조셉의 어머니는 조셉 아저씨와 또 한 사람을 청해 축복 기름병을 건네주며 이 소가 그들의 여행에 꼭 필요하니 그에게 병자 축복을 부탁한다고 했다. “형제들은 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마치 이 소가 사람이기라도 한 듯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소는 즉시 일어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멩에를 메었다.”(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50쪽)

조셉이 겨우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망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어머니로부터 수없이 많은 용기와 신앙과 성실의 모범을 보아왔고, 그는 전 생애를 거쳐 이러한 덕목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었다.

토론

- 열다섯 살 때 대양을 건너 말도 음식도, 풍습도 다른 나라로(당시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없었다)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 지갑이나 전대 없이 간다는 것(즉 돈 없이 가는 것)은 또 어떤가?

열다섯 살의 조셉 에프 스미스는 지금의 하와이인 샌드위치섬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지만 그 시간에 언어를 배워서 후에 하와이 원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100일 만에 언어를 깨우쳤다. 그는 또한 원주민들과 그들의 음식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몇몇 다른 선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귀환했다. 일부는 침례가 원주민이 아닌 이곳에 정착한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셉은 주님께서 브리검 영 회장을 통하여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사랑과 관용이 풍부한 이 섬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3년 뒤, 오늘날 선교사로 출발하는 이들보다도 적은 나이로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선교사들은 돌아오는 길에 선교 사업을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어디든 잠시 머물러 일자리를 찾아 그들이 솔트레이크로 가기 위한 의복과 음식을 마련해야 했다. 캘리포니아의 산버나디노에 와서 조셉은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부로 고용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몰몬 감정이 상당했다. 당시 브리검 영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1857년에 유타를 거쳐 캘리포니아로 가던 비몰몬 이주민들이 죽임을 당했던 마운틴 메도우스 대학살 사건 때문에 비난 받고 있었다. 또한 미육군은 후기 성도에게 적대적인 유타 주 관료들의 거짓 고소 때문에 유타 주로 행군을 하고 있었다. 몰몬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공언하며 “마음에 살인을 품은 자들이 전 지역에 퍼져 있었다.”(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88쪽) 이러한 일 때문에 당시 교회 회원들은 안전을 위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여행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조셉과 그 일행이 야영하려고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한 무리가 야영지를 향해 말을 몰며, 몰몬이 그들 앞길에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댔다.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안 몇몇 형제들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골짜기 아래 숲으로 피해 숨었다. 조셉은 불을 지필 땀감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쌓기 위해 불가로 다가섰다. 술 취한 악한 한 명이 권총을 든 채로 그가 만나는 몰몬은 모두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크고 격노한 목소리로 조셉에게 ‘너는 몰몬이냐?’ 라고 소리쳤다. 조셉은 자신을 겨누는 권총을 무시한 채,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렇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몰몬이오.’

“이러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그는 [스미스] 장로의 손을 잡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 자넨 내가 만난 자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악수하세, 젊은 친구. 것처럼 강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을 보니 기쁘네.’”(스미스, *Life of Joseph F. Smith*, 189쪽) 그 자는 아마도 그 일행의 두목인 듯했고, 그가 말에 오르자 나머지 사람들도 그를 따라 갔다. 스미스 회장은 자신이 그때 몰몬이라고 자인하면 분명 죽으리라 생각했었다고 말한다. 그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쨌든 자신이 몰몬임을 떳떳하게 밝혔다.

- 그때 조셉이 보인 용기는 육체적인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것인가? (둘 다임)

-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매리온 디 행스 장로의 다음 글을 읽어 준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사람들의 조소와 무지, 두려움과 적의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용감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위협과 반대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Vital Quotations*, 에머슨 로이 웨스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 1968년], 74쪽)

스미스 회장은 그 이후의 생애 역시 순탄하지 않았다. 그의 회장 재임 기간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였다. 유타 주 내의 반몰몬 정당은 지역 신문을 이용해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에게 나쁜 인상을 심으려고 전국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그는 욕설에 개의치 않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핍박을 견뎌냈고, 구주께서 또한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참아 내셨다면 자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할 것을 알았다. 그의 신앙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런 외중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후기 성도는 이 용기 있는 위인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흠모했다. 많은 적들조차도 그가 임종할 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성구 토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태복음 5:10)

인생의 유혹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처럼 할 수 있다.

간증 및 목표

신앙이 생의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간증한다. 반원들에게 각자의 생활에서 용기를 보이도록 제언한다.

목적 교리와 성약 138편을 읽고 그 배경을 이해하여 반원들이 구주의 대속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다음 그림을 준비한다.
 - ㄱ. 공과 시작 전에 교재 끝에 있는 조셉 에프 스미스의 그림을 칠판에 붙여 놓는다.
 - ㄴ. 숲속의 나무 한 그루(62쪽 참조) 그림과 숲 그림(본 공과 끝에 있음)
 - ㄷ. 선교사 그림(선택)
 2. 반원 수만큼 연필과 예비 시험지를 준비한다.(공과 끝부분 참조)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조셉 에프 스미스” 편을 보여준다.

주의: 대다수의 반원들이 죽은 자의 대속에 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공과 중 많은 토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리를 전한다. 본 공과는 반원들이 교사의 간증을 느낄 수 있도록 영으로 가르쳐야 한다.

반원들이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몸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속박에서 풀어줌” [*Webster’s T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v. “redemption”])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을 제안하셨다. 그분은 고통 받았고 끝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것이 속죄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주이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예비 시험

반원에게 예비 시험지(103쪽)와 연필을 나눠 주면서 공과를 시작한다. 먼저 문제를 풀라고 하고 답은 공과 끝에 가서 각자가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 및 토론

-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즉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만을 본다. 나무 그림을 보여 준다 가까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라 전체 모습은 못보고 만다. 숲의 그림을 보여준다.
- 아더 왕 이야기에서 왜 마법사 메틀린은 어린 아더를 매로 변화시켜 하늘 높이 날게 했는가?(그것은 아더에게 세상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 주기 위함이며 나라 사이엔 아무 경계가 없음을 가르치기

위험이었다. 이전에 아더는 나무들만 볼 수 있었으니 그것은 좁은 시각이었다. 만일 반원들이 아더 왕 이야기를 잘 모르면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갖는 시각과 산 꼭대기에 올랐을 때 갖게 되는 시각을 들어 설명한다.)

-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나무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운동을 잘함, 시합에서 이김, 유명해짐, 멋진 옷을 입음 등)
- 여러분의 삶을 영생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 “나무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반원이 답한다. 대부분의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 주님은 왜 아브라함, 모세 등 그의 몇몇 선지자들에게 시현으로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가?(모세서 1:27~39; 아브라함서 3장 참조)

주님은 한 사람이 한 때 볼 수 있는 것보다 전체 그림이 훨씬 중요함을 지적하셨다. 우리는 그 전체 그림을 보거나 들은 선지자들을 모시는 축복을 받았다.

후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

연구 문제 및 토론

-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두렵거나 슬프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잘 듣는다.

“저는 살다가 죽고,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에게 가져다줍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나 친척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출판사, 1939년], 338쪽)

그림 및 토론

선교사 그림을 보여 준다.

- 가족이나 친지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선교 사업 하고 있는 반원이 있는가? 선교 사업을 떠날 때 주위에서 운 사람이 있는가? 왜 울었는가? 떠나는 선교사가 슬픔에 잠기지는 않았는가? (울었을 수는 있겠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로가 다시 만날 것을 그리워는 하겠지만, 이 헤어짐이 잠시 동안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 그 선교사가 귀환할 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명예로운 만남)

스미스 회장은 선교사의 귀환을 죽음과 비교했다.(복음 교리, 400쪽 참조) 선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을 받아들여 그 사업의 목적을 완수한 뒤 귀환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로 오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왔고 우리 사업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충실히 산다면 언젠가는 기쁜 재회를 위하여 우리의 하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더 큰 인생의 그림을 배우는 후기 성도

토론

- 사망한 친척이나 친구 중에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또한 조상이나 역사적인 인물과 같은 사람 중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교사 자신이 방문하고 싶은 사람을 밝히고, 그를 방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를 말할 수 있다.)

- 어떻게 해서 후기 성도인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가? 어디에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성구 토론

다음 성구를 찾아보게 한다. 모세서 5:9~10; 에스겔 37:5~6, 12, 14; 다니엘 12:2; 욥기 19:25~26. 이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를 예견했다고 강조한다.

몰몬경의 많은 선지자들 역시 부활을 예견했다. (앨마서 11:40~45 참조)

토론

- 각 경전에 쓰여진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다음의 증거가 언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신약과 몰몬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간증. 마태복음 27:52~53; 제3니파이 11:14~15.

후기의 간증. 조셉 스미스 이세,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돈은 그들이 주님을 보았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으로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간증했다.(교리와 성약 76:14, 20; 110:2 참조)

영원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이해함

토론

예비 시험의 답을 맞추며 다음 성구들을 토론한다.

○ 1. 우리의 영은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교리와 성약 19:17 참조)

× 2.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있었다.(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 3. 출생할 때 우리는 필멸의 육신을 받았다.(모세서 6:59 참조)

○ 4. 사망할 때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육신은 썩으며 영은 영의 세계로 간다.(앨마서 40:21)

○ 5. 영의 세계에서는 부분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의인은 낙원으로 가고 악인은 영옥으로 간다. (앨마서 40:12, 14; 교리와 성약 138:20~22)

× 6. 복천년의 끝에 가서 의인은 부활하여 그들의 영옥은 결합되어 다시는 나뉘지 않게 된다.(복천년이 시작할 때, 의인들만이 부활하여 그들의 영옥은 결합되어 다시는 나뉘지 않게 된다. 교리와 성약 88:96~101 참조)

× 7. 필멸의 육신을 입고 악을 행하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필멸의 육신을 입고 악을 행하다 죽은 사람들은 복천년이 끝나면서 부활하며,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교리와 성약 88:101 참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계명을 지킨 사람은 영생과 승영을 상속받는다. 아브라함서 3:26 참조)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시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지상에서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이나 지금까지 씌어진 모든 책의 간증에 관계없이 제 마음속에 영의 증거를 받았으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앞에서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만일

네가 성실하다면, 그분을 대면하게 되고 지상에서 부활된 몸으로 그분과 함께 설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거를 받아왔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간증은 진실합니다.”(복음 교리, 406쪽)라고 말씀했다.

교리와 성약 138편을 보면 그가 어디에서 것처럼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 편은 그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해 본 시현을 기록한 것이다. 경전을 읽으면서 그가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베드로가 기록한 영육에 있는 영들, 즉 노아의 시대에 죽었던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러 가셨다고 한 것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그는 다음 구절을 읽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전서 4:6)

스미스 회장은 그 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기록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이 내 위에 머무는지라.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자의 큰 무리가 있더라. 그 곳에 무수히 많은 의인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 내가 보니, 그들은 그들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함께 기뻐하고 있더라. 그들은 모여서 사망의 띠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포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들의 잠자는 티끌은 장차 본래의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어, 이 뼈가 저 뼈에 들어맞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오르며, 그들이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결코 다시는 나뉘지 않게 결합될 것이더라.”(교리와 성약 138:11~12, 15~17)

시현을 보기에 앞서 스미스 회장은 어떻게 예수께서 무덤에 있던 3일 동안 개인적으로 친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시현은 예수께서 직접 가셨던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영들을 조직하시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토론

-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각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시는가, 아니면 집단으로 모인 곳에 오셔서 몸소 가르치시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권능과 권세를 주시며, 선지자는 그렇게 위임을 받아 일한다.)

우리는 그와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에 의해 가르침 받는다. 이는 영육에 있는 영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스미스 회장이 “무수히 많은” 무리 사이에서 본 자들 중에 시조 아담과 이브, 여러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과 “이 모든 자와 더 많은 자들, 곧 니파이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증거한 선지자들”(교리와 성약 138:49)을 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죽은 자의 대속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지상 생활을 마친 의로운 영들은 영육에 있는 영들을 가르치느라 분주하다.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상의 의식들, 즉 가족 역사 사업에 따른 침례와 성전 의식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 자신의 구원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상 생활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육신을 받고 시험의 기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강화된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죄로부터 구원되고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지식은 특별한 위안이 됩니다. 죽음은 종말을 뜻하지 않습니다.”(복음 교리, 407쪽)

간증 및 목표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이해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하며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비디오 간증

가능하다면,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간증 두 번째 부분(51초)을 보여준다.

예비 시험

다음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표시를 하시오.

- _____ 1. 우리의 영은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 _____ 2.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있었다.
- _____ 3. 출생할 때 우리는 필멸의 육신을 받았다.
- _____ 4. 사망할 때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육신은 썩으며 영은 영의 세계로 간다.
- _____ 5. 영의 세계에서는 부분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의인은 낙원으로 가고 악인은 영옥으로 간다.
- _____ 6. 복천년의 끝에 가서 의인은 부활하여 그들의 영육은 결합되어 다시는 나뉘지 않게 된다.
- _____ 7. 필멸의 육신을 입고 악을 행하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 결단력 있는 지도자

제 22 과

출생: 1856년 11월 22일 회장 재임 기간: 1918~1945년

목적 반원들이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삶을 특징짓는 그의 신앙과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 결단성을 배워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게 한다.

준비사항

1. 반원들이 물문경을 지참하게 한다.
2. 히버 제이 그랜트의 그림(공과에 포함)을 준비한다.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히버 제이 그랜트” 부분을 보여준다.
3. 가능하다면 다음을 준비한다. 야구공, 야구 모자, 야구 방망이, 펜(깃털로 만든 큰 펜), 찬송가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이야기

히버 제이 그랜트가 태어난 지 9일째 되었을 때, 그의 부친 제데다이어 엠 그랜트(당시의 제일회장단의 일원)는 가난 속에 이 어린 아기와 부인을 두고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아기가 약해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어린 그랜트는 살게 되었다.

그러나 생계를 꾸러가기에 너무 힘들었기에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에 있는 아름다운 집과 재산은 처분되었고 그 돈은 여러 상속자들에게 분배되었다. 히버의 어머니는 500달러를 받았고, 이 돈으로 그녀는 작은 집을 사서 샴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다.

히버는 어머니에게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소년 시절에 그는 빈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년 내내 단지 얼마간의 버터와 설탕만을 양식으로 살아가며 난로도 없이 추운 밤을 지낸 적도 있었다. 어떤 성탄절에는 히버에게 사탕 하나 사 줄 돈조차 없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도날드 더블류 위커, “히버 제이 그랜트,”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데오나드 제이 아링톤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6년], 218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에는 지붕에서 새는 빗물을 받기 위해 마루에 그릇을 여섯 개나 갖다 놓았다. 이때 에드윈 디 율리 감독(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외할아버지)이 찾아와 금식 헌금을 사용하여 새 지붕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랜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성장해서 새 집을 지을 때까지 그냥 지내겠다고 거절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하고자 애썼다.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이들 모자의 신앙은 그들의 성품에 결단력이라는 특성을 덧붙여 주었다. 히버의 어머니는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하숙인을 두었다. 히버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웠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결코 불평의 구실로 삼지 않았다. 뒤에 히버는 어머니를 위해 안락하고 멋진 집을

지었으며 그 집이 완성되었을 때 울리 감독을 모셔 헌납을 부탁드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린 히버 제이 그랜트는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라게 되었다.

성구 토론

함께 니파이전서 7장 12절을 읽고 연구한다.(우리가 신앙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품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기 시작한다. 신앙이 커감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행할 때, 성품을 개발하게 된다.)

토론

- 생활 속에서 신앙이 요구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성품을 개발시키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큰 일을 하도록 사람을 이끄는 소망과 결단력

그림

공과 중에 히버 제이 그랜트의 그림을 보여준다.

히버 제이 그랜트의 생애에 있었던 다음의 세 가지 일화는 그의 성공을 향한 큰 소망과 결단력을 보여준다.(이야기를 읽고 연구하면서 그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 책상 위에 놓아 둔 기구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반원들 중 한 명에게 펜을 사용하여 글을 잘 써보게 하거나 몇 사람에게 반주 없이 찬송가를 불러보게 한다.)

이야기 1

다음은 읽고 토론한다.

그랜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극진히 돌봐주셨다. 나는 그야말로 온실에서 자라난 썸이다. 그래서 나는 ‘키만 컸지 연약한’ 상태였으며 나의 성장은 알차지 못했다. 나는 청소하고 세탁하고 접시를 닦는 일을 배웠지만, 사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돌팔매질이나 체격을 발전시키는 일 등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야구 클럽에 가입했을 때 내 또래의 소년들과 그 이상의 소년들은 제1팀에서 연습을 했고, 나보다 어린 소년들이 제2팀에서, 그보다 더 어린 소년들은 제3팀에서 연습을 했다. 나는 제3팀의 소년들 틈에 끼어 연습을 했다. 내가 이 팀에 속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공을 던지는 거리가 한 베이스와 다른 베이스 간의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나는 공을 치고 달리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공을 집어 들면 소년들은 이렇게 외치곤 했다.” “여기로 던져, 계집애야” “야구 실력 때문에 나는 어린 소년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앞으로 야구를 계속하여 유타 지역의 야구 선수권을 획득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구두를 닦아 1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을 야구에 투자했다. 나는 여러 시간을 애드윈 디 울리 감독의 헛간에서 공을 던지며 보냈다. 그 일로 그는 나를 13와드에서 가장 게으른 소년이라고 불렀다. 때로는 팔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여 마침내 우리 클럽의 제2팀에 속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더 좋은 팀에 속하게 되어 결국 지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그리고 와이오밍의 우승팀들을 이긴 팀에서 뛰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야구하기를 그만 두었다.”(브라이언트 에스 힝클리, *Heber J. Grant*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1년], 37~38쪽)

이야기 2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노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곡조를 익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하셨다. 나는 찰스 제이 토마스 교수가 가르치는 음악반에 들어갔는데 찰스 교수는 나를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결국엔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내가 이생에서는 결코 노래를 배울 수 없을 것이며 혹시 내세에서는 이 천부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적당히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고, 인내심이 강하며 끝없는 연습을 마다 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헝클리, *Heber J. Grant*, 470쪽) 그랜트 회장은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마침내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후에 루드저 크라우슨과 제이 고든 김볼과 함께 아리조나 스테이크를 방문하러 가는 중 그는 찬송가 100곡을 부르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느냐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서 좋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홀브루크에서 성 존스까지의 약 96킬로미터의 거리를 마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그가 40곡을 부르고 나자 그들은 히버에게 만약 나머지 60곡을 부른다면 그들은 모두 신경쇠약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히버는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 약속한 대로 나머지 60곡을 완전히 불렀다.(헝클리, *Heber J. Grant*, 47쪽)

그랜트 회장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까지 확대되었다. 그는 음악가들을 도왔고, 태버내클 합창단의 조직을 권고했다. 그는 자비를 들여 이 합창단이 캘리포니아와 시카고 등지로 여러 차례 여행할 수 있게 했고 교회 음악 위원회를 조직했다.(헝클리, *Heber J. Grant*, 41쪽)

이야기 3

소년 시절 히버는 웰스파고사 은행의 장부 계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은행 일이 구두를 닦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글씨를 잘 써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처음 그의 글씨체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의 두 친구는 “그 글씨는 마치 암탉의 발자국 같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아니야. 마치 번개가 잉크 병을 들이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들의 말은 히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들보다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하기로 결심을 했다. 후에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글씨 연습에 아마 한 화차 분의 종이를 썼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재능을 꾸준히 개발시킨 결과, 그는 나중에는 인사장이나 청첩장, 보험 증서, 기명 증권, 기타 법률 서류 등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써야만 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많은 보수를 줄 터이니 필경사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그는 후에 데저렛 대학교(유타 대학교)에서 펜맨십(필법)과 도서관학을 강의했다.”(헝클리, *Heber J. Grant*, 40쪽)

성구 토론

교리와 성약 6편 8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내게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 것이요, 만일 네가 원하면, 너는 이 세대에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되리라.”

- 소망과 결단력은 강력한 도구인가? (그렇다! 올바른 소망과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단력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여러분은 현재 위대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써 소망과 결단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비디오 간증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세 번째 부분(1분 10초)을 보여준다. 구할 수 없다면, 다음 간증을 읽어 준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영생과 구원의 계획을 연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프레스톤 니블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릿 출판사, 1941년], 257~258쪽)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회원들이 각자의 생활에 신앙, 소망, 결단력을 갖도록 목표를 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 주일에도 나는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육 내지 칠 분 만에 할 말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네 번째 주일에는 연설에는 정평이 나있는 형제들 몇 명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약 95킬로미터 떨어진 톨레군 최남단의 소도시 버논에 갔다. 그곳에는 자그마한 통나무로 된 와드 건물이 있었다. 버논 와드 감독이었던 존 시 샤프 형제와 와드로 가면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독님, 모임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감독은 “다들 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교회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나는 와드 건물과 그 주변의 많은 마차들을 보았다. 하지만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보였다. 나는 “마차가 몇 대 와 있긴 해도 사람은 그림자도 안보이네요.”라고 말했다. 감독은 다시 한 번 “다들 와 있을 겁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2시 2분 전에 교회에 들어갔다. 과연 교회는 딱 차 빈 자리 하나 없었고 우리는 그곳에 도착한 마지막 사람들이었다. 말씀 순서가 되어 나는 내 빈약한 오 분 내지는 칠 분의 말씀을 하기 위해 일어섰다. (프레스톤 니블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7년], 224~225쪽)

표시 “계속”이라고 쓴 종이를 든다.

요구 받았을 때

활동 “요구 받았을 때”라는 활동을 한다. 반원 한 사람에게 독창곡을 건네 주고, 그에게 즉석에서 그 노래를 하도록 부탁한다.

토론 및 칠판 “못해요!”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한번도 안 불러 봤어요!” “도와 주세요”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칠판에 적는다. 노래를 부탁 받은 반원이 가졌을 느낌과 히버 제이 그랜트가 테일러 회장으로부터 톨레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졌을 느낌을 비교한다. 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1. 히버는 겨우 스물세 살이었다.
2. 그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결코 사람들 앞에서 오랫동안 말씀해 본 적이 없었다.
3.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4.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토론

- “요구 받았을 때”의 그 상황에서 그랜트 회장은 어떻게 행했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 노래 부르도록 지명된 반원에게 그랜트 회장의 상황이 그의 상황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묻는다.(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있는 점, 경험의 부족,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이다.)

이야기의 결론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톨레에서의 경험을 마저 읽는다.

그랜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분 말씀을 하려고 일어섰던 나는 그때 이후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꼈던 주님의 영광 자유로 가득 차서 45분 동안 말씀을 했다. 그날 밤 나는 무릎을 꿇고 성령을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비록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했었던 또 다른 교회를 배웠다. 나는 시온의 톨레 스테이크에서 가장 큰 그랜즈빌 와드에 가게 되었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주님께 번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원했을 때와 비슷한 태도로 주님께 기도했다. 그러나 올리버 카우드리는 실패했고 후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으며 간구하지도 않아 받을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다. 나는 주님께 버논에서 한 것처럼 그랜즈빌에서도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했다. 나는 말씀을 하기 위해 일어났고 오분 동안은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확신하건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에 흠뻑 젖었을 것이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말씀에 관한 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최대의 실패를 한 것이었다. 감사의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직 교회를 나서서 한없이 걸었다. 들판에 들어서서 건초 더미 사이에 가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한 건초 더미 뒤에서 무릎을 꿇고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고서는 영감과 권능과 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나는 어린 아이가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었다. 주께서 나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신다면 어디에서부터 영감이 오는 것인가를 항상 상기하겠다고 했다.”(니블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225~226쪽)

히버 제이 그랜트는 톨레 스테이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권고하면서 많은 말씀을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내가 스테이크를 이끌도록 부름받았을 때, 부름에 관련된 의무를 몰랐지만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니블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224~225쪽)

토론

- 어째서 그랜트 회장은 버논에서 그렇게 성공했으면서도 그랜즈빌에서는 그토록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아야 했는가? (버논에서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었다. 하지만 그랜즈빌에서는 필요한 도움을 전념하여 요청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당연히 그를 도와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 문제

-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어떤 일을 하도록 요청 받거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포스터

포스터에 쓴 그랜트 회장의 말씀을 반원들과 함께 크게 읽는다. “주님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실 때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성구 토론

다같이 다음 성구를 읽는다. 교리와 성약 112:10; 니파이전서 3:7; 교리와 성약 30:1~3.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역경에 직면할 때 주를 기억하고 의지하여 힘을 얻기를 바라신다.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우리는 축복을 약속 받게 된다.

구주에 대한 신앙으로 계명을 지킴

이야기

그랜트 회장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거룩한 도움에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에 관하여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주머니에 은행에 예금하려던 돈 50달러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금식 모임에 갔을 때(그 당시에는 금식 모임이 일요일 대신 목요일에 열렸었다.) 감독님이 현금을 청하시자 저는 걸어가서 그에게 50달러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5달러를 빼내어 서랍에 넣고 45달러를 돌려주며 그것이 내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울리 감독님, 제가 주님에게 빚을 갚는 일을 무슨 권리로 막으십니까? 주님께서 네 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어머니는 과부이신데, 200달러가 필요하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야, 너는 내가 이 45달러를 마저 받으면 네가 200달러를 더 빨리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는 돈을 받았습니다.

“금식 모임에서 나와 제가 전에 일하던 곳으로 걸어가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48시간 내에 특정한 가격으로 얼마나 많은 채권을 사겠다는지를 묻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구할 수 있는 만큼 사기를 바란다는 답신을 보내 왔습니다. 그 거래에서 저는 218달러 50센트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감독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감독님, 지난 번에 50달러를 현금하고 218달러 50센트를 벌었으니 십일조를 21달러 85센트 빚진 것입니다. 21달러 85센트와 18달러 50센트 사이의 차액을 매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일조를 네 배 이상으로 갚아 주셨습니다.’”(교회 회장 [학생 교재 종교 345], 176~177쪽)

성구 토론

다같이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을 읽는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 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큰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일까? (반원들이 답하게 하고 그랜트 회장의 경우와 같이 축복이 항상 즉시 오는 것은 아님을 인식시킨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원리에 순종할 때 축복이 오고, 하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깊어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의 순종심이 커감에 따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되며,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된다.

간증 및 목표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전할 수 있다. 이 원리의 참됨을 간증한다.

반원들이 주님에게 의지하도록 목표를 준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힘을 얻으며 그분에게 의지하여 답을 얻고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



약점과 시련을 장점으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진보함

우리는 시련과 약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전하든지, 발전을 방해 받든지 한다. 히버 제이 그랜트는 의혹과 약점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장한 사람의 한 예이다.

이야기

히버 제이 그랜트는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처음엔 당황해 했다. 존 테일러 회장이 그에게 그 부름을 주었을 때 그는 겨우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랜트 회장은 사도로 지지 받고 나서 1882년 10월부터 188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다. 영적으로 나약하며 성격도 불완전하다는 강한 느낌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개의 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선을 위하여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결점과 실수투성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1882년 10월부터 1883년 2월까지 바로 그 영이 저를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나는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구속주임을 알고 있다고 간증하려고 할 때, 그 음성은 저에게 ‘너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다. 너는 그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Gospel Standards*, 지 호머 더럼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9년], 194~195쪽; 또한 *교회 회장* [학생 교재 종교 345], 178쪽 참조)

그러던 중 1883년 봄에 히버 제이 그랜트는 다른 여러 지도자들과 나바조 인디언 보호 구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방향이 갑자기 왼쪽으로 바뀐 도로가 있었고 잘 닦여진 직선 도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두 도로는 끝 부분에서 서로 만나고 있었다. 그랜트는 거대한 협곡을 따라 이리저리 구부러진 도로로 혼자 가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았다. 그 길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자 가고 싶은데요. 자 출발하도록 하죠.”(*Gospel Standards*, 195쪽; 또한 *교회 회장* [학생 교재 종교 345], 178쪽 참조)

그랜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반원들에게 읽어 준다.

“다른 쪽으로 해서 대열을 만나러 달려 가다가, 그만큼 실제적인 것을 보고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 회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관심을 갖고 토론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빈 두 자리를 채우는 일에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는 결원이 된 지 2년이 되었고, 나머지 한 자리는 결원이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공석을 채우지 못하여 연차 대회도 연기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구주께서 참석하셨고, 저의 아버지도 계셨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저의 아버지가 저를 거론하여 그 자리에 부르게 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승영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오직 깨끗하고 흠없는 생활을 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부친은 실상 종교 개혁에 생애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순교 당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조셉과 아버지는 제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제가 무슨 위인이거나 어떤 큰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성실히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와 부친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그날부터는 제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882년 10월에서 1883년 2월까지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부터는 제가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1918년에) 들려 준 말로 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보다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분은 누가 교회를 인도하면 좋을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41년 4월, 4~5쪽)

시련과 약점을 장점으로 바꿈

활동 및 토론

종종 개인적인 시련과 약점 때문에 겪는 역경으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의기소침해지는 느낌이나 자신감 결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돕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다.

미리 지명했던 반원들을 앞에 나오게 한다.

- 칠판에 적었던 약점들을 가리키며 다음 질문을 한다. 요즘 청소년이 겪는 시련과 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원들이 이에 대해 답하며 그들의 느낌을 설명할 때, 한 발표에 하나씩 무거운 물건을 앞에 나와 서 있는 반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다. 준비된 물건들을 모두 전하여 앞에 선 반원들이 다 들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힘이 빠짐, 지침, 겸손해짐 등)
- 어디로 거거나 무엇을 행하기 위해 움직이고자 할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반원의 답변을 듣는다)
- 본 활동은 우리가 개인적인 약점과 시련을 지니고 있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주어진 시련과 약점은 우리에게 중압감과 고통을 줄 수 있다.)
-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염려하시며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살피신다. 그분은 도움을 주려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약점과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우심으로써 짐을 제거해 주신다. 앞에 선 반원들의 짐을 내려 주고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성구 토론

반원들과 함께 모사이야서 24장 10~16절을 읽고 토론한다.

- 우리가 시련과 나약함 속에서,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짐 속에서 허덕일 때 과연 어떻게 그 짐을 가볍게 하며 좌절감에 맞설 수 있을까?(모사이야서 24장 10~16절에서 배운 것을 언급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1.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12절)
2. 신앙으로 그들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14절)
3. 그들은 주께서 도우시리라는 신앙을 가졌으며 인내로서 고난을 견뎌냈다.(15절)

시련과 약점에 처했을 때 우리는 구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추구함으로써 승리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이니라."(이더서 12:27) 주님은 또한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교리와 성약 122:7)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의 시련과 약점을 극복하도록 권고한다.

주님은 세상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선한 것에 반응함

출생: 1870년 4월 4일 회장 재임 기간: 1945~1951년

목적 복음이 주는 축복은 스스로 취해야만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한다.(냅킨과 쓰레기통 준비) 주의: 본 공과는 금식 주일에는 하지 않는다.
 2.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그림(62456)과 그리스도와 어린이들의 그림(62467; 복음 그림 패킷 216)을 준비한다.
 3. 네 장의 종이를 준비하고 각각 밑에 존 스미스, 조지 에이 스미스, 존 헨리 스미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라고 적는다. 네 명의 반원이 이 종이 위에 적을 수 있도록 책받침도 네 장 준비한다.
 4. “교회 지도자” 활동의 우승자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5. 각 반원들에게 줄 연필과 종이를 준비한다.
 6. 반원들이 성경과 몰몬경을 지참하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활동 반원들에게 과일과 냅킨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먹고 난 뒤 반드시 준비해 둔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여분의 냅킨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준다.(본 공과는 금식 주일에는 하지 않는다.)

성구 토론 과일을 먹으면서 리하이가 꿈에서 본 나무의 열매를 상상해 본다.(니파이전서 8:10~12, 17~18을 읽는다.)

- 리하이는 그 과일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 [니파이전서 8:11])
- 과일을 먹고 리하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해 짐 [니파이전서 8:12])
- 그 과일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는가? (예)
- 모든 사람이 그 과일을 먹으러 왔는가? (아니오. 레이맨과 레뮤엘을 비롯한 일부는 오지 않았다. 17~18절 참조)
- 그들은 왜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18절 참조)
- 복음이 주는 축복, 또는 과일을 취하고 안 취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

생애 동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그림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그림을 보여 준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33세에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75세에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이 분들은 모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활동

교실 앞에 의자 네 개를 놓는다. 그리고 네 명의 반원을 뽑아 아래 각각 존 스미스, 조지 에이 스미스, 존 헨리 스미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라고 적은 종이 중 하나와 연필, 책받침을 나누어 준다. 반원들에게 이 네 명을 “방문 교회 지도자”라고 소개한다. 아래의 인물 묘사를 읽기 시작한다.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다음 사람의 묘사를 하게 될 때마다 반원들에게 앞에 나온 네 명 중 누가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기록할 것인가를 알려 준다. 해당자는 자신이 맡은 사람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적을 수 있을 만큼 적도록 한다.

모든 인물 묘사가 끝나면 반원들(그들도 자신의 종이에 그 묘사된 것을 기록할 수 있다.)은 교회 지도자를 대신하고 있는 네 명에게 질문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조지 에이 스미스는 몇 살 때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다. 만일 반원들 중 누군가가 던진 질문에 앞에 나온 반원이 대답하지 못할 경우, 질문한 사람이 앞의 “방문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 단, 질문은 인물 묘사시에 주어진 내용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방문 지도자”와 반원들 모두 주의하여 잘 들어야 한다.

- 1. 존 스미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증조 할아버지는 존 스미스이다. 그는 조셉 스미스 일세의 동생이며, 따라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세의 작은 아버지가 된다. 그는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첫 번째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아 힘들었던 첫 겨울 동안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1848년 여름 귀뚜라미 떼가 습격했을 때도 성도들을 책임지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1849년부터 1854년 사이에는 교회 감리 축복사로 봉사했다.
- 2. 조지 에이 스미스:** “조지 에이”라고 불렸던 그는 존 스미스의 아들이자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할아버지이다. 스미스 회장의 이름은 바로 이 분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선지자 조셉의 사촌이기도 한 그는 채 22세도 되기 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경륜의 시대에 활동한 최연소 사도였다. 교회의 서부 개척화 노력의 많은 부분에 참여했던 그는 브리검 영 회장의 보좌로서 임명되기 전까지 수년에 걸쳐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다.
- 3. 존 헨리 스미스:** 조지 에이 스미스의 아들 존 헨리 스미스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아버지이다. 존 헨리 스미스는 자신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고 후에 그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보좌로 활동했다. 존 헨리 스미스 부부의 가정 생활은 이웃과 친지들이 보기에 사랑과 애정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정이었다. 존 헨리 스미스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이상형 중 한 사람이었다. 그에 대해서 스미스 회장은 “저는 지금까지 제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프레스톤 니블리,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1년], 270쪽)
- 4. 조지 앨버트 스미스:** 그가 열세 살 때 받았던 축복사의 축복에는 큰 의미가 담긴 약속이 들어 있었다. 축복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했다.

“그대는 시온의 아들 가운데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천사가 그대에게 성역을 베풀며 하늘에서 선택 받은 축복이 그대에게 내릴 것입니다.”

“또한 그대는 하늘에서 주는 시현에 몰두하고 가먼트를 입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는 주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고 이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강력한 사도가 될 것이며, 그대의 가족 중 그 누구도 그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지 못할진대 그 누구도 그대를 능가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그대는 야렛의 형제와 같이 주님 앞에서 강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며 삶에서 만족을 얻을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고 주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으며 가장 위대한 왕과 성직자가 될 것입니다.”(도일 엘 그린,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을 추모함”, *Improvement Era*, 1951년 6월호, 404~405쪽)

반원들이 질문을 끝내면 최종 우승자에게 시상한다.

훌륭한 생각으로 복음 열매를 취하게 된 조지 앨버트 스미스

- 스미스 회장의 축복문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토론

축복사의 축복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이를 너무도 잘 알았기에 어렸을 때부터 후에 맡게 될 책임을 위해 준비했다. 다음은 그 당시의 이야기이다.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열세 살 소년 시절에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교회 학교를 최초로 세운 뛰어난 교육자인 칼 지 매저 박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정말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매저 박사님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잘 통제하는 습관이 아직 들지 않은 소년이었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당황했으며 그 일로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가시처럼 저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자 그분이 말씀한 의미가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말씀했던 의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들의 결정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은 제 전 생애에서 위대한 축복이 되었으며 많은 경우에 잘못된 생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삶이 끝날 때 저는 제 생각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Pres. Smith’s Leadership Address,” *Deseret News* [Church section], 1946년 2월 16일, 1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생의 적절한 시기에 이 충고를 들었으며, 같은 해, 즉 13세의 소년으로서 그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소유의 시온 협동 백화점 피복 공장에 취직하여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토론

- 우리의 생각이 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클까?(반원들이 답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의롭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성구 토론

경전에서는 생각이 미치는 힘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잠언 23장 7절을 찾게 하고, 한 사람에게 소리내어 읽게 한다.“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결론을 내렸듯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에 감사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

다같이 열어서 29장 5절을 읽는다.

토론

- 앨마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을지 받을 수 없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을 바라고 선택하는가의 여부)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생애에 있었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 자신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1909년 2월에 그는 중병을 앓았다.

조지 앨버트가 그의 할아버지 조지 에이 스미스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그 해 겨울이었던 것 같다. (꿈을 꾸는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꿈에 연관된 사건들이 1909년에서 1912년 사이 그의 와병 기간에 가장 잘 부합된다. 조지 앨버트는 요양차 세인트 조지에 머물렀었고 같은 해인 1909년 겨울 중에 그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 꿈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몇 년 전에 저는 심한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저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건강이 좋아질까 해서 유타 주 세인트 조지로 갔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기차로 가고 그 다음은 마차로 여행을 계속했는데 그 마차 뒤에는 제가 누울 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인트 조지에서 제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천막을 쳤는데 거기에는 땅에서 약 30센티미터 높이로 짜 맞춘 마루도 있었으며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게 그 천막의 남쪽을 말아 올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허약해져서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동작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어느 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잊고 제가 저 세상에서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큰 숲을 마주 보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호수에는 배도 없었으며 제가 그곳에 어떻게 왔는지를 알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저의 사업을 끝내고 고향으로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제 앞에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으며 제 뒤에도 아름다운 호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 저곳을 두루 헤매며 살펴 보았는데 금방 숲속으로 통하는 길을 발견했으며, 그 길은 거의 풀로 덮여져 별로 사람이 다니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 얼마 동안 걷고 다소 먼 거리를 숲속을 통하여 걸어 간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저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체격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그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체중이 111킬로그램이 넘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할아버지가 체격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그 기쁨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며 저는 항상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까이 와서 멈추셨습니다. 그분이 멈추자 저도 멈추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것을 소년과 소녀, 청년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한 일을 알고 싶단다.”

“그 순간, 제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이 활동 사진과 같이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과거가 제가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의 전 생애가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수치를 느낄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걸어 오셔서 살아 계실 때 하던 것처럼 두 팔로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다시 현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고 있던 베게는 물을 엮지른 것 같이 젖어 있었으며 그것은 제가 부끄럼 없이 제가 한 일을 대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여러분의 훌륭한 이름”, *Improvement Era*, 1947년 3월호, 139쪽)

토론

- 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스미스 회장이 평생 동안 소망한 일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는 선한 일을 행하기 원했으며 하늘과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망했다.)
- 선한 생각과 선한 것을 추구하여 그 바탕 위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오도록 반원들을 이끈다.

1. 선한 영향력 안에 거한다.
 2. 선한 영향력과 경험들을 기억한다.
 3. 복음의 선한 은사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한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원들이 모사이아서 5장 2절을 읽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 까닭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소망을 변화시키셨음을 볼 수 있다.)
 4. 하나님의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소망을 즉시 일치하는 것으로 바꾼다.
 5. 침례 성약을 준수하고 매주 안식일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한다.
-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함께 토론한다.)

그림 및 토론

예수님과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여 준다.

- 어린이들은 주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그들은 신뢰와 애정을 주며 주의 깊게 듣고 주께서 좋으신 대로 그들을 이끄시도록 한다.)

어린이들처럼 신뢰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과 축복을 똑같이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 우리의 행위와 기도로써 주님의 도움과 축복을 구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평생 동안 봉사하며 살았다. 그의 장례식에서 매튜 카울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하나님은 신앙이 강한 사람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확신하건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운 여행 중에서 숨을 거둔 지금 그가 막 시작한 바로 이 여행이 가장 짧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도일 엘 그린,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고난”, *Improvement Era*, 1951년 6월, 405쪽)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이 이번 주 동안 감사를 표하거나 정신을 고양시켜 주는 말씀을 생각하고, 나아가 선한 일을 자주 행함으로써 선한 것에 긍정적으로 대하는 방법들을 찾도록 목표를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에서 얻는 기쁨이 더욱 증가됨을 반원들에게 확신시킨다.

“전쟁 뒤에 남겨진 대학살과 황폐의 시기인 1945년 5월 21일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예임된 교회 회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교회 회장 [학생 교재 중교 345], 195쪽)

스미스 회장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 하나는 전 인류에게 보여 준 그의 사랑이었다. 이러한 사랑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손자인 축복사 조셉 에프 스미스가 한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사명이 놓여 있었는지를 말씀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류 역사상 이 특별한 시기에 오늘날만큼 형제들 사이에 이처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던 때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보다도 더 가족들과 회중들과 각 개인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45년 10월, 31~32쪽)

1945년 11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스미스 회장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에스 트루먼 대통령을 방문했다. 스미스 회장은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저는 교회를 대표하여 미국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매우 정중하게 맞아 주었습니다.(전에도 그를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후기 성도가 유럽에 음식과 옷, 그리고 침구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를 쳐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것을 그곳에 보내려 하십니까? 그들은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상으로 원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그들은 지금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축복하여 주셨으니, 정부의 도움을 얻어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동기가 참 좋으시군요. 가능한 한 기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전시에 식량을 다 없애고 곡물을 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워싱턴 행정부가 식량을 다 없애라고 하는 동안 우리는 곡물 창고를 지어 곡식을 채워 두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는 유럽 사람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침구를 보내는 데 필요한 것은 화차와 배입니다. 이미 가정에서 만든 2천 개의 이불을 모은 조직도 있습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47년 10월, 5~6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좌우명

사도가 되었을 때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었다.

활동 및 토론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자신을 위해 만든 열한 개의 좌우명을 복사하여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자 하나씩 소리 내어 읽게 한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스미스 회장은 무엇을 희생해야 했는가?

반원들에게 자신의 좌우명을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한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원리를 보여준 조지 앨버트 스미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스미스 회장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다고 반원들에게 말한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된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쳤다.

날말 띠 또는 포스터

‘사랑’이라는 글씨를 붙인다. 그 아래 “사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자를 찾는다”는 날말 띠 또는 포스터를 붙인다.

활동

지명받았던 반원들에게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다음 이야기를 읽게 한다. 읽기에 앞서 필요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소개한다.

이 사람은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입니다. 다음 말을 했던 1951년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

“제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그분[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신 것에 끊임없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어린 자녀가 매우 아파서 거의 죽어가고 있던 조용한 밤에 그분이 방문하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통고도 없이 스미스 회장님은 시간을 내어 찾아 오셔서 여러 시간 동안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던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녀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시간을 내어 특히 아픈 사람과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 주셨습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Conference Report, 1951년 4월, 46쪽)

날말 띠 또는 포스터 및 활동

“사랑은 봉사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쓴 날말 띠나 포스터를 붙인다.

이 사람은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딸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의 딸

“한번은 [스미스 회장]님께서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맞은편에서 짐들로 둘러싸인 한 젊은 엄마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여성분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어볼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

“몇 분이 지나자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그 젊은 여성분과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저 젊은 어머니는 긴 여행길이신데, 그분의 표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표를 판 사람이 왜 여행하기에 더 좋은 노선을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대로 간다면, 옥든과 시카고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거든요. 제가 그 여성분의 표를 가지고 옥든에서 내려 다른 연결 노선을 이용해서 옥든과 시카고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표를 바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기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젊은 어머니를 위해 표를 바꾸고 그녀에게 큰 편의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태도였습니다.”(바사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성도의 벗*, 1973년 3월호, 43쪽)

날말 띠 또는
포스터 및 활동

“사랑은 타인을 위한 시간을 찾는다”라고 쓴 날말 띠를 붙인다.

이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디 아서 헤이콧 형제이다.

디 아서 헤이콧 형제

“최근의 중동 여행에서 그분은 기차를 타려고 서둘러 가던 중에 네 명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는 어떤 어머니가 그를 멈추게 하고 자녀들과 악수를 하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을 아래의 쪽지와 함께 스미스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믿던 그대로의 회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회장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은 회장님께서 차를 서둘러서 타고 기다리는 기차로 가야 하는 바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 가족의 어린이와 모두 악수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디 아서 헤이콧, “회장과 하루”, *Improvement Era*, 1950년 4월, 288쪽)

날말 띠 또는
포스터 및 예문

“사랑은 용서한다”라고 적은 날말 띠를 붙인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 준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무리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려고 했다. 한 사건이 이것을 대표한다. 큰 무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의 교회를 세웠다. 그들은 몇몇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고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 스미스 회장은 1946년에 그들을 방문했다. 그는 그들을 만나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의 방문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선지자처럼 보였고 행동했다. 그들은 그가 선지자임을 인정했다. 1,200명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교회 회장* [학생 교재 종교 345], 202쪽)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권고한 스미스 회장

일생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스미스 회장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이 돈으로 얼마를 주거나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해주는 세상적인 것을 열심히 소망하더라도, 지상에서 사귀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친절, 그리고 사랑에 행복이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실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상호부조회 회원에게”, *Relief Society Magazine*, 1932년 12월호, 709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었을 때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의 회장님은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보여주시는 듯 했습니다. 어느 누가 사람들을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Church News, 1951년 4월 11일, 11쪽)

비디오 간증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제4편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간증(1분 19초)을 보여준다.

선지자들의 품성과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가장 적임자를 세우신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모범은 이 위대한 분의 생애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축복이 된다. 그의 사랑은 고통과 비애가 만연했을 당시의 세상에 대한 특별한 축복이었다. 그의 사랑은 전세계의 후기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위대한 은사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의 은사이다. 다른 모든 영적인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계속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또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공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이 스미스 회장이 이웃에게 보인 것과 같은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좌우명

1. “나는 고독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
2. “나는 병들고 고통 받는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을 불어 넣어 준다.”
3. “나는 온 인류를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친다.”
4. “나는 악행하는 자를 찾아 그가 의롭고 행복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한다.”
5.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억지로 나의 이상에 맞추게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겠다.”
6. “나는 대중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그들의 지상 생활이 행복하도록 돕겠다.”
7. “나는 높은 지위의 명예를 좇지 않을 것이며, 분별없는 친구들이 아첨하지 않도록 하겠다.”
8. “나는 고의로 사람들이, 나를 해친 사람까지 포함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선행을 하여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겠다.”
9. “나는 이기주의나 시기심의 버릇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성공을 기뻐하겠다.”
10. “나는 이 지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적이 되지 않겠다.”
11. “인류의 구주는 이 지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발전시키고 지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이러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나의 의무인 동시에 축복된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브라이언 에스 힝클리, “위대한 인간: 관리자 조지 앨버트 스미스”, *Improvement Era*, 1932년 3월호, 295쪽)

목적 우리의 삶이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화로울 수 있음을 반원들이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깨끗한 빛과 종이를 몇 장 준비한다.
 2. 다음 게임판을 칠판에 그리고, 숫자가 적힌 종이를 각 칸의 글씨를 덮어 둔다.

1	2	3	방패
5	6	7	8
9	10	11	믿음의

4번과 12번은
열어 놓는다.

검	의의	신을 신음	방패
진리로	성령의	호심경	허리 띠를 띠
평안의 복음이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준비한 것으로			

3. 반원들이 성경을 지참하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활동 반원 한 명에게 빛으로 머리를 몇 번 빛은 다음 잘게 찢은 종이 위에 갖다 대게 한다. 그러면 종이가 빛에 달라붙을 것이다.

- 어떻게 해서 종이 조각들이 빛에 달라붙게 되는가? (빛에 정전기가 일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빛을 사용했을 때 빛에서 나오는 정전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서 영적인 힘을 볼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나.

우리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를 배웠다. 그는 생애 동안 매우 긴박한 상황에 여러 번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큰 곤경에 빠진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 그가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을 당시 세계 정세는 어떠했었는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다음은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사도로 봉사할 때 그가 한 말이다. “세상이 비참하게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진원지에서 주위로 확산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의 생이 의롭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을 인정하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15년 10월, 28쪽)

스미스 회장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젊었을 때 그는 남부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남부에서는 오랫동안 몰몬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채찍을 휘둘렀으며, 그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어느 날 저녁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가 당시 선교부 회장이었던 제이 골든 킴볼 회장을 모시고 다른 장로들과 함께 회원 집에서 머물 때였다. 그날 밤 장로들이 잠들었을 때 폭도들이 나타났다.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자정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밖에서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을 깨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상스러운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에는 달빛이 환해서 우리는 밖에 모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킴볼 회장은 벌떡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두들기며, 상스러운 말을 하며, 쏘아 죽이기 전에 몰몬은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킴볼 회장은 저에게 일어나 옷을 입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싫습니다. 이대로 누워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몇 분 후 방 안은 총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폭도들은 네 무리로 갈라져 집 모퉁이에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우리 머리 위로 이리저리 날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히 냉정하게 그곳에 누워 제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는 한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으며, 그분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How My Life Was Preserved”, A Story to Tell, 초등회 본부 임원회 및 테저렛 주일학교 합동 임원회 편저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45년], 155~156쪽)

- 그는 두려워했는가? 무엇이 그를 그토록 끔찍한 경험 속에서 침착하게 해주었는가? (반원이 답한다.)

역경과 고난의 시기에 성도를 보호해 주는 주님의 전신갑주

성구 토론

사도 바울은 고난에 직면해 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 그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핍박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

반원들에게 에베소서 6장 10~18절을 읽게 한다.

보기 및 토론

- 다시 조지 앨버트 스미스를 생각해 본다. 그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태연했다.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갑옷으로 자신을 준비시켰는가?

칠판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이라 적는다.

- 어떻게 해서 그는 진리로 자신을 준비시켰는가? (그는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배운 진리에 순종했다.)

칠판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적는다.

- 그는 어떻게 의로움을 발전시켰는가? (시현에서 그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음을 기억한다. 또한 그는 선교사로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칠판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음”이라고 적는다.

스미스 회장은 첫 번째 선교부 대회에 참석했을 때 가졌던 느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미시시피 숲속에서 했던 우리의 모임은 아침 식사 후 바로 시작되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도 무엇 하나 먹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영을 느꼈으며 주변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축복을 받았다. 그 당시 미시시피를 비롯한 남부 주에서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무척 심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걷는 기분이었으며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45년 10월, 115쪽)

- 이 대회 기간이 어떻게 평화, 즉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기간이 될 수 있었는가? (반원이 답한다.)

칠판에 “믿음의 방패”라고 쓴다.

스미스 회장은 아주 일찍부터 신앙을 보여 주었다. 어렸을 때, 조지 앨버트 스미스는 장티푸스를 앓았다. 의사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3주 간 침대에 두고 딱딱한 음식을 주지 말며 커피를 마시게 하라고 권고했다. 후에 스미스 회장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가 가버리자 저는 어머니에게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에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세 자녀를 낳으셨는데 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몹시 염려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우리 와드에서 봉사하는 교사 중 한 사람인 후스 형제님을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주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셨으며 주님의 권능을 믿는 큰 신앙을 지닌 가난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와서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사가 왔을 때,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저를 진찰하고는 열이 사라지고 병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병을 고쳐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스크랩북의 잡지 기사 [GAS Collection, U of U, Box 124, Scrapbook 1], 4쪽; 글렌 알 스텝스,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전기, 1870~1951년”, [Ph.D.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1974년], 12쪽)

칠판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적는다.

-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이 두 가지 것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일례로써 그는 제1, 2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에 종종 평화는 지상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영을 동반하게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씀했다.(Conference Report, 1948년 4월호, 180쪽 참조)

활동

반을 두 팀으로 나눈다. 종이에 덮어 놓은 칠판 게임을 한다. 각 팀은 차례로 한 사람씩 앞으로 내 보내 숫자가 적힌 종이 두 장씩을 떼어 내게 한다. 게임의 목적은 일치하는 두 장을 떼어내는 것이다. 일치했을 경우, 종이를 떼 채로 두고 떼어낸 팀에게 1점을 준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겹종이를 붙인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기억할 수 있는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아버지의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영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역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반복했었습니다. 그분도 이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며, 저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정해진 분계선이 있단다. 선의 한편은 주님의 영역이고 다른 한편은 악마의 영역이란다. 만약 네가 주님의 편에 선다면 너는 매우 안전하게 될 것이란다. 모든 의로움의 적이 그 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로운 생활을 하고 하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그의 충고와 권고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안전하지 못합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49년 10월, 5~6쪽)

세상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의로움의 표준을 시험한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능히 대적”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것을 입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한다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자.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반원들에게 제언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가정과 가족을 존중함

출생: 1873년 9월 8일 회장 재임 기간: 1951~1970년

목적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를 공부하며 반원들이 가정을 현세와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성스러운 곳으로 존중하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그림을 준비한다.
 2. 반원들이 몰문경을 지참하게 한다.
 3. 각 반원에게 나누어 줄 종지와 연필을 준비한다.
 4. 맥케이 회장의 다음 말씀을 적은 포스터를 준비한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은 바로 가족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64년 4월, 5쪽)

공과 전개 제언

정의 및 토론

소개

- “존중하다”는 무슨 뜻인가?(다른 사람의 가치나 지위에 깊은 존경을 보임, 신뢰와 특별하다는 느낌을 줌, 경의를 포함)
- 존중하다라는 말은 동적인 단어인가? (그렇다!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동기를 갖게 되고, 고무되며 격려 받는다.)
- 여러분이 존중하는 어떤 것 또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 그가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의 선조를 존중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역사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9대 교회 회장이자 선지자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대부분 그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가졌던 사랑과 존경심, 그들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덕으로 돌렸다. 맥케이 회장의 선조들은 고결했고 충실했으며, 그러한 가문에 대하여 그는 자부심을 가졌고 자신의 가문을 깊이 사랑하고 충심으로 존중했다.

맥케이 가문이 가진 복음의 뿌리는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0년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조부모인 윌리엄 오만 맥케이와 엘런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1856년에 그들은 스코틀랜드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다. 조부모에 대한 맥케이 회장의 자부심과 존경심은 맥케이 회장의 소년 시절 조부모가 유타 평원을 횡단한 역사를 듣고부터 더욱 깊어졌다. 그 역사 중 하나가 다음 일화이다.

미국에 도착한 이후, “할아버지 가족은 아이오와로 이주하여 한 해 동안 머물면서 돈을 벌어 유타를 향해 평원을 횡단할 준비를 했다. 그 해 말경, 가족은 두 살 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암소 두 마리, 한 마리의 황소를 마련했고, 마차와 충분한 식량도 준비할 수 있었다. 드디어 1,600킬로미터의 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어 모두는 행복해했다. 1859년 6월 13일, 떠나기 전날 저녁 여행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알기 위해 모임이 개최되었다. 총 지휘를 맡은 브라운 형제가 수송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아이 하나를 둔 미망인에 대해서 말했다. 그녀는 병이 깊어 걸을 수도 없었다 ‘누가 이들을 위해 자리를 내줄 사람이 없소? 모든 마차가 짐을 가득 싣고 있었기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분이였기에 자신은 걷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아내를 마차에 태워 가려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할아버지는 곧 할머니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보, 평원을 횡단하려는 사람 중에 미망인이 한 사람 있는데 딱하게도 걷지를 못하는데요. 누군가 그녀를 위하여 마차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 같소만, 나는 오늘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소.’”

“할머니는 즉시 대답했다. ‘지금 바로 가서 내 자리를 쓰라고 하세요!’ 할머니가 완고하게 고집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녀의 말대로 했다. 결국 할아버지 내외는 천육백 킬로미터의 전 여정을 도보로 횡단했다!”(르웰린 맥케이, *Home Memories of President David O. McKay*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6년], 19~20쪽)

이 훌륭한 부모 사이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났다. 그 중 막내 아들이었던 데이비드 맥케이는 바로 맥케이 회장의 아버지이다.

데이비드 맥케이와 차네트 에반스 맥케이는 1867년에 결혼하여 옥든에서 그들의 첫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유타 주 현츠빌에 그들이 손수 지은 집은 1873년 9월 8일 그곳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대로 있다. 그는 열 명 중 셋째였으며 아들로는 첫째였다.

이야기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가족이 주는 축복을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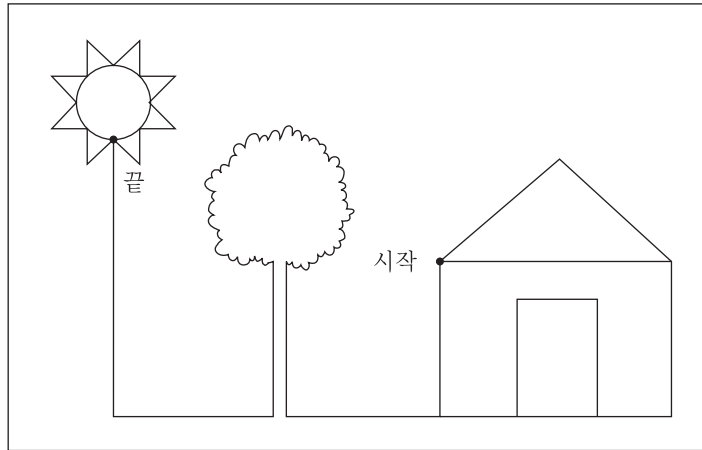
“데이비드가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그의 두 누이는 죽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는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이 년 동안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때 어머니는 해산을 십 일 앞둔 터였다. 목장은 계속 운영되어야 했고, 먹여야 할 어린 식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였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다. 아버지는 떠나기에 앞서 말 위에 앉아 어린 아들을 팔에 앉고는 작별 키스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데이비드, 어머니와 가족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그 날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유년 시절은 끝이 났다. 그는 커다란 책임감과 함께 어른이 되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밤에 혹시 인디언들이나 불량배들이 습격하여 그들을 해치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 환상에 젖어 괴로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제게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침대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어머니와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한 음성이 마치 제 목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두려워 말라,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으리라’ 라고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었는지를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제게 그것은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존 제이 스튜어트, *Remembering the McKays*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0년], 13~14쪽)

토론

맥케이 회장은 “누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 주저 없이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답하겠습니다”고 말했다.(르웰린 맥케이, *Home Memories*, 4쪽)

좋은 모범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심어 주기 위하여 반원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준다. 그들이 따라야 할 열아홉 개의 간단한 지시가 있다고 설명한다.(각 지시들은 다음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므로 한 번에 하나씩 준다.)



반원들이 그리기를 마칠 때까지 이 그림을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은 말하거나 잡담하지 않도록 권유한다. 다음 지시들을 읽는다.

연필을 종이 중앙에 놓고, 계속해서 떼지 않고 다음 지시대로 선을 긋기 시작한다.

1. 아래로 5센티미터.
2. 오른쪽으로 7.5센티미터
3. 위로 5센티미터
4. 대각선 왼쪽 위로 5센티미터
5. 대각선 왼쪽 밑으로 5센티미터
6. 오른쪽으로 7.5센티미터
7. 아래로 5센티미터
8. 왼쪽으로 5센티미터
9. 위로 4센티미터
10. 오른쪽으로 2.5센티미터
11. 아래로 4센티미터
12. 왼쪽으로 10센티미터
13. 위로 5센티미터
14. 짧게 지그재그로 연필을 흔들며 직경 5센티미터의 원을 그린다.
15. 아래로 5센티미터
16. 왼쪽으로 5센티미터
17. 위로 10센티미터
18. 둥근 원을 그린다.
19. 원 주변을 둘러 삼각형들을 그린다.
20. 끝!

활동을 끝낸 소감을 반원들에게 묻는다. 몇 사람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려 하겠지만, 반원들 중에는 “뭐가 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잘 되었었는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칠판 및 토론

이제 다시 한 번 활동을 해본다. 이번에는 지시대로 칠판에 그림을 그려 보이며 진행한다.

-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범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중요하다. 이 활동에서도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여 주었을 때 훨씬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 우리가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모범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 주는 모범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우리의 모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 (반원들이 답을 듣는다. 친구와 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음을 강조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일생 동안 훌륭한 모범과 영향력을 보았다. 그의 선조, 가족, 그리고 가정 모두가 모범적이었다. 맥케이 가문이 가진 복음의 뿌리는 깊었고 대를 이은 봉사와 순종을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맥케이 회장은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만큼 가족과 가정의 힘과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포스터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은 바로 가족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64년 4월, 5쪽)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비록 초라한 오막살이에서 생활한다 해도 그 속에 사는 가족이 화합하여 사랑이 차고 넘치면 어떤 부귀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역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가정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국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64년 4월, 5쪽)

연구 문제

-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 변화시킬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반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활동 때에 사용했던 종이 뒷면에 적도록 제안할 수 있다.)
- 미래에 자신의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을 돕기 위해 맥케이 회장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 노동, 순종, 희생과 같은 모범의 특성들을 되살펴본다.)

성구 토론

경전에는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가족들의 예가 많이 있다. 그러한 한 예 중 하나는 힐라맨서 5장에 나와 있다. 힐라맨은 그의 두 아들을 리하이와 니파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그들에게 선조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도록 부드럽게 권고했다.

힐라맨서 5장 6~7절을 다같이 읽는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모범적이며 존경할 만한 가족과 그 가정이 탄생시킨 인물이다. 그는 가족과 가정이 복음의 근원적인 힘이 됨을 가르쳤다. 그는 가정 생활을 사랑했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 집은 다 낡은 시골집일 뿐이지만 세상의 어떤 궁전도 우리 가족들이 나누는 참 사랑과 헌신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세계 지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달콤한 장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스튜어트, *Remembering the McKays*, 13쪽)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에게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 그들은 가정과 그 가족의 일원이며, 그 속에서 모범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하나님의 사절

제 29 과

목적 사도이며 선지자였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반원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사절”이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그림을 준비한다.
 2. 반원들이 교리와 성약을 지참하게 한다.
 3.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라”라는 글을 포스터로 만들거나 칠판에 쓸 준비를 한다.
 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편을 보여준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이자 제9대 교회 회장이었다. 그는 서른두 살의 나이로 사도가 되었으며 육십삼 세가 채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이미 백육십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 사절이란 무엇인가? (대표자, 대사, 사자)

주님의 사절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킨 데이비드 오 맥케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체험은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자 사절이 되었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건 1: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데이비드는 열네 번째의 생일을 맞기 몇 주일 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난 축복사 스미스는 데이비드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데이비드, 네게는 공기놀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축복사는 어린 데이비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비드 오만 맥케이 형제여, 그대는 젊고 아직 지도가 필요하노니 따라서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부모님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배우라. 주님께서 그대를 지켜보시니 어려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라노라. 주님은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므로 그 사업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것을 배우고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기를 바라노라. 그대의 형제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백성들을 감리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노라.’”(자넷 맥케이 모델, *Highlights in the Life of President David O. McKay*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6년], 26쪽)

사건 2: 배움을 사랑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맥케이 회장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축복받았다. 16세의 나이에 그는 유타 주 옥든의 웨버 아카데미의 학생이 되었다. 그곳을 졸업한 후 형과 두 누이 동생과 함께 그는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유타 대학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훗날 그의 애인이자 69년여 동안 동반자가 되었던 에머 레이 리스를 만나게 된다.

그의 대학 생활은 지도자로서의 경험, 고된 일과 학업으로 가득 찬 주목할 만한 생활이었다. 그는 뛰어난 미식 축구 선수이자 과회장이었으며 최우수 장학생이었다.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의 배움과 문학 작품에 대한 사랑은 깊어갔다. 그는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대문호들이 남긴 수많은 작품들을 암송했다.

사건 3: 선교 사업을 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에머 레이와 결혼할 계획이었으며 전부터 교수 자리를 제의해 왔던 웨버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모든 계획은 바뀌게 되었다. 데이비드의 선교 사업 첫 한 달 간은 어렵게 지나갔다. 유타 대학 재학 시절에 그는 눈 깜짝할 새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학생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낮은 이들 사이에서 전혀 인기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한 그는 어떻게 겸손하여졌으며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저는 향수병에 걸려서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교를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학교를 사랑했고 젊은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참된 친구인 피터 지 존스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을로 돌아오고 있을 때 저는 오른쪽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집 한 채를 보았는데 그 집의 정문은 글씨가 새겨진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므로 저는 존스톤 장로에게 ‘저것이 뭘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갈길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좌우명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라”

“저는 존스톤 장로에게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걸었으나 저는 제 자신에게, 혹은 제 안에 거하는 영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야. 더욱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너는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였어.’ ...”

“우리가 하숙집을 정한 그날 오후에 저는 그 돌에 새겨진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젊은이에 대한 맥케이 회장의 말씀”, *Church News*, 1957년 9월 21일, 4쪽)

스코틀랜드에서 갈등이 많았던 젊은 선교사 맥케이 장로는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것”에 대해 배웠고 이후 그는 그 선교부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당시 선교부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한 보좌는 그 때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말씀을 했다.

“데이비드 형제님, 사탄은 형제님을 까부르듯 하려고(누가복음 22:31 참조) 했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만약 형제님이 신앙을 지킨다면 형제님은 교회를 이끄는 평의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모렐, *Highlights in the Life of President David O. McKay*, 38~38쪽)

- 이러한 세 가지 사건은 맥케이 회장이 주께서 그에게 맡기실 사업을 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반원들의 답을 들으면서 이러한 경험들은 맥케이 회장이 안목을 넓히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에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 이 세 경험을 통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어떠한 자질을 발전시켰는가? (각각의 사건들을 돌이켜 생각함으로써 반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이끈다.)

사건 1: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다음을 배웠다.

1. 배움을 추구함: 그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2. 시간을 잘 활용함.(축복사는 뒤에 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건 2: 배움과 학교를 사랑하게 되면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다음을 알게 되었다.

1. 공부함
2. 일함
3. 지도력을 발전시킴
4. 자신감을 키움
5. 배움을 사랑함
6. 동료들을 모아 이끌
7. 사교술을 발전시킴
8. 문학을 사랑함

사건 3: 선교사로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다음을 배웠다.

1. 겸손하며 주님을 의지함
2.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임
3. 가슴에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하라”는 말을 새김

주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자질을 사용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에머 레이 릭스와 결혼했으며 웨버 아카데미의 교수 제의를 수락했다. 또한 그는 웨버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주님께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맥케이 회장은 그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는 1906년 4월에 지지 받았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책임은 지금보다 더 큰 의미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주님께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게 부여하신 자질들은 그가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들을 이행해 나갈 때 힘이 되었다. 그는 매번 새로운 경험에 부딪혀야 하는 젊은 사도였지만 주님은 그의 신앙심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셨다.

다같이 교리와 성약 43편 9~10절을 읽는다.

- 이 성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교리와 성약 43:9)할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맥케이 회장이 겪은 경험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가 성장하면서 발전시킨 자질들이 주님께서 그를 쓰시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질들은 맥케이 회장이 지도자로서 성공하는 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경험들과 자질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어린 시절 가졌던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그가 주일학교에서 일할 때 또 사도로서 처음 봉사할 무렵에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와 함께 봉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는 늘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축복사의 축복문처럼 “부모에게서 배웠던” 대로 행했다.

사교적 능력과 성품

“1920년 가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맥케이 장로를 교회 일을 위해 세계를 여행하게 했다. 그의 임무는 먼 거리에 있는 교회의 활동을 관찰하고 그곳 회원과 신권 지도자들을 강화하며 동기를 부여해 주는 동시에 태평양권의 교회 학교 제도의 운영을 연구하고 영감이 주어질 경우 중국 대륙을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의 내면에는 각국 정부 관료들에게 비쳐지는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며 방문 국가 내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프랜시스 엠 기본스,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86년], 100쪽) 1920년 12월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과 여러 사도들은 그들의 손을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머리 위에 얹고 그를 축복한 뒤 이 임무의 수행 차 그를 떠나 보냈다.

이 세계 여행 동안 그가 유타 대학 재학 시 잘 배워 둔 사교적 능력과 성품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회원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두고두고 맥케이 회장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특별한 느낌을 이야기했다.

조직 및 운영

1908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맥케이 장로를 협의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불렀다. 이 초기의 경험은 그의 조직력을 향상시켜 주었다. 1961년에 해롤드 비 리 회장은 교회 협의 위원회에서 맥케이 회장이 쌓은 지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분(맥케이 회장)은 우리에게 신권 조직의 활동을 비롯하여 보조 조직 활동, 기타 조직들의 활동 등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통합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력, 교회가 조직된 근본 목적을 향한 쓸데없는 노력을 줄이도록 지시하십니다”(Conference Report, 1961년 10월, 81쪽)

맥케이 회장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과 가정 방문 교육을 재강조했으며, 신권 정원회들은 각기 특정한 책임을 받음으로써 선교 사업, 가족 역사 사업, 복지 사업이 모두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성년이 세계 도처에 건립되었다. 본질적으로 모든 교회 프로그램들이 그의 재임 기간 중에 현격히 증가되기 시작한 회원 수에 맞추어 질서를 잡게 된 것이었다.

배움에 대한 열성

웹버 아카데미와 유타 대학에서 받은 학교 교육은 그의 마음속 깊이 문학에 대한 사랑을 심어 놓았다. 그가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가 받은 학교 교육과 위대한 작가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많은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19세기의 위대한 문인들의 글을 인용하여 복음 원리들을 가르쳤다. 그는 교사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가정과 가족을 존중함

맥케이 회장의 생애는 가정과 가족을 존중하고 헌신한 좋은 모범이다. 그는 결혼과 가족, 여성의 숭고한 역할에 관하여 권위에 찬 말씀을 했다. 그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가르침은 예언적인 것이었고 맥케이 회장의 특징이 되었다.

그의 직분을 잘 수행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오랜 재임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때에도 평민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에도 언제나 맥케이 회장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두드러졌다. 어떤 사람이 맥케이 회장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뉴욕에 있었을 때, 맥케이 회장님이 유럽에서 돌아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내가 나가던 신문사에서는 그의 사진을 찍도록 계획했었으나, 정구 사진사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할 수 없이 뉴욕에서 가장 거친 일에 익숙한 범죄 담당 사진사를 보내게 되었다. 그는 공항에 가서 두 시간 동안 머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단지 두 장의 사진만을 찍도록 되어 있었다. 상사는 곧 그를 꾸짖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필름을 낭비했느냐?’ 고 물었다.”

“그 사진사는 초과된 필름 비용은 자기가 기꺼이 부담하겠으며 소비된 시간에 대해서는 급료를 공제해도 좋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 일로 그가 대단히 흥분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몇 시간 후 부사장이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 범죄 담당 사진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구약전서의 몇 구절을 읽어 주시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한 분을 만났습니다.’”(아크 엘 매디슨, 보네빌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사장, “선지자를 회상함”, *Improvement Era*, 1970년 2월호, 72쪽)

비디오 간증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제5편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간증(1분 6초)을 보여준다.

1970년 1월 18일 일요일 오전 6시, 대 솔트레이크 계곡 너머로 안식일의 햇빛이 떠오를 무렵에 96세의 데이비드 오만 맥케이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깊은 애도와 경의의 표현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는 미국의 선의의 대사로써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주께서 그를 알며 사랑하셨으며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아들인 로버트 알 맥케이는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제 평생 농장과 사업, 교회에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와 선지자로서 의심할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거친 말을 훈련시킬 때라도 그러한 언행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84쪽)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에게 각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질들을 찾아보도록 제안한다. 각자가 서로 자신이 주님의 교회의 대변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음을 강조한다. 주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목표를 준다.

영원한 가정을 준비함

제 30 과

목적	반원들이 영원한 가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요소에 익숙해지게 한다.
----	---

준비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반원들이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지참하게 한다.2. 공과 끝에 있는 맥케이 회장과 그의 부인 에머의 그림을 준비한다.3. 다음과 같이 쓴 포스터를 준비한다. “우리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천국은 이상적인 가정이 연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4. (선택 사항) 반 활동 “천국 가정을 만드는 재료”를 주의 깊게 읽는다. 다음을 포함하여 공과 전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다. 앞치마, 주방장 모자, 큰 그릇, 큰 수저5. 활동 “천국 가정을 만드는 재료”에서 사용할 다음 단어들을 쓴 낱말 띠들을 준비한다. 성신, 유희과 죄, 성전 결혼, 어머니, 아버지, 어린이, 복음에 따라 살아감, 경전 공부, 기도, 모임, 참석, 예의, 대화, 지혜의 말씀, 운동, 적절한 음식, 휴식, 사랑, 이타심.6. 선택 사항: 조리법에 따라 쿠키나 그 밖의 것을 만들어 온다. 그것을 뚜껑 있는 그릇에 넣어 가져오되 이 공과가 금식 주일에 하게 될 경우 금식의 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한다.
------	--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칠판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분은 천국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반원들의 답을 칠판에 적는다.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다. 평화로움, 사랑이 가득함, 행복, 가정과 같음, 경건함)•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반원이 답한다)
성구 토론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다음 성구들을 반원들과 함께 읽는다. 힐라맨서 3장 28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 앨마서 18장 30절. 천국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살고 계신 곳이다. 모사이야서 2장 14절.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고 늘 행복이 가득한 곳이다.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거야말로 천국이구나!”라고 느꼈었던 때가 있는가? 무엇이 그때를 “천국”과 같게 해주었는가? (반원이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준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다.)
포스터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말씀을 적은 포스터를 든다. “우리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천국은 이상적인 가정이 연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존 제이 스투어트, <i>Remembering the McKays</i>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0년], 6쪽)

“천국은 어디에”라는 노래의 가사는 맥케이 회장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노래

다음 가사를 읽어 준다.

천국은 어디에, 아주 멀리 있는 걸까?
저 밝은 별 너머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알고 싶네.
천국은 어디에, 아주 멀리 있는 걸까?
나 좀 더 배우고 성장하여 언젠가는 가고 싶은 곳.
천국은 어디에, 아주 멀리 있는 걸까?

저 밝은 별 너머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알고 싶네.
그러나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네.
(재니스 캡 페리 [프로보, 유타: © 1977].)

질문

- 천국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에 있다.)

천국을 이상적인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을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우며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자기 가정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을 이상적으로 가꾸도록 돕고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준비가 필요한 큰 책임인 것이다.

천국 가정을 만드는 재료

토론

- 천국 가정을 이루는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반원들이 답변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반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

날말 띠들을 포함하여 활동에 쓰일 재료들을 꺼낸다. 날말 띠들은 반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교사가 특정 “재료”를 구할 때, 그것이 적힌 날말 띠를 가진 반원이 직접 그것을 들고 앞으로 나와 책상 위의 큰 그릇에 집어 넣게 해도 된다.

재료를 구했다면 앞치마와 주방장 모자를 쓴 뒤 큰 그릇과 수저, 그리고 갖은 재료들(날말 띠들)을 가지고 요리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요리한다. 각 재료들을 섞을 때 다음 순서에 따른다.

여기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성신이 늘 머물도록 초대한다.

유혹과 죄를 구겨서 그릇 밖에 꺼내 놓는다.

성전 결혼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 데 섞는다.

어린이들을 조금씩 집어 넣는다.

경전 공부, 기도, 모임 참석 등 복음 대로 생활함을 빨리 휘젓는다.

예절과 대화를 술술 뿌린다.

지혜의 말씀, 즉 운동, 적절한 음식, 휴식 등을 곁들인다.

그 위에 사랑을 붓는다.

이타심으로 봉사한다.(음식을 제공한다.)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한 직후 공과 전에 준비하여 둔 과자류가 담긴 그릇의 뚜껑을 연다. 모든 반원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 반원들에게 과자의 좋은 맛이 계속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의 성공도 모든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만일 이 공과를 금식 주일에 하게 될 경우 본 활동은 하지 않는다.

복음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음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각각 그 사용된 순서대로 살펴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원들은 복음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정을 꾸미는 데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날말 띠

그릇에서 각 재료를 적은 날말 띠들을 꺼내어 반원들이 볼 수 있게 하나씩 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토론한다.

성신

성신은 침례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이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성신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며 우리에게 위협과 유혹을 경고해 준다.

유혹과 죄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세운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유혹은 멀리 해야 함을 강조한다.

성전 결혼

반원들이 이 목표를 항상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준다. 각자의 방이나 가정에 성전 그림을 걸어 두도록 제언할 수 있다.

그림

공과 책에 있는 맥케이 회장과 그의 부인 에머의 그림을 보여 준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형태에 합당하게 자신들을 잘 준비할 것입니다. 그 결혼은 가장 높으신 이의 성전에서 엄숙히 거행되는 합당한 남녀의 결합을 의미합니다.”(*Gospel Ideals* [솔트레이크시티: Improvement Era, 1953년], 465쪽)

어린이

어린이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가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반원들, 특히 청남들에게 부모님을 도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도록 격려한다.

경전 공부

반원들에게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며 모임에 참석하도록 격려한다. 젊었을 때 길들인 습관은 보통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된다.

예절

심대에 몸에 밴 예절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를 이해시킨다. 예절이라는 것은 공손함과 예의 있는 행동 이상의 것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친절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토론

-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예절바른 것은 어떤 것인가? (반원이 답한다)?
- 간혹 문화에 따라 예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예절이 있다.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으나 토론을 통해 다음을 포함시킨다. 친절함, 감사함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함], 공경함 [특히 부모, 지도자, 연장자에 대한 것])

대화

토론

- 지난 주 동안 다음 사람들-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과 15분 이상 동안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반원들의 답을 듣는다. 어머니와의 대화, 아버지와의 대화 등 각각을 물어본다.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할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어 보도록 권고한다. 대화는 듣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지혜의 말씀, 운동, 적절한 음식, 휴식

-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가족을 이루도록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성구 토론

다같이 교리와 성약 89편 3절 및 18~21절을 읽고 토론한다.

사랑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이타심

이타적인 것이 곧 그리스도적인 것임을 반원들에게 주지시킨다.

맥케이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늘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는 것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시련을 겪게 될 때 주 안에서 강화되는 남편과 아내는 따뜻한 동반자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Gospel Ideals*, 4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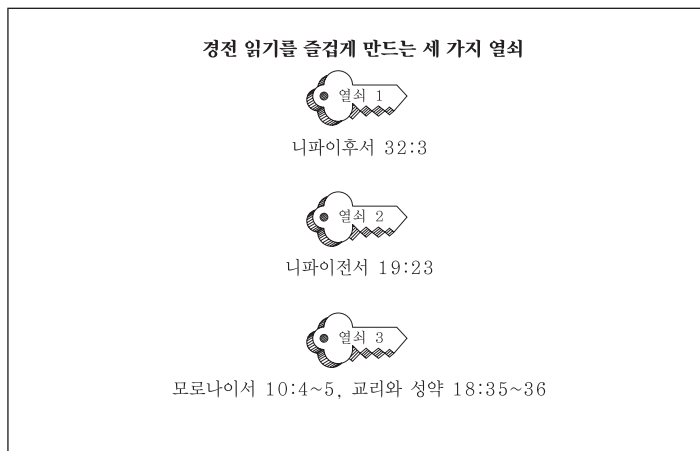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이 반드시 성전 결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도록 권고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공과에서 토론되었던, 천국 가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활용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상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도록 목표를 준다.



목적 반원들이 경전의 내용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 경전 읽기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반원 수만큼 교리와 성약과 물문경을 준비한다.
 2. 다음 글을 칠판에 쓰거나 포스터로 만든다. 경전 읽기를 즐겁게 만드는 세 가지 열쇠.
 3. 각각의 열쇠와 성구를 아래와 같이 칠판에 그리거나 종이로 만든다.



4. 반원들에게 나누어 줄 유인물 “경전을 비유함”(공과 끝부분 참조)을 반원 수만큼 복사한다.
5. 성구 찾기 활동을 미리 검토한다.
6. 열쇠 꾸러미를 가져온다.

공과 전개 제언

실물 전시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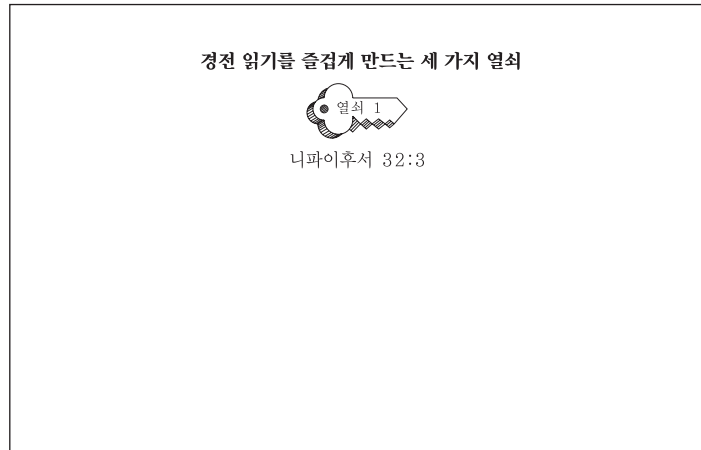
소개

- 열쇠 꾸러미를 들고 묻는다. 이러한 열쇠들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답변에는 문을 잠그거나 여는 것,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포스터 또는 칠판

오늘 우리는 경전 읽기를 더 의미 있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세 가지 열쇠를 찾아볼 것이다.(다음 내용을 포스터로 써 붙이거나 칠판에 쓴다. “경전 읽기를 즐겁게 만드는 세 가지 열쇠” [공과가 끝날 때 칠판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과 끝부분의 완성된 칠판 그림을 참조한다.]

칠판에 미리 그려온 열쇠 1을 붙이거나 그린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열쇠 1 아래 적힌 참조 성구를 찾아 읽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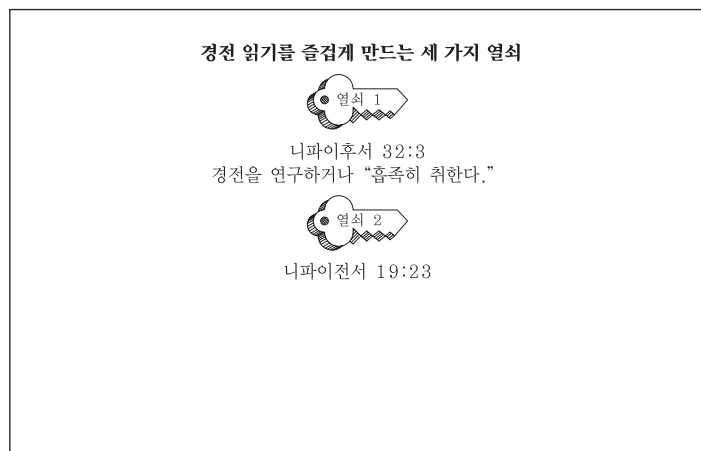


토론 및 칠판

- 열쇠 1은 무엇인가? (경전을 연구하거나 “*흡족히 취한다.*” 이것을 열쇠1의 옆이나 아래쪽에 쓴다.)
- 경전을 연구하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경전을 연구한다는 것은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이며 어떤 이야기 혹은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포스터 또는 칠판

칠판에 미리 그려온 열쇠 2를 붙이거나 그린다.



토론 및 칠판

- 열쇠 2는 무엇인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한다.*” 이것을 열쇠 2의 옆이나 아래쪽에 쓴다.)
-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반원들의 답을 들으며 그 말은 경전과 우리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경전을 비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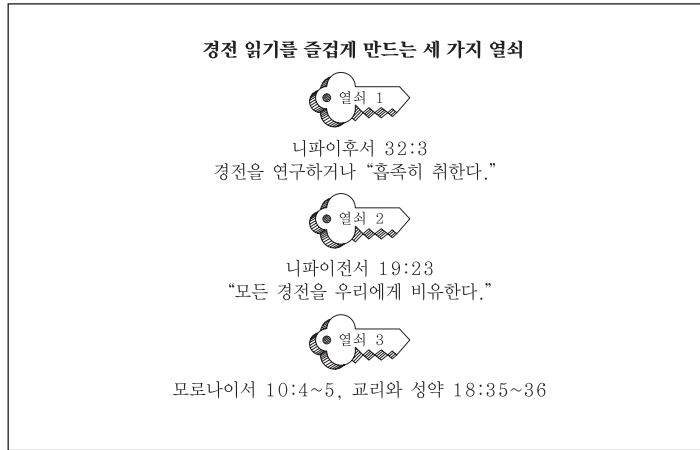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유인물을 반원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것을 읽는다.)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경전을 비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원리들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결코 인생을 변화시킬 힘을 갖지 못한다.

포스터 또는 칠판

칠판에 미리 그려온 열쇠 3을 붙이거나 그린다.



토론 및 칠판

- 열쇠 3은 무엇인가? (우리는 영, 즉 성신의 권능을 통해 경전이 참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열쇠 3의 옆이나 아래쪽에 쓴다.)

간증

이 세 가지 열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전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될 때 재미있어진다는 것을 간증한다. 경전이 인생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함

활동

이제 공과의 응용부와 성구 찾기를 한다. 반을 똑같이 갈라서 두 팀으로 나누고 다음 참조 성구들을 공과 뒷부분에 예시된 대로 칠판에 적는다.

반원들과 함께 각 성구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칠판에 각 성구의 요점을 적는다.

- 니파이전서 3:7. *가서 행함*
 니파이후서 2:25. *아담의 타락, 기쁨*
 모사이야서 2:17. *이웃을 위하여 일함,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
 앨마서 37:35. *지혜를 배움, 젊음*
 앨마서 41:10. *죄, 행복*

우리는 방금 살펴 본 참조 성구들을 가지고 성구 찾기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칠판을 참조할 수 있다. 본 활동의 목적은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열쇠를 적용하는 것이다.(반원들에게 다음을 읽어 준다.)

활동은 2회전으로 이루어진다. 각 회전마다 성구 찾기 단서가 주어지는데, 1회전의 단서는 요점이 되는 단어이고, 2회전의 단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다. 해당되는 성구를 찾으면 재빨리 손을 든다. 성구를

먼저 맞춘 팀에게 선취점 1점이 가산된다. 선취점이 주어진 후, 하나에서 다섯까지 센 다음 “그만” 하고 소리치고 나서 그 동안 성구를 찾아낸 모든 이에게 1점씩의 점수를 준다.(예를 들어, 한 팀에서 5명이 성구를 찾았으면 그 팀은 5점을 얻게 된다.) 팀이 받은 총 점수를 팀에 속한 인원 수로 나누어 점수가 많은 팀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예: 팀이 5명이고 총 25점을 받았다면 25 나누기 5 해서 팀 점수는 5점이 된다.

(성구 찾기 한 회전당 7분 정도를 사용한다. 본 활동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한다. 때때로 상품을 준다면 회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승리한 팀에게는 더 큰 상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활동을 재미있게 이끌어 가되 본 활동의 목적이, 경전은 우리에게 의미를 줄 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

제1회전: 제1회전은 교사가 성구를 읽고 칠판에 써 놓았던 요점을 읽어 줌으로써 시작한다. 원한다면 순서를 뒤바꾸어 문제를 낼 수도 있다.(괄호 안에 주어진 해답은 읽지 않는다.)

가서 행함 (니파이전서 3:7)

아담의 타락, 기쁨 (니파이후서 2:25)

이웃을 위하여 일함,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 (모사이야서 2:17)

지혜를 배움, 젊음 (앨마서 37:35)


죄, 행복 (앨마서 41:10)

제2회전: 다음 문장들을 읽으면서 활동을 시작한다.(괄호 안은 해답)


1.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왜 물몬경을 읽으라고 했는가?(앨마서 37:35)
2. 아담의 타락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니파이후서 2:25)
3. 내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니파이전서 3:7)
4. 남을 도울 때 왜 기분이 좋은가?(모사이야서 2:17)
5. 왜 우리는 매년 교회 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가?(모사이야서 2:17)
6. 부정 행위만 한다면 나는 수학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앨마서 41:10)

완성된 칠판 그림


경전 읽기를 즐겁게 만드는 세 가지 열쇠



니파이후서 32:3
경전을 연구하거나 “흠족히 취한다.”



니파이전서 19:23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한다.”



모로나이서 10:4~5, 교리와 성약 18:35~36
우리는 영에 의해 경전이 참됨을 알 수 있다.

니파이전서 3:7 가서 행함
니파이후서 2:25 아담의 타락, 기쁨
모사이야서 2:17 이웃을 위하여 일함, 하나님을 위하여 일함.
엘마서 37:35 지혜를 배움, 젊음
엘마서 41:10 죄, 행복

접수
가림
나림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경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준다.

경전을 비유함

1. 이 성구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2. 이 성구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4. 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5.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 중 누구와 같은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6. “경전을 비유”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경전에 나오는 대명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창수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창수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수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

조셉 필딩 스미스- 약속의 자녀, 경전 탐구가

출생: 1876년 7월 19일 회장 재임 기간: 1970~1972년

목적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일화를 통하여 반원들이 경전 공부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그림을 준비한다.
 2. 반원들에게 나누어 줄 연필과 종이를 마련한다.
 3. 반원들에게 표준 경전을 지참하게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이야기 제10대 교회 회장이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에 관한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미스 회장인 것처럼 읽어 준다.

“주니는 ‘내가 보아 온’ 동물 중 가장 영리한 동물이었다. 행동을 보면 거의 사람과 같았다. 나는 그 말을 헛간에 매둘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마구간 문에 매둔 끈을 계속 풀어 버리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구간의 회전식 문 기둥 위에도 끈을 묶어 두곤 했지만, 말은 코와 이빨로 간단하게 그것을 들어 올리고는 빠져 나가 들로 내달리곤 했다.”

“마당에는 가축들이 먹을 물을 채워두는 데 쓰는 수도꼭지가 있었다. 주니는 이빨로 수도꼭지를 틀어 놓곤 했다. 아버지는 말 한 마리 제대로 헛간에 매두지 못한다고 나를 나무라시곤 하셨다. 주니는 결코 도망가지는 않았다. 말은 그저 물을 틀어 놓고는 여기저기 들판과 마당을 돌아다녔다. 한밤중에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꼭 일어나서 물을 잠그고 다시 말을 잡아 매고 자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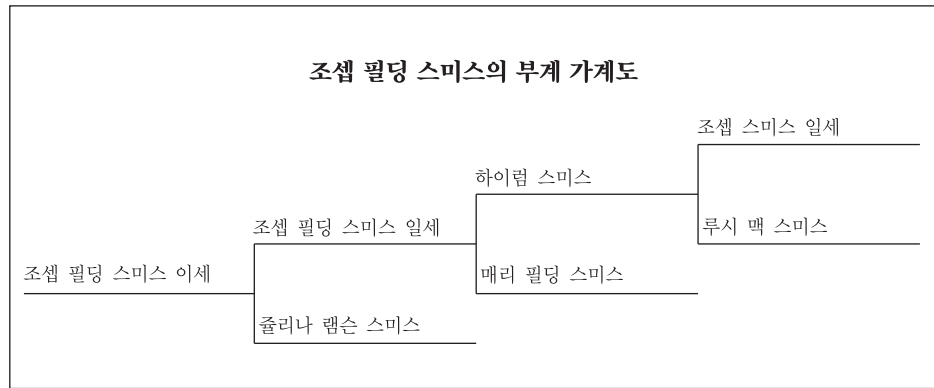
“아버지는 그 말이 나보다도 더 영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손수 그 말을 붙잡아 매겠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보통 때는 으레 기둥 맨 끝에 매달려 있곤 하는 노끈으로, 기둥에 감고 다시 가로지른 나무에도 묶어 두고는 ‘어디 이래도 빠져 나가는지 보자!’ 고 말씀하셨다. 나와 아버지는 헛간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말은 우리 옆에 와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누가 더 영리하죠’ 하고 말할 수 있었다”(제이 에프 맥쿱키, *True and Faithful*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1년], 19쪽)

그림 및 토론

-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손을 들고라 한다. (반원들이 답하는 동안, 조셉 필딩 스미스의 그림을 들고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조셉 필딩 스미스가 제10대 교회 회장이었음을 알려 준다.)

아래와 같이 철판에 가계도를 그린다. 반원들에게 지금 그리고 있는 가계도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부계 쪽 가계도라고 말해준다. 아래와 같이 조셉 필딩 스미스의 이름을 적고 반원들에게 남은 빈 칸들을 채울 수 있는지 묻는다.



이름을 적으면서 반원들에게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1876년 7월 19일에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지적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의 아버지도 그 이름이 조셉 필딩 스미스이지만 우리는 보통 그분을 조셉 에프 스미스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그는 제6대 교회 회장이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할아버지는 카테지 감옥에서 선지자와 함께 순교한 선지자 조셉의 형 하이럼 스미스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증조부는 조셉 스미스 일세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아버지인 조셉 스미스 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천사를 본 후 저의 간증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190) 그는 또한 교회의 첫 번째 축복사였다.

순종심이 강한 약속의 자녀, 조셉 필딩 스미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약속의 자녀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 줄리나 램슨에게 첫 아들의 이름이 조셉 필딩 이세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사위인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조셉 필딩의 출생과 그의 어머니가 받았던 느낌에 관련된 가족 역사를 소개했다.(다음은 반원들에게 읽어준다.)

“줄리나에게는 세 딸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주님께 나아가 맹세를 했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이 주님과 그의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녀에게 그의 아들이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브루스 알 맥콩키, “조셉 필딩 스미스: 사도, 선지자, 이스라엘의 아버지,” Ensign, 1972년 8월호, 29쪽)

조셉 필딩 스미스는 유년 시절 성장의 공로를 부모님과 주님께 돌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대해 감사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개척자들의 무용담을 들려주었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사랑할 것과 기도할 것, 신권의 의무를 존중할 것을 가르쳤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매우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배웠으며,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 간증을 주셨고, 저는 항상 순종하려 했으며 항상 어느 정도는 성공했었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투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57쪽)

- 토론
 - 어렸을 때 간증을 가진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순종하는 것이 간증을 유지하는 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반원이 답한다)

- 이야기 및 토론

어려서부터 조셉 필딩은 열심히 일했고 기꺼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 했다. 그는 집안 일을 거들고 열 살 때부터 조산원인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다음을 읽거나 이야기해 준다.)

“조셉은 열 살이 되었다. 그가 인가된 조산원이었던 어머니 일을 돕기에 열 살은 적당한 나이였다. 조셉은 마구간 심부름꾼과 이룬 마차 마부로 일했다. 밤이건 낮이건 어머니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오면 그는 충성스런 노새인 올드맥을 이룬 마차에 매어 어머니를 산모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갔다. 그곳에서 산모가 분만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언제 다시 오라고 하며 어머니가 그를 돌려 보냈다.”

“때로는 거의 얼어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추운 겨울날 그렇게 많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에 놀랐다. 나는 어머니들이 좀 좋은 계절에 아기를 낳기를 몹시 바랐다.”(스미스와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2~53쪽)

- 이야기 및 토론

“조셉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조르단강 근처에서 소를 먹이고 형제들과 함께 테일러스빌의 가족 농장에서 일하며 지냈다. 한 번은 동생 조지와 함께 들에서 마차에 건초를 실어 헛간으로 운반하다가 죽을 뻔한 일을 당했다. 그들은 건초를 쌓고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운하 곁에 마차를 세웠다. 조셉은 말이 잘 놀라기 때문에 조지에게 자기가 마차에 올라와서 고삐를 잡을 때까지 말 앞에 서서 고삐를 잡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조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뒤로 가서 줄을 묶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말이 달리기 시작해서 조셉은 말과 수레 사이로 떨어졌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말의 방향을 바꾸어 그들을 운하로 달리게 했기 때문에 조셉은 상처를 입지 않고 말발굽과 마차 바퀴에서 빠져 나왔다. 그는 일어나서 조지에게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떨렸지만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며 서둘러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마중 나와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다.”(조셉 에프 맥콩키, *True and Faithful*, 18쪽)

- 토론
 - 이때 조셉 필딩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보호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반원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그를 구하셨다고 답할 것이다.)

- 이야기

조셉 필딩 스미스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했으며 또 즐겼다. 그는 운동을 좋아했는데 특히 야구를 더 즐겼다. 때때로 낚시도 했다. 하지만 사냥은 좋아하지 않았다.(다음을 읽거나 이야기해 준다.)

“조셉은 가끔 낚시를 했지만 결코 사냥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동생들과 친구들이 토끼 사냥을 가자고 꾀었다. 마지못해 토끼에게 총을 쏘았다. 상처입은 토끼가 마치 아기처럼 울부짖는 소리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총을 떨어뜨렸으며, 두 번 다시 총을 쏘지 않았다. 그도 아버지처럼 즐거움을 위해 사냥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쳤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4쪽)

경전을 즐겨 읽었던 조셉 필딩 스미스

그렇지만 아마도 조셉이 소년 시절 가장 중요시했던 활동이면서 그의 삶과 사명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과 경전을 공부하는 일이었다. 그는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경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독서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독서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취한 사업을 읽는 데서 큰 기쁨과 만족을 얻었던 것은 없습니다.”(조셉 스미스, Conference Report, 1930년 4월, 91쪽)

토론

- 여러분에게는 어떤 활동이 가장 만족을 주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을 서로 토론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반원들이 어떠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조셉 필딩이 여덟 살이 되어 침례를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물문경을 선물했다. 그 당시 돈이 없었기에 아버지가 사주신 물문경은 할인해서 싼 값에 파는 결손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 필딩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내가 아론 신권도 받기 전인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내 손에 물문경을 쥐어 주시고 그것을 읽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 니파이의 기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온 힘을 기울여 실행했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많은 구절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스미스와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7쪽)

2년 후, “열 살쯤 되던 해에 그는 물문경을 두 번이나 읽었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57쪽)

토론

- 선지자로부터 물문경을 읽을 것을 요청 받은 일이 있는가? 다 읽어 보았는가? (아니라면 스미스 회장의 모범을 따라 물문경을 읽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보도록 제안한다.)

어렸을 때 조셉 필딩은 경전 읽기를 너무도 좋아해서 때때로 일찍 공놀이를 그만두거나 해야 할 일들을 서둘러 마치고 경전 공부를 하러 가곤 했다. 부친의 서재에서나 건초 다락, 또는 나무 그늘, 아니면 그가 서기 일을 보던 백화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가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모습이 자주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제가 읽고 쓰는 것을 배운 후부터 행한 일 중 하나는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칠드린스 캐치즘(복음 교리를 설명했던 교회 초기 간행물)과 복음에 관한 초등학교 책을 읽고 암기했습니다. 후에 저는 *밀레니얼 스타* 등에 기록된 교회 역사를 읽었으며 또한 성경, 물문경,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 그 밖에도 손에 들어오는 책들을 읽었습니다.”(맥콩키, *True and Faithful*, 69쪽)

토론

- 오늘날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와 같은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아니면 너무 책만 알며 광신적이라고 놀림을 받겠는가? (반원이 답한다)
-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함께 하던 공놀이나 활동을 그만두고 경전을 공부하러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을 최우선에 둘 때 우리는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어떻게 우리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모범을 따라 경전을 공부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을까? (반원이 답한다)

경전 공부를 통한 준비와 근면의 대가로 조셉 필딩 스미스는 위대한 저술가이자 경전 학자가 되어 많은 교회 회원들의 삶에 축복을 주었다. 그의 글과 연설을 담은 책과 팸플릿이 적어도 25가지 이상 출판되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졌다. 그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에 있는 약속, “그대는 누구보다도 경전을 잘 해석하는 은사를 받게 될지이다”라는 말이 실현되었던 것이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6쪽)

우리 삶에 도움과 축복이 되는 경전 공부

활동

반원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주며 각자 표준 경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1953년에 스미스 회장은 교회 잡지인 *Improvement Era*의 한 칼럼을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경전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을 거의 14년간 계속했다. 그 중 상당수의 질의 응답이 *교리 문답(Answers to Gospel Questions)*이라는 이름의 다섯 권짜리 책으로 묶여 출간되었다.

오늘 여러분도 교리 문답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경전을 사용하여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질문에 대해 간략한 답을 찾아 적어 본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적는다.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으면서 여러분은 힘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며 조셉 필딩 스미스의 능력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반원들이 스스로, 혹은 친구에게서 나온 의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원들을 잘 안다면, 교사 자신이 반원들에게 적합한 질문을 정할 수도 있다. 다음은 단순한 제언일 뿐이다. 1. 경전은 수백 년 전에 씌어진 것인데 왜 오늘날 그토록 중요한가? 2.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는 비회원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가? 3.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앞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나는 어디에서 이 징조들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

반원들이 경전과 경전 안내서를 탐구한 후 몇 사람의 답을 듣고 그것을 반원들과 함께 토론한다.

다음은 제언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는 성구들이다.

1. 오늘날 경전이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 1:8; 마태복음 22:29; 요한복음 5:39; 니파이후서 32:3; 교리와 성약 1:37.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모습이신가? 창세기 1:26~27; 출애굽기 24:9~11; 33:11, 20[조성 33:20], 23; 누가복음 24:36~39; 요한복음 14:9; 교리와 성약 130:22
3. 재림의 징조: 몰몬서 8:26~32; 교리와 성약 43:20~25; 교리와 성약 45:21~52.

우리의 의문을 풀어 주는 경전

경전은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경전 공부가 스미스 회장의 생애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조언을 들으며 그가 경전 탐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축복이 몇 개인지 알아본다.(다음을 읽는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 부과하신 책임 중 하나는 경전을 탐구하고 지식의 보고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침례를 받고 확인 의식을 받았다 해도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 진리에 무지하며 주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과 부도덕한 자들의 기만과 유혹에 자신을 내놓아 어리석은 금단의 길로 이끌려 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쌓아 올릴 기초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Improvement Era, 1964년 3월호, 159쪽)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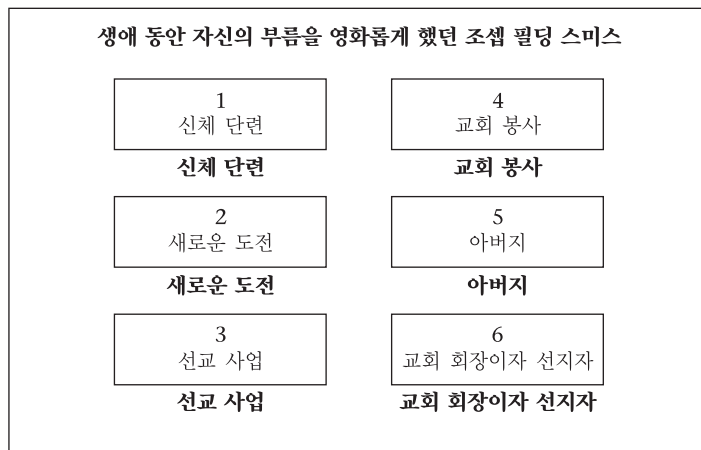
- 선지자 조셉 필딩 스미스는 경전을 탐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가? (지식의 보고, 성신의 보호와 인도, 신앙의 기초)
- 경전을 탐구하지 않을 때 처하게 되는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혹, 영이 떠나감, 기만, 금단의 길로 이끌려 감 등)

간증 및 목표

경전을 탐구하며 스미스 회장처럼 경전 연구가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아울러 경전이 구주의 말씀을 담고 있음을 간증하고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경전이 주었던 축복을 말해준다. 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전을 읽도록 목표를 준다.

목적 반원들이 조셉 필딩 스미스가 복음 원리대로 가르치고 생활하여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충실했고, 부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소망을 갖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그림을 준비한다.
 2. 돋보기를 준비한다. 준비가 어려우면 돋보기 사용을 가장하기 위하여 종이로 돋보기 모양을 만들어 가져온다.
 3. 공과 중에 반원들은 돋보기를 사용하여 칠판에 붙여진 여섯 개의 카드에 적힌 글씨를 읽게 될 것이다. 여섯 개의 카드 (8×13cm 혹은 10×15cm)를 준비하여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각에 글씨를 적어 넣는다. 글씨 크기는 칠판 바로 앞줄에 앉은 반원이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아야 한다. 카드를 붙일 접착제는 칠판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공과 전에 미리 준비해 둔다. 마지막 칠판 모습은 아래 예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4. 공과 중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과 비행기 그림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조셉 필딩 스미스” 편을 보여준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조셉 필딩 스미스의 그림을 보여 준다.

선지자의 말씀이 때로 너무 근엄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신도 매우 준엄한 인물로 보일 때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오염된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는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신앙과 겸손, 그리고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선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손수 쓰신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실물 공과 및 토론

물체를 크게 보기 위해서 물체에 더 가깝게 가거나 돋보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역자 주: “영화롭게 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magnify*인데, 이 단어에는 “확대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다.(반원 한 사람을 지명하여 교리와 성약 84편 33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

-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부름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탁월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부름을 빛내는 것, 부름을 더욱 충실히 잘 수행하는 것)

칠판 및 토론

- 돋보기가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를 나타내는 좋은 상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미스 회장은 생애 동안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을 칠판 위에 적는다. 준비 부분에 있는 칠판 그림 예를 참조한다. 아울러 다음 활동을 위한 카드 배치에 유의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를 확대시켜 봄

칠판 활동

이 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활동을 하기 전에 미리 몇 차례 연습해 봄으로써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카드 1. 신체 단련을 칠판 왼쪽에 붙인다. 반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돋보기를 사용하여 카드에 쓰여진 것을 반원들에게 읽어 주게 한다. 그 반원이 카드의 내용을 읽은 후에 반원들에게 다음을 말해준다.

스미스 회장은 젊은 시절 운동을 즐겼다. 그는 자신의 온 생애 동안 계속해서 많은 운동을 했으며 자녀들에게도 사냥을 제외한 모든 운동을 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수영을 무척 잘했으며 집에는 테니스 코트와 편자 던지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미식 핸드볼(역자 주: 단단한 작은 공을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벽에 던져 튀어나오는 것을 상대방에게 받게 하는 경기)을 즐겼고 선수나 다름없이 잘했다.

언젠가 그는 두 아들에게 핸드볼 시합을 하자고 했다. 그가 어떤 손으로 할 것인가를 아들이 정하게 하고 다른 손은 등 뒤로 돌리고 한 손만으로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가 이겼다. 유타 주 주지사를 지냈던 허버트 비 마우는 스미스 회장보다 20세 연하인데, 자신이 스미스 회장과 했던 핸드볼 시합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이 노신사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니 너무 큰 점수로 이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평생 제일 큰 점수 차로 경기에서 졌을 때 제가 얼마나 원통해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핸드볼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결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2년, 15쪽] 스미스 회장은 70세가 다 되어서야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핸드볼 시합을 멈추었다.

굵은 글씨로 카드 1 아래에 신체 단련이라고 쓴다.

카드 2. 새로운 도전을 카드 1의 굵은 글씨 바로 밑에 붙인다. 또 다른 반원 한 명을 나오게 하여 돋보기를 가지고 카드 2에 씌어진 글을 반원들에게 읽어 주게 한다.

다 읽으면, 반원들에게 다음을 설명한다.

스미스 회장의 자서전 작가 중 한 사람이기도 한 존 제이 스투어트는 스미스 회장과 관련하여 다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스미스 회장과 비행기 그림을 들고 반원들에게 다음 일화를 읽어 준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그의 비서인 루비 엑버트가 ‘이쪽 창가로 오세요, 혹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하여 창가로 걸어가 보았지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레이트 솔트 호반 위로 푸른 하늘을 질주하는 제트기 한 대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비행기는 하얀 연기를 뿜으며 상승, 회전, 하강, 공중제비 등 갖가지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님은 저기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라고 비서는 싱긋 웃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경전에 이르시대 후기에 하늘에 연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 비행기를 타고 계시단 말입니까?’ 라고 나는 못 믿겠다는 말투로 물었다.”

“‘예, 바로 그분이십니다. 회장님은 비행을 무척 좋아하세요. 기분 전환이 되신다고 해요. 경비 사령부에 계신 친구분이 전화하여서 기분전환 좀 할까, 하시면 두 분은 함께 올라가십니다. 일단 공중에 오르면 종종 회장님이 조종하기도 하십니다. 지난 주에는 그랜드캐니언에 다녀오셨는데 시속 640킬로미터로 비행하셨다니가요!’”

“나는 그가 착륙하기로 예정된 비행장에 가보지 않을 수 없었다. 2인승 제트기가 활주로를 따라 착륙 지점까지 달려 내려오고 있을 때 비행복과 헬멧을 쓴 80이 다 된 자상한 노신사가 뒷좌석에 앉아 웃고 있었다. ‘기분 최고였어!’ 라며 그는 소리쳤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늘에 가까이 온 것 같은 기분이야”(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투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2쪽)

“스미스 회장은 유타 주 방위군의 명예 준장이었다.”(에머슨 로이 웨스트, *Profiles of the Presidents*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0년], 250쪽)

조셉 필딩 스미스의 생애는 말과 마차 시대에서 시작하여 경이로운 성장과 발전의 시대인 제트 비행기 시대에까지 이른다. 스미스 회장은 93세에 교회 회장이 됨으로써 그의 축복사의 축복문에 적힌 ‘그러므로 네게 말하거니와 종종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에이 윌리엄 린트,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 *Improvement Era*, 1950년 4월호, 315쪽)라는 권고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역시 굵은 글씨로 카드 2 밑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쓴다.

카드 2의 굵은 글씨 바로 아래 카드 3, 선교 사업을 붙인다. 반원 한 사람을 나오게 해서 돋보기를 사용하여 카드 3에 적혀 있는 글씨를 읽게 한다.

앞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미스 회장 생애의 나머지 분야들을 설명해 나간다.

선교 사업

조셉 필딩 스미스는 1898년 4월 26일 로우이 셔틀리프와 결혼했다. 로우이 셔틀리프는 유타 주 옥든 출신인데, 유타 대학교를 다닐 때 스미스가에서 기숙하라고 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부친의 초청을 받아들인 일로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조셉 필딩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결혼 1년 만에 신부와 작별을 고하게 되었다. 아내와 떨어져 있게 되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 자체도 큰 모험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저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내쫓았으며, 거리 모퉁이에 서 있으면 그들은 폭도로 변하여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우리에게 던졌습니다.”(윌포드 스테이크 캔우드 제2와드에서 전한 말씀, 1960년 6월 2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예롭게 선교 사업을 해냈다.(또한 스미스와 스투어트, “Mission to England”,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84-121쪽 참조)

교회 봉사

가족 역사 사업의 개척자: “조셉 필딩 스미스만큼 가족 역사 사업의 참뜻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유타 주 가족 역사 협회를 운영하는 원동력 역할을 했다. 조셉은 1907년부터 1922년까지 그 협회의 서기로 봉사했다. 그는 기록을 보존하고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동부 여러 주의 큰 도서관을 빠짐없이 방문하여 실용적이고 귀중한 제언들을 많이 수집하여 돌아왔으며, 유타 서사이어티는 그 제언들을 받아들였다. 그 중 하나가 가족 역사 잡지를 발간 해야 한다는 제언이었는데, 그 결과 스미스 장로는 1910년에 유타 주 가족 역사 및 역사라는 신간 잡지의 편집인이자 경영인으로 선출되었다.”(조셉 필딩 맥쿱기, *True and Faithful*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1년], 38쪽)

역사가: 1901년 조셉 필딩은 선교 사업을 다녀온 직후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906년에는 동 위원회의 부 편찬 위원이 되었다. 이후 1921년부터 그는 1970년에 아흔 넷의 나이로 교회 회장이 될 때까지 교회 역사 편찬 위원을 지냈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투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123, 359쪽 참조)

사도로 부름받음: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을 받은 것은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그가 1910년 4월 대회 마지막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성전 정문을 들어서려는데 수위 한 사람이 그에게 ‘저, 오늘 십이사도 평의회 공석에 누가 부름을 받게 됩니까?’ 라고 물었다. 조셉 필딩은 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저도 아니고 형제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그는 모임 장소로 들어가 그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아버지(당시 아버지는 교회 회장이었다)는 개회를 선언하고 개회 찬송을 발표했다. 다음에는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일어나서 지지를 묻기 위해 총관리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새로 성임될 사도의 이름이 발표되기 바로 30초 전에 조셉 필딩은 갑자기 바로 자기가 그 사도의 직에 성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 당시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의 생각은 맞았다.” (*True and Faithful*, 35쪽)

그는 거의 60년 동안 이 직책에서 많은 책임을 완수하고, 교회 회장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전세계를 여행하면서 훌륭하게 봉사했다.

아버지

스미스 회장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아버지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마련했다. 불행하게도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로우이는 두 어린 딸을 남겨 놓은 채 결혼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에텔 레이날드를 만나 1908년 11월 2일 재혼했으며 5남 4녀의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 1937년 8월 26일 그는 또 한 번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을 맛보아야 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그는 축복을 받아 제시 에반스를 만났고 1938년 4월 12일 사랑과 행복 속에서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반원(가능한 한 자매)에게 조셉의 부인이었던 에델의 다음 찬사를 소리내어 읽게 한다.

“여러분은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만약 그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참으로 선량하고 성실하며, 정통적인 분이라는 등의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공적으로 알려진 대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친절하고 깊은 사랑을 가진 남편이며, 그의 생의 가장 큰 야망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가시게 구는 아이를 달래어 재우고, 꼬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밤 늦게까지 앉아 있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큰 아이들의 어려운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그분은 괴로워하는 아이를 다정하게 보살피고 시중을 드는 분입니다. 아이들은 그분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는 것은 그분의 손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그분의 팔이며, 그분을 기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될 때까지 그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가장 온화한 분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느끼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찾아가서 사랑의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젊은이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했으며, 그들과 함께 그날의 이야깃거리나 스포츠, 또는 그들이 흥미를 갖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 그분이 행복해 보이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즐겨 하는 해학가이며, 웃거나 웃기기를 잘 하며 어떤 활동이건 건전한 활동이라면 기꺼이 참여하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사심이 없고 불평을 하지 않으며 동정심이 많고, 생각이 깊으며, 인정이 있는 분으로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즐거운 생활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제가 아는 그분입니다.”(*True and Faithful*, 83~84쪽)

교회 회장이자 선지자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그 책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사도-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로서 보낸 60년과 교회 회장이자 선지자로서 지낸 3년 동안 그는 교회 회원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과 글로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것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생활하기를 촉구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이 설교를 했으며 25권 이상의 저서를 출간했다.(일부는 그의 사후 출간됨) 그는 참으로 귀한 많은 시간을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는데 사용했다.

소년 시절 그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래도록 살며 그대가 이스라엘의 힘센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또한 그대가 형제들과 더불어 평의회에 들며 백성들을 감리함은 그대의 책무일 것이요, 그대는 진실로 백성 사이에 선지자요 계시자로 설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대를 축복하셨으며 이 부름에 그대를 성임하셨음이라.” (스미스와 스투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vii쪽)

그가 감리했던 십이사도 평의회에서는 그가 팔순이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찬사를 그에게 선사했다. “그의 영도 하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해 있었던 우리는 그의 품성에 내재된 참된 고결함을 엿볼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오직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영혼이 주는 부드러움과 불행과 좌절 속에 빠진 이들의 복지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결코 죄인을 위한 기도를 그친 적이 없었다.”(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와 존 제이 스튜어트, *Life of Joseph Fielding Smith*, vii쪽)

토론

-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는가? (반원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평가하도록 한다. 다음 목표를 읽어주며, 반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각자가 앞으로 맡게 될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간증 및 목표

반원들에게 각자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목표를 주며 조셉 필딩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전파하는 자신의 부름에 충실했음을 간증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하고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간증한다. 아래에 적혀 있는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간증을 읽어준다.

비디오 간증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제6편 조셉 필딩 스미스의 간증(1분 47초)을 보여준다. 비디오를 구할 수 없으면 다음 간증을 읽어 준다.

“저는 주님의 사업을 할 때 기쁨을 느끼며, 또한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거룩하며 확고한 지식으로 기쁨을 갖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이 세대의 머리로 세우셔서 지상에 다시 한 번 교회, 곧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참됩니다.”



WARNING
BEFORE REMOVING SEAT
INITIATOR SAFETY PIN MUST BE IN PLACE
CORRECT PLUGGING TO BE CATAPULT
INITIATOR SAFETY PIN MUST BE IN PLACE
CHECK IN INITIATOR FILING PIN

WARNING
PRESS MUST BE
HOLDEN IN USE

U.S. AIR FORCE

DOWN TO
15000 FEET
CLE

WARNING
THIS AIRCRAFT CONTAINS A SEAT
EJECTION CATAPULT CONTAINING
AN EXPLOSIVE CHARGE. SEE
T. O. NO. 39B-600-1 FOR COMPLETE
INSTRUCTIONS

WARNING
THIS AIRPLANE CONTAINS A
REMOVER CONTAINING
EXPLOSIVE CHARGE

EXTERNAL CAP

목적 반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느낌을 전함으로써 평안을 찾고 더욱 자주 기도를 드리게 한다.

준비사항

1. 기도하는 어린 소녀(62310)의 그림을 준비한다.
2. 반원들이 몰몬경을 지참하게 한다.
3. 실물 공과를 위해 도미노(도미노를 할 수 없으면 다른 것도 가능함) 몇 개를 준비한다. 첫 번째 도미노에 기도라고 쓴 견출지를 붙인다. 다른 도미노에는 증오, 분노, 교만, 이기심, 탐욕, 부정직 등과 같은 단어를 쓴 견출지를 붙인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한 수의 도미노에 단어를 붙여 사용한다. 기도라고 써 붙인 도미노를 제외한 나머지 도미노의 이면에는 각 도미노에 붙인 죄의 반대되는 개념을 써 붙인다. 예를 들어 증오의 맞은 편에는 사랑을, 분노에는 오래 참음을, 교만에는 겸손, 이기심에는 이타심, 부정직에는 정직을 붙인다.
4. 다음 문장들을 적은 각각의 문장 카드를 만들거나 또는 그 문장들을 적은 포스터를 만든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참된 기도의 깊이로 따라 사람은 진정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닐 에이 맥스웰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교리와 성약 88:63)

5. 아래와 같이 세 단어를 적은 낱말 피를 가져 온다.

왜?

어떻게?

무엇을?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실물 공과

기도는 도미노 더미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단어를 써 붙인 도미노, 혹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일렬로 나란히 옆으로 세우되, 기도라고 써 붙인 것을 여러분의 바로 앞 쪽에 두고 나머지 도미노들은 죄목을 쓴 쪽이 반원들에게 보이게 하여 가지런히 기도 도미노 뒤에 세운다. 기도라고 쓴 도미노를 반원들 쪽으로 밀어 나머지 도미노들을 넘어뜨린다. 쓰러져 뒤집힌 도미노를 들어 올려 그 뒤집힌 쪽의 단어를 반원들에게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기도가 교만을 밀어 넘어뜨리면 겸손이 나타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가 넘어뜨린 모든 죄목을 밝혀 그 결과를 반원들에게 보여 준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낱말 띠

“왜?” 라고 쓴 낱말 띠를 붙인다.

-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반원들에게 공과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림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소녀의 그림을 보여 준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자녀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게 될지 아셨음이 분명하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주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으로 주신 지침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매리온 지 롬니,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Prayer*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7년], 16쪽; 또한 모세서 5:4~6 참조)

하나님 아버지의 지침은 지금도 아무 변함이 없다. 함께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을 읽고 토론한다.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만일 너희가 올바르게 걸으며 너희가 서로 성약을 맺은 그 성약을 기억할진대,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

-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반원들의 답을 들으면서 그들의 결론을 모든 일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대답으로 이끈다. 교리와 성약 59:21 참조)
-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반원들이 답하기를 수줍어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원들의 재능 몇 가지를 지적한다.)
-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그 재능을 훌륭히 발전시켰는가? (연습을 통해서,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포스터 또는 낱말 띠

포스터 또는 낱말 띠를 든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라고 쓴 낱말 띠를 붙인다.

토론

-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반원들의 답변을 들은 뒤, 다음 글을 읽어 준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드완 제이 영 자매는 간단한 기도의 네 단계를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와 말하는 것 못지 않게 들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여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주님을 공경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동안 눈을 감는 일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경건한 태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감사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큰 절망에 빠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어느 것에 대해서든 감사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간구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 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십시오. 니파이가 했던 것처럼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기도의 네 번째인 마지막 단계는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101~102쪽)

칠판

다음은 칠판에 쓴다.

기도의 네 단계

1. 경건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름
2. 감사를 드림
3. 필요한 것을 구함
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침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엠올레크는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앨마서 34:27)고 말씀했다.

우리는 주님께 개인적으로 치부를 밝히는 것을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다. 어떤 때에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소리쳐 시인하고,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고통을 고백하는 것은 효과적인 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 왜 그것이 효과적이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답변할 시간을 준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실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쉽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은 종종 매우 겸손하며 우리가 가르침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회개와 변화가 온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포스터 또는 낱말 띠

포스터 또는 낱말 띠 2를 든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참된 기도의 깊이에 따라 사람은 진정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말씀했다.(“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Prayer*, 52쪽)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날말 띠 또는 토론

“무엇을?”이라고 쓴 날말 띠를 붙인다.

-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우리는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반원들을 이끈다.)

성구 토론

다같이 엘마서 34장 17~27절을 읽는다.

몰몬경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성구가 있다.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제3니파이 18:20)

우리가 기도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답변하실지는 그분의 숭고한 지혜에 달려 있다. 답변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9:7~9 참조)

포스터

포스터 또는 날말 띠 3을 든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교리와 성약 88:63)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은 노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는 것, 속삭이는 것, 또는 부르짖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나 환경이 소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생각”도 기도가 될 수 있다. 기도는 “도와 주소서!”와 같이 짧게 할 수도 있고, 이노스의 기도처럼 밤이 되도록 온종일 할 수도 있다.(이노스서 1:4 참조) 우리는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병원에 있을 때 등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말없이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필요성은 어느 때에든지 생길 수 있다. 기도를 해야 할 때,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기도는 *귀하면서도 강력*한 것이다.

드완 제이 영 자매는 기도에 대한 간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자주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의 권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다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간증드립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102쪽)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이 각각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한다.

해롤드 비 리: 평생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

제 35 과

출생: 1899년 3월 28일 회장 재임 기간: 1972~1973년

목적 해롤드 비 리 회장이 평생 동안에 보여준 힘은 성령에 귀 기울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반원들이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해롤드 비 리” 부분을 보여준다.
 2. 교재 끝에 있는 해롤드 비 리의 그림을 준비한다.
 3. 반원들이 잘 아는 귀환 선교사에게 부탁하여, 공과 시간에 성신에 관한 짧은 영적인 말씀을 하게 하거나, 시간이 안될 경우 녹음기에 그의 말씀을 녹음해 온다. 성령이 어떻게 그를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도록 부탁한다.(본 활동 및 초대될 귀환 선교사에 대해서 감독 혹은 지부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토론

반원 한 사람을 불러 내어 다음 질문에 답하게 한다.

- 여러분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을 세차게 밀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 그 세차게 밀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리 회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 집이 있는 산 근처에 극심한 뇌우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인지 세 명이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형제들이 문간의 조리실에 앉아 열린 문 너머로 자연이 펼치는 멋진 볼꽃 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번개불이 번쩍하고 빛나면 곧바로 천둥이 큰 소리로 치는 것으로 보아 번개가 바로 집 주변에서 내리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문간에서 이리저리 놓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세계 밀어 그만 문밖에 나동그라졌다. 그 순간 조리실 난로 굴뚝으로 벼락이 떨어져 조리실의 열린 문을 타고 나가 집 앞에 선 큰 나무를 단번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놓았다. 어머니의 직감적인 행동이 없었고, 열린 문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나는 오늘날 이 이야기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 설명하실 수는 없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충동적이고 영감적인 성격 덕분에 내 생명을 건졌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 고향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새겨진 깊은 흉터를 보았을 때, 나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어머니께, 나아가서 신앙을 가진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풍성하게 부여하신 주님의 귀한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을 통해 우리는 필요한 때에 하늘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엘 브랜트 고오츠,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5년], 41쪽)

성신으로부터 인도와 힘을 얻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목적임을 명심하며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 여러분이 밤 늦게까지 밖에 있게 될 경우 부모님은 왜 여러분이 귀가할 때까지 근심하신다고 생각하는가?
- 자녀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들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 보통 감사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은 영감을 받아 자녀를 인도한다. 그러나 부모가 영감을 받을 때조차도 자녀들은 때때로 반항하곤 한다.(교사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성구 토론

- 반원들 중 누구라도 성령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발표하게 한다.(발표를 원하는 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다음 성구를 읽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교리와 성약 6편 14절

- 젊었을 때 성령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특별한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그림

해롤드 비 리의 그림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11대 회장인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생애를 자세히 배울 것이다. 그의 특별한 성품 중 하나는 성령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었다.

리 회장의 어린 시절

토론

그는 17세 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18세 때에는 다른 초등학교의 교사이자 교장이었고, 21세 때에 선교사, 24세에 결혼, 28세 때에 고등학교의 교장, 31세가 되어서는 스테이크 회장을 역임했고, 그 밖에 세미나리 교사, 솔트레이크시티 행정 위원,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경영 책임자 등과 사도의 부름까지 42세가 되기 전에 이 모든 부름을 두루 역임했다.

- 해롤드 비 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기회와 축복이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통 없이도 그에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반원이 답한다.)

초청 연사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의 허락을 받았다면, 초대된 귀환 선교사에게 성령에 관해 간단히 말씀하도록 부탁한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젊은이에게 영향을 준 리 회장

이야기

리 회장의 생애에 있었던 다음 경험을 읽어 준다.

“1969년 12월 5일, 유타 대학교 내에 있는 종교 교육원 건물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아주 특별한 모임을 기대하며 모여 있었다. 리 장로는 하나님께서 실재하심을 이 청년들이 알도록 이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리 장로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교리와 성약 115편 5절,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구절에서 주제를 택하여 왕국에 대한 힘있는 설교를 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진정한 현대의 기적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신권의 권능에 대해 간증했고, 영적인 부름과 그에 따른 임무 수행, 영원한 원리 등을 설명하며, 동시에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가 발휘하는 힘에 대해 예를 들며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관련 성구를 들어서 설명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그의 설교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상당히 바뀌었다. 리 장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는 단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단을 양손으로 힘있게 잡았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위를 쳐다 보았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리 장로가 상당한 감정과 확고하고 열렬한 진리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을 하며 말씀을 끝낼 때 모임의 분위기는 갑자기 변했다. 그는 지상에서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말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늘의 창이 열린 듯했으며 구주의 영이 전 회중 위에 흘러 넘쳤다.”

“모임은 아름다운 노래와 학생 지도자 한 사람의 뜨거운 기도로 마쳐졌다. ‘기도가 끝난 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행스 장로는 단으로 돌아가 영적인 권능의 물결이 청중 위에 임해 있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행스 장로는 그 다음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정적이 흐른 뒤 나는 청중을 향하여 고개를 끄덕인 다음 리 장로님 내외를 모시고 건물 단상 아래로 내려섰다. 리 장로님 내외는 줄지어 서서 절대적인 침묵 속에 대개 눈물 흘리고 있는 젊은이들과 악수를 했다. ‘흥미있는 것은 20분도 더 지속되는 침묵의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르기 시작했으나 몇 사람만이 그에 가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소절이 지나더니 노래가 그쳤다. 찬송가 조차도 도도한 영의 영향력 하에서는 방해가 될 뿐이었다.’”(엘 브렌트 고오츠,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392~396쪽)

이야기

글을 잘 읽는 반원에게 다음 일화를 읽게 한다.

리 회장은 타계하기 전에 자신의 와드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다. “모임을 막 폐회하려고 할 때, 예배당 뒤쪽에서 간증 모임에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는 리 회장의 친절한 음성이 들렸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요 이웃이자, 제 와드의 가족 일원이시며, 제가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는 교회의 회원이신 여러분, 여러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무언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를 방해하는 것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자 구속주이심을 여러분께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제가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말씀, 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이 말씀을 덧붙였다.”

“‘저는 또한 사탄이 살아 있으며 인간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을 여러분께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으면 그는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에 도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과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편에서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엘 브렌트 고오츠,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564쪽)

성구 토론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오늘날이 위험한 시대임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복음이 참됨을 알았으며 사탄이 이에 대항하여 전력을 다해 싸우려고 함을 알았다.

니파이후서 28장 20~21절을 읽고 토론한다.

리 회장은 복음이 오늘날 악에 대항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밀접하게 살게 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비디오 간증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제7편 해롤드 비 리의 간증(1분 39초)을 보여준다. 비디오를 구할 수 없으면, 간증과 권유로 공과를 마친다.

“해롤드 비 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 미덕에는 그의 영성,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번뜩이는 영감과 이해의 빛을 얻는 그만의 특별한 능력 등이다.”(엘 브렌트 고오츠,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462쪽)

간증 및 목표

반원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작용했던 경우를 찾아보게 한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기도와 금식, 경전 공부 등을 통해 성령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목표를 준다.

성령이 어떻게 삶에 도움을 주는지 교사의 간증을 전한다.

첫째, 지도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늘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64편 33~34절을 읽는다.

둘째, 지도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읽고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겸손, 동정, 순종, 사랑, 신권의 힘을 통하여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121편 36, 41~43절을 읽는다.

-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기술(방금 읽은 성구를 기억한다)이 필요한가? (겸손, 동정, 순종, 사랑, 신권의 힘) 해롤드 비 리는 그와 같은 자질을 지닌 지도자였다.

그림

해롤드 비 리의 그림을 보여준다.

이야기

해롤드 비 리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

1930년대, 리 회장이 솔트레이크시티의 파이어니어 스테이크 회장으로 있을 당시였다. 그곳에는 가장이 실직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4,800명이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 당시 저는 시 위원이었습니다. 성탄절 전야 하루 전에 폭설이 와서 밤새 거리에서 눈을 치웠습니다. 제 직원 중 누구라도 일을 못하면 그 일은 저의 책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치우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 입고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마을로 돌아 오는 길에 지나가는 빈 차를 타려고 길에 서 있는 작은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코트와 장갑과 덧신도 없이 추위에 떨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무료 영화를 보려고 마을로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도 마을로 가니 함께 타고 가자’ 고 했습니다.”

“‘애야’ 제가 말했습니다. ‘성탄절 준비는 했니?’”

“‘집에서 성탄절을 지내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께선 엄마, 저, 그리고 어린 동생을 남겨 두고 세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12세 미만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의 히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애야, 네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렴. 그러면 누군가 네 집을 방문할 게다. 그러면 성탄절 전야를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모든 감독에게 각 가정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감독의 보고를 기다리다 갑자기 그 소년의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바빠서 작은 소년과 한 약속을 잊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감독이 보고하자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정에 줄 물건이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해 주고 그의 주소를 주었습니다. 후에 그 가족 역시 잘 마련된 선물 꾸러미를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성탄절 이브는 저물어 갔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성탄절 아침에 일어난 후, 제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한 해가 지났지만 지도자로서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게 되었구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길 것이고, 내 지도력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겠지.’”(해롤드 비 리,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346~347쪽)

토론

여기에서 리 회장이 보여준 지도력의 특성은 어떤 것이었는가? (앞에서 살펴 본 지도력의 특성들을 상기시킨다.)

발표

지명받은 반원에게 리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했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의 다음 이야기를 하거나 읽게 한다.

“그분은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창세기 3:19) 먹을 것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회원들이 그들의 노력이나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 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브리검 영처럼 대담무쌍한 지혜와 용기로 용감하게 대처해 나가셨습니다.”

“하늘의 빛에 인도되는 가운데 건축 사업, 제조 사업, 그 밖의 여러 가지 재건 활동을 통하여 그분은 이웃에게 그 어느 세대도 견줄 수 없을 만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했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그분 역시 가난한 사람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롤드 비 리는 그분의 스테이크 회원들에 대한 봉사의 경험으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서 폭넓은 봉사를 위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1935년 4월 20일, 저는 제일회장단의 사무실로 불러갔습니다. 당시 이(복지 사업) 프로그램에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을 떠나 시티크리크 협곡을 향하여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갈 수 있을 때까지 운전을 한 후 차에서 내려서 나무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완전한 조직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봄날 오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주신 가장 위대한 조직을 보여 주셨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일을 위한 조직을 세우는 것밖에 없으며 후기 성도들의 세상적인 복지는 보호될 것이라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조직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조직입니다.”(매리온 지 롬니, “전능하신 자의 그늘 밑에서”, *Ensign*, 1972년 2월호, 96쪽)

- 성공적인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신권과 신권의 권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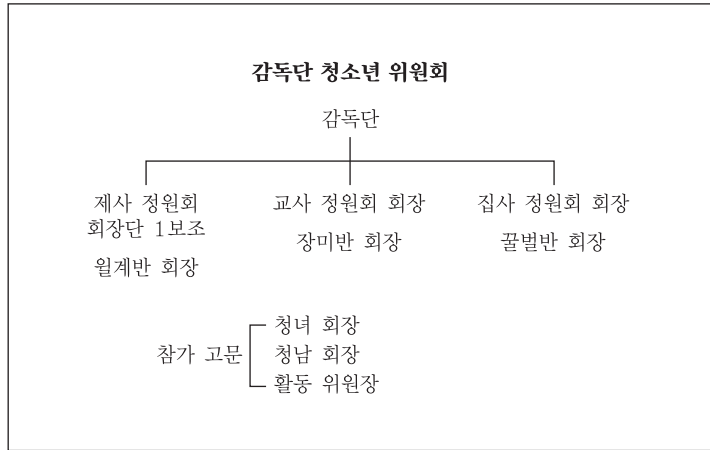
주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상호 관련 짓는 일에 훌륭한 도구로 쓰인 리 회장

오늘날 교회의 협의 프로그램은 해롤드 비 리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시작된 것이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지시 하에 제일회장단은 협의 프로그램을 관할할 협의 집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리 장로를 위원장으로 불렀다. 협의 집행 위원회의 조정 아래서 모든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신권 지도자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보조 조직 또는 정원회의 모든 공과 및 자료들은 불필요한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중복이 없도록 계획되었다. 교육 자료들은 중요한 개념들이 적절한 반에서 조직적으로 가르쳐지고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리 회장의 협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는 교회 회원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칠판 및 발표

-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는 무엇인가? (미리 지명 받은 반원에게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의 역할과 또한 그 안에서의 자신의 할 일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어떻게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가 신권 협의 프로그램의 일부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칠판에 아래 도표를 그린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버트 피 백맨 장로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해롤드 비 리 회장께서 저를 아론 신권-상호 향상회 회장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그분과 무척 흥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은 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성장하여 가면서 겪는 도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부 젊은이들이 초등학교와 주일학교, 상향회, 신권 정원회, 세미나리에 참석하고도 아무런 간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아시오? 그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관자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분은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과제를 주셨으며, 저는 많은 경우를 통해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그 목표를 전해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브, 나는 자네에게 이 세대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목표를 주겠네.’”(엘 브랜트 고오츠, *Harold B. Lee, Prophet and Seer*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5년], 504~505쪽)

토론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는 리 회장이 백맨 장로에게 준 목표를 이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반원이 답한다.)

- 그것은 교회 협의 프로그램 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모든 활동은 교회 신권 정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 그것은 교회 회원들이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교회는 장래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간증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에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미래를 위한 값진 지도력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해롤드 비 리 회장이 교회에 기여한 주요한 공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리 회장에 대해서 배운 두 공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제언한다. 답으로는 1 영성, 2 지도력, 3 복지 사업에 기여함, 4 협의 프로그램에 기여함 등을 들 수 있다.)

간증 및 목표

이러한 원리들이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리 회장이 우리가 구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참으로 큰 역할을 했음을 간증한다. 반원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준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연단하는 자의 불 속에서 성장함

출생: 1895년 3월 28일 회장 재임 기간: 1973~1985년

목적 역경은 종종 남녀 모두에게 가장 감미롭고 정결한 특성을 갖게 해주며 남에게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줌을 배우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그림을 준비한다.
 2. 에드워드 엘 김볼과 앤드류 이 김볼 2세가 쓴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문을 읽어 줄 수 있다.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 1977년)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스펜서 더블류 김볼” 부분을 보여준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역경에 찬 삶을 사는 동안,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197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윌리엄 더블류 뱅거터 장로가 한 말씀의 일부를 읽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간증과 복음의 진보에 크게 기여한, 교회 역사에 빛날 특별한 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분들이 그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했기를 바랍니다. 바로 1974년 4월 4일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1973년 1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께서 바로 그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리라고는 알았지만 그 일이 그분에게 그리 쉽지 않을 것이며 사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볼 회장님이 일어나 참석하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직책을 맡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리 회장님의 서거를 애석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난 해에 리 회장님이 지시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김볼 회장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길지는 않았지만, 김볼 회장님이 말씀하는 동안 회중들은 문득 전혀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전에 가졌던 모임과 전혀 다른, 특이하고 강력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으로 말씀하는 것과 같아서,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생기를 되찾게 되었고, 우리의 귀에 울려오는 초월적인 메시지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볼 회장님이 자신과 함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자고 손짓해 부르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전능자의 목적을 볼 수 없게 가렸던 휘장을 걷어내어, 우리에게 복음의 운명과 그 사명의 시현을 함께 보자고 권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님의 영이 김볼 회장님에게 임했고, 그로부터 명백한 실체로 우리에게 전해져, 즉시 우리는 감동과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시현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주 당시에 사도들이 행한 성역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와 똑같은 사명이 조셉 스미스가 이끈 사도들에게도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진해 나갔으며, 큰 권능에 힘입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신앙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지 못한 까닭을 지적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실 그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향도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표어가 된 “걸음의 폭을 넓히시다.”(Ensign, 1974년 10월호, 5쪽)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 때였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다른 메시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에 문호를 개방합시다’, ‘멕시코, 남미, 일본, 영국,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냅시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는 불안을 주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시현이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한 시간 십 분 동안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돌아가시자, 그 뒤를 이은 브리검 영이 나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1844년 8월 8일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피트버그에서 배도한 시드니 리그돈은 돌아와서 교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브리검 영이 일어나자,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변형되어 조셉 스미스와 같은 모습과 목소리였다고 많은 사람들은 간증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역사가 결정되었고, 1974년 4월 4일의 경우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김볼 회장님이 말씀을 마치자,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일어나 감동어린 목소리로 참석한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해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김볼 회장님, 여태까지 이러한 모임을 가진 이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우리는 전혀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회장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십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37~38쪽)

역경은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음

토론

- 그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원이 답한다. 정신적인 고통, 복음대로 살지 않는 가족, 경제적 파탄, 질병, 죽음 등이 나올 수 있다.)
- 왜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받을 때 어떤 긍정적인 성품을 얻을 수 있는가? (토론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며 시련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 참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성장과 긍정적인 결과는 다음 두 성구를 읽은 후에 토론한다.)

- 이 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성품이나 유익은 어떤 것인가? (지구력, 경험, 인내심,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음, 겸손, 주님께 의지함)

김볼 회장을 단련시키고 강화시켰을 고통과 비애

토론

- 다음 사건들은 김볼 회장의 생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는가?
 1. 열 살 때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 했음.
 2. 열한 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음.
 3. 열세 살 때 장티푸스로 거의 죽을 뻔 했음.
 4. 스물아홉 살 때 부친을 여의었음.
 5.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지 5년 후에 심한 심장병으로 수개월간 활동하지 못함. (이러한 일은 정열적인 활동가이자 뛰어난 운동가이며, 강인한 사업가, 스테이크 회장, 나아가서 사도였던 사람에게는 특히나 어려운 것이었다.)
 6. 몇 년 후 그는 목에 생긴 암으로 고통을 당했다. 의사들은 그가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의 생애와 사도로서의 봉사에 중지부를 찍는 일이었다.(해롤드 비 리 회장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후에 김볼 장로는 수술을 받고 성대의 일부를 구할 수 있었다. 다시 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어렸을 때 살던 고향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동부에 있는 동안 “목을 따는 자들”의 수중에 떨어져 있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이러한 꾸밈없는 농담과 함께 그는 과거를 묻어 버리고 새로운 음성으로 삶을 시작했다. 노래는 부를 수 없지만, 메시지만큼이나 깊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7. 후에 그의 심장병이 재발하여 심장 개복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다시 한 번, 리 회장이 환자의 생명과 집도하는 의사를 위해 영감을 구하는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은 성취되었다. 회복이 급속히 이루어져 한 선지자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심방 개복 수술을 받은 지 2년 만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주님의 교회 회장이 되었다. 그는 거의 최근까지 팔목할 만큼 강인한 건강을 보이며 활동하다가 몇 년 전 점점되는 건강상의 악화로 정열적인 활동을 줄여야 했다. 그는 90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이야기

김볼 회장은 어린 시절, 농장에서 자라며 겪은 거친 삶을 통하여 후에 받은 많은 역경에 대비했다. 그의 아버지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는 단상에서 스펜서가 이번 가을 학기에 대학에 가지 않고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해버렸다. 순종심이 깊었던 김볼 회장은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스펜서는 대학에 진학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두 번의 여름 기간 동안 애리조나 주의 지방 낙농장에서 소젖짜는 일을 해 왔었다. 스펜서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된 일이었다. 그와 다른 소년들은 우유통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했던 뜨거운 물 때문에 손이 불었다. 밤낮으로 24마리 소들의 젖을 짜기 시작할 때, 연약해진 손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그의 손은 갈라졌다. 손가락은 부풀고 망가져서 피가 스며 나왔다. ‘참 많이 울었지요.’라고 그는 회상했다. 어떤 소년들의 손가락은 정도가 심해 손톱이 빠져 나갔고 팔 전체가 부어 올랐다. 어떤 소젖은 너무 딱딱해서 스펜서가 기억하기로 ‘그것은 마치 쇠막대기에서 젖을 짜는 것 같았다’고 할 정도였다. 그가 다른 소년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도시로 나갈 때에는 손가락이 심하게 썩어서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곤 했다.”(에드워드 엘 김볼 및 앤드류 이 김볼 2세, *Spencer W. Kimball*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7년], 70쪽)

낙농장에서의 경험은 스펜서에게 물론 영향권 밖의 세계, 즉 비회원의 세계에 접하는 첫 번째 주요 경험이였다. 스펜서와 그의 또래 친구인 벤 블레이크만이 성찬을 집행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젊은이들이었다.

“스펜서가 다니던 낙농장의 비회원 주인은 항상 입에 시가를 물고 있었다. 같이 일하던 한 회원 친구는 담배를 피웠고 교회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스펜서는 조지 리라는 좋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는 귀한 선교사였다. 두 명의 거친 소년 또한 같이 일했다. 한번은 그 중에 한 명이 손수건에 만 쇠 나사로 조지의 머리를 내리쳤다. 스펜서가 조지를 찾아내었을 때 조지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소년들은 해고되었고, 스펜서는 ‘그 후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렸다’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회상했다.”

“때때로 스펜서는 조지가 우유 배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일했던 애리조나 주의 글로브는 무법 천지의 광산 도시였다. 도시의 불온 지역 또한 낙농장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는데, 스펜서는 그것이 마음에 거슬렸고, 그곳에는 꼭 가야 할 때만 조지를 따라 나섰다.”

“스펜서의 아버지는 스펜서와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스펜서가 선교사로 나가려 했을 때 즈음해서 특히 더 그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기도 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네가 없으니 참으로 쓸쓸하구나. 오랫동안 너 없이 지낸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도 때로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든단다. 앨리스(스펜서의 누이)를 유타에 보내고 또 너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따금씩 닥치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치르기에는 너무도 부담이 크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나 보내고 말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나의 감정을 잊는 일이다. 일,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지.’”(에드워드 엘 김볼과 앤드류 이 김볼 2세, *Spencer W. Kimball*, 70~71쪽)

토론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볼 회장의 생애와 그가 겪은 역경을 생각해 보게 한다. 자유롭게 반원들의 답변을 듣는다.

- 김볼 회장이 어려서 겪은 경험들 중 어떤 것이 뒤에 오는 역경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158~159쪽 참조)
-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 (이러한 경험들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을 다정하고도 정직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아버지는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아버지는 정직, 성실, 신앙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 이후에 그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지자로서 봉사하며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 남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것,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었다.)

역경을 이겨내어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김볼 회장

칠판

다음 업적들을 반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칠판에 적는다.

교회의 부름

1. 선교 사업
2. 스테이크 서기
3. 스테이크 회장
4. 사도
5. 교회 회장

실행한 프로그램 및 정책

1. 스테이크 회장에게 선교사를 성임할 권한을 줌.
2. 스테이크 회장에게 감독을 성별할 권한을 줌.
3. 교리와 성약에 세 편의 계시를 추가함.(137편, 138편과 교회의 합당한 모든 남자에게 신권을 부여할 것을 허락하는 공식선언-2)
4.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 의지를 표명함.
5.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를 없애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함.
6. 통합 주일학교 모임 계획을 수립함.
7. 후기 성도 판 영문 경전의 출판을 허가함.
8. 성전 건축 사업을 확대함.(그의 재임 기간 동안 스물한 개의 성전이 헌납되었음)
9. 선교 사업을 놀랍도록 확장시킴.(그의 재임 기간 동안 선교사 수가 배가 되었음)

김볼 회장에게 사도의 부름이 주어짐

김볼 회장은 주님의 사도라는 부름을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큰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 부름에 대한 염려로 그는 여러 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말씀했다.

그의 부름에 대한 발표가 있기 직전에 그는 주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산으로 갔다. 김볼 회장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의 연약함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그치지 않아 하염없이 흘러 넘쳤습니다. 저는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소리 높여 특별한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 부름을 요청한 적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 일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며, 비록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고 옳은 마음을 지녀 왔더라도, 그와 같은 고귀한 부름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남을 실족하게 한 일과 저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여러 경우에서 저는 도량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부름이 영감 받은 것이라는 확신만 선다면 대부분의 다른 걱정거리들은 사라질 수 있을 텐데 … 길이 험해지면서 저는 산길, 언덕길을 휘청이며 올라갔습니다. 더 가파른 길이 나오자 저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 기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받아들여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지팡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길을 더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거쳐 가신 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히버 시 김볼을 생각했습니다. 단 하나의 바람, 즉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왔던 것이 꿈이었을까요? 저는 몹시 지쳐 있었고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본 것 같았으며 그분이 이룩해 놓았던 위대한 일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현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새로운 경험 덕분에 저무는 바람처럼 평온이 찾아 왔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일어나서 바위로 가 앉았습니다. 눈물이 말랐으며 영혼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부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고요한 느낌이 저를 채웠고, 의심과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큰 짐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묵속에 앉아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며 주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확신과 만족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 홀로 이렇게 오래 명상하며 저는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나아갈 길을 알고 있으며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에드워드 엘 김볼 및 앤드류 이 김볼 2세, *Spencer W. Kimball*, 193~195쪽)

비디오 간증

비디오를 구할 수 있다면, 제8편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간증(1분 16초)을 보여준다.

간증 및 목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간증한다.

반원들이 김볼 회장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항상 기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한다. 그들이 겪는 시련과 위기의 시기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시련이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순화시키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목적 반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

- 준비사항**
1. 가능하면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저서, *용서가 낳은 기적*(번역 출판부, 1975년)을 읽는다.
 2. 교재 끝에 있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그림을 준비한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이야기

스펜서 더블류 김볼은 사도의 부름에 대한 안수를 받기 전에 고향을 찾아 볼 필요를 느꼈다.

“스펜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어떻게 그의 부름에 충실하여 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 나에게 분개하지는 않을까? 그는 그와 크게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그에게 닥친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부름받게 되었소. 내 생활이 명예롭지 못한 한 나는 그 일에 충심으로 임할 수가 없소. 당신과 나는 그 동안 거래해 왔으니 혹시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다면, 여기 수표책을 갖고 왔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수를 청하고는 더 이상 그 문제를 논하기를 거절했다. 몇몇 사람들은 공정했었다면 수백 불 정도 더 남을 수 있었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스펜서는 수표를 끊어 주었다.’”

“그는 이웃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땅을 지나가는 배수로 사용을 놓고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스펜서는 그 집을 찾아 가서 사과했다. ‘저는 그가 전적으로 침해자라고 생각했었고 그가 너무도 큰 아픔을 제게 주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싸움도 한쪽 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 일을 잊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크의 서기 한 사람이 교회 재정 기록의 일부를 소홀히 다룬 것으로 스펜서로부터 한 번 책망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는 스펜서와 소원한 관계가 되었었다. 스펜서는 그를 찾아갔고 둘 사이의 감정이 풀리지 않는 한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 화해했다.”

“스펜서는 그의 스테이크에 있는 한 자매가 그에게 너무도 비판적이어서 그를 피하기 위해 길까지 건너 갈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의 속기사는 어느 날 아침, 김볼 장로가 김볼-그린할그 사무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안절부절 못하던 것을 회상했다. ‘가기가 싫어. 이렇게 힘든 일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는 갔다. 그는 그 자매에게 물었다. ‘제가 자매님께 혹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그가 정부 관료에게 말하여 그녀의 남편이 주 정부에 취직될 것을 방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 친구들이요.’”

“‘오해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부 관료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었다.”(에드워드 엘 김볼과 앤드류 이 김볼 이세, *Spencer W. Kimball*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7년], 197~198쪽)

주님의 종은 순결한 생각과 순결한 행동을 해야 함

토론

- 왜 김볼 회장은 주님의 사도로서 일하기에 앞서 이처럼 화해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주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과 함께 큰 일을 시작하고자 했다.)

교리와 성약 58편 42~43절을 읽는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시 순결해지고 겸손한 영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볼 회장은 그러한 보상이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해도 완전한 보상을 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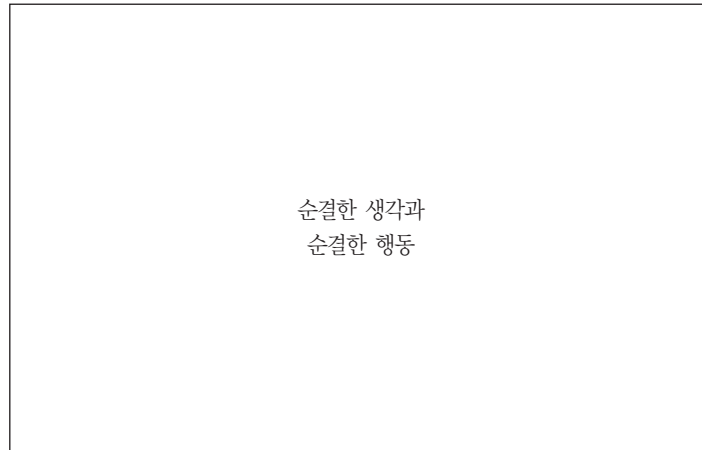
연구 문제

- 마음속으로 답해 본다.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하여 여러분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에게 찾아가 진지하게 오히려 그들이 입었을 상처에 사과하려면 어떤 종류의 노력이 필요할까?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분과 상대방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될까?

칠판 및 토론

- 마음과 영혼에 해로운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비판적인 생각, 증오심, 음탕한 생각, 위선, 배은망덕, 이기심, 약물 중독 등. 이러한 것들을 비롯한 반원들의 발표를 칠판에 적는다.)
-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해독을 입히는가? (그러한 것들은 선하고 깨끗한 생각을 밀어 내고 급기야는 성신의 영향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김볼 회장은 주님의 종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만 봉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람은 회개함으로써만 자유로워질 수 있음

이야기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현실을 도피하고, 형벌을 면하며, 당면해야 할 사태를 과감히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죄를 범하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도피하려는 사람과 같다. 그는 자기가 현명하여 모든 것을 교묘하게 처리했는데 약간의 실수나 운명의 장난으로 체포되었다고 느꼈다.”

“창살 뒤에서 길고 무자비한 옥살이를 하던 끝에 그는 탈출을 계획했다. 온갖 노력 끝에 그는 틈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일하여 창살을 끊어 도망할 수 있었다. 그는 창살을 끊고 그 틈 사이로 몸을 빼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밤중을 기다렸다가 행동을 개시했는데 그 순간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 이제는 자유의 몸이구나!’ 그러나 다시 그는 자기가 형무소 내의 복도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자신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살그머니 복도를 걸어 나와 문 쪽으로 향했으며 간수가 나타나자 캄캄한 곳에 몸을 숨겼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간수를 내리쳐서 열쇠를 빼앗고 문을 열었다.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마셨을 때 그에게는 다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자유다. 잘 했지. 아무도 날 잡진 못할걸. 아무도 나에게 다시 벌을 주진 못할 거야.’ 급히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는 아직도 형무소의 구내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자유로운 몸이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밧줄을 찾았고 그것을 벽에 걸고 끝을 잡아 벽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젠 자유로운 몸이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젠 정말 다시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날 쫓아 오다니 어렵도 없지.’ 바로 그 순간 벽의 틈에서 빛이 비치면서 총성이 들렸고 비상 벨이 울렸다. 그는 즉시 검검한 바깥쪽으로 뛰어 내려 몸을 피하려고 달려 갔다. 그가 형무소를 멀리 두고 도망가는데 경비원이 짚어대는 소리를 들었으나 곧 시냇물 속에 몸을 감추어 개들은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따라 오던 사람이 길을 잘못 알고 사라질 때까지 시냇물 속에 숨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동부로 피신하여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다. 그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수염과 머리를 잔뜩 길러서 위장을 했다. 몇 개월이 지났다. 처음으로 그는 자유롭고, 아무에게도 대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수 개월 간의 그곳 생활도 그에게 싫증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으로부터는 도피할 수 없으며 그의 비난하는 듯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사실상 구속된 상태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을 지켜 보며,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항상 꾸짖는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가 즐기던 자유는 속박으로 바뀌고 말았다.”

“마침내 이 도피자는 목장을 떠나 마을로 갔다. 그는 다시 큰 도시로 갔으며 변호사를 찾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받겠다고 호소했다.”(용서가 낳은 기적, 133~135쪽 참조)

김볼 회장은 용서가 낳는 기적을 통해서 매우 신중히 회개와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다.

1. 우리는 우리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9~10절을 읽는다.
2.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한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는다.
3.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한다. (1) 우리가 죄지는 사람에게, (2) 주님께, (3) 죄가 무거운 경우 주님의 권세를 가진 대표자에게 고백한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4.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상해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177쪽 참조: “회개하는 죄인은 가능한 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5.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1:32 참조: “그러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간증 및 목표

회개와 용서를 통한 치유 과정과 김볼 회장이 이러한 원칙에 순응한 교회 성도들에게 미쳤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간증을 전한다.

반원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과 그들이 죄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제안한다.

목적 반원들이 바로 지금부터 더욱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각자의 걸음의 폭을 넓히게 한다.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그림을 준비한다.
2. 반원들이 표준 경전을 지참하게 한다.
3. 다음 글을 적은 포스터를 준비한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공과 전개 제언**소개**

반원 몇 사람을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다. 색테이프나 다른 표시물을 사용하여 각자 걸음의 폭을 표시한다. 그들에게 자신의 걸음 폭을 15센티미터 정도씩 더 넓혀 보라고 한 다음, 다시 한번 각각의 걸음 폭을 표시한다. 그런 후에 늘어난 15센티미터의 걸음 폭이 경주 시에 얼마나 큰 격차를 가져 올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우리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권고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그림 및 포스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그림을 보여 준다.

1974년 11월호 성도의 벗에 실린 김볼 회장의 말씀에서 그는 회원들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했다.(포스터를 든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성도의 벗, 1974년 11월호, 2쪽)

사전은 **넓힌다**는 말을 “길게 한다, 늘린다, 확장한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고, **걸음의 폭**이라는 말은 “큰 걸음, 넘어서 이동, 활보, 보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Webster's T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v. “lengthen” and “stride”) (다시 포스터를 본다.)

- 김볼 회장이 우리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도록” 요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반원이 답한다.)

성구 토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다. 김볼 회장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잘 알았으며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았다. 김볼 회장은 다음 성구에 담긴 메시지의 긴박함을 실감했다.

반원들과 함께 교리와 성약 42편 58절과 133편 7~9, 37절을 읽는다.

여러분 각자는 세상 만방으로 퍼져 나가 온 땅을 채울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걸음의 폭을 넓히라”는 부름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가? (반원들이 답한다.)

때때로 복음대로 사는 것이 힘에 겨울 때도 있다.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는 때로 “기도한 후에 경전을 읽으라, 가족 역사를 기록하라, 십일조를 바치라 개인 일지를 작성하라, 그리고 내 재능을 발전시키고 학교에도 가라, 이거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걸음의 폭을 좀 더 넓히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다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볼 회장은 늘 결심하고 실행하는 분이였다. 그는 항상 요구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 힘썼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이미 그의 소년 시절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세운 한 가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한 지도자가 대회에서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직 한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있던 그날 밤에 저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집으로 걸어가 곧장 집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은 석탄 기름 램프에 불을 붙이고 창세기 첫 장을 읽었습니다. 일 년 후에 저는 그 크고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 *성도의 빛*, 1974년 9월호, 34쪽)

소년 시절 김볼 회장은 참석할 모임에 가서 그냥 앉아 있지만 앉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실제로 복음대로 살기 위해 그의 걸음의 폭을 더 넓혀갔습니다. 그는 그가 가야 할 모든 모임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소년이 이루기에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야기

“그는 여러 해 동안 주일학교와 초등학교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에 그는 형들을 돕기 위해 밭에서 건초를 밟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초등학교에 가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넌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라고 형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가라고 하실 거예요.’라고 다시 되받자”

“‘아버지는 여기에 안 계셔, 넌 갈 수 없어.’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를 덮어 씌우려는 건초더미가 형들에게서 마구 날아 왔지만, 그는 끝내 그것을 막아 내고서 마차 뒤로 조용히 빠져 나가 출석 부르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번도 결석하지 않은 완전한 출석을 기록했습니다.”(제시 에이 우달,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애리조나 출신 사도”, *Improvement Era*, 1943년 10월호, 591쪽)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행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나날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한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것이 전부이다.”(리처드 에반스, *Richard Evans' Quote Book*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스 프레스, 1971년], 50쪽)

걸음의 폭을 넓히려면 희생이 필요함

목적은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성구 토론

교리와 성약 35편 24절 및 82편 10절을 읽는다.

- 여러분은 복음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토론한다. 반원들이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시간과 돈, 때로는 우정과 지위, 특권 등을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이끈다.)

구주의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한 선지자의 제언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라볼 수 있는 모범이다.

성구 토론

아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성구들을 골라 읽고 토론한다.

- 다음 성구들은 구주께서 “십 리를 동행하[라]”(마태복음 5:41)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모범으로 보여 주셨는가?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히기 위해 그 성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각각의 주제를 참고한다.)

마태복음 14:13~21 (오천 명을 먹이심)

요한복음 13:4~17 (열두 제자의 발을 손수 씻기심)

제3니파이 17장 (니파이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

간증 및 목표

우리 각자에게는 걸음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증한다. 반원들에게 지금부터 김볼 회장의 제언을 받아들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걸음의 폭을 넓히도록 목표를 준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축복을 받게 됨을 주지시킨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주님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가르침

제 40 과

출생: 1899년 8월 4일 회장 재임 기간: 1985~1994년

목적 벤슨 회장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희생의 율법을 깨우쳐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더 나은 종이 되도록 도움을 주었는지 배우게 한다.

준비사항

1. 교재 끝에 있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그림을 보여줄 준비를 한다.
2. 반원들이 물문경을 지참하게 한다.
3.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들의 간증(53242) 비디오를 구할 수 있으면, “에즈라 테프트 벤슨” 부분을 보여준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경전 안내서 활동

어떤 언어 경전에는 경전 안내서가 없는 것도 있다. 여러분의 경전에 경전 안내서가 없다면 좋은 사전을 활용하여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해 반원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한다.

경전 안내서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찾는다. 여러 참조 성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을 두 팀으로 나누고 다음 내용을 반원들에게 읽어 준다.)

희생에 대한 특정 구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희생에 있는 참조 성구 중 한 성구에 있는 문구를 힌트로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문구를 읽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그 문구가 있는 성구를 경전 안내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3니파이 9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구절을 찾고, 그 구절을 찾은 팀의 한 반원이 칠판 앞으로 나와 그 경전에 있는 세 번째 단어를 칠판에 적게 됩니다. 정확한 답을 먼저 맞히는 팀이 점수를 얻게 됩니다.

(승리한 팀을 위해 작은 상을 줄 수도 있다. 이 활동에서 6~7분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네 개 또는 다섯 개 정도의 좋은 참조 성구를 찾은 후에, 잠깐 시간을 내어 반원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한다. 이 토론은 이 공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 토론을 통해 공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 활동은 반원들에게 중요한 개념을 일깨워주고 도전 과제를 주도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벤슨 회장은 부모로부터 희생의 원리를 배웠음

이야기

벤슨 회장의 다음 일화를 들려준다.

“아버지가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살던 아이다호 주 휘트니 마을에는 유행성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른들은 성찬식에 참석했지만, 아이들은 질병에 전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에 남아 있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 한 필이 끄는 사륜 마차를 타고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자 상점 주인은 상점문을 활짝 열어 놓아서 농부들이 각자의 우편물을 찾아가게 했는데 이는 우편물 취급소가 상점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은 사지 않아도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농부들은 월요일에 우체국까지 나가는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는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차를 몰아 집으로 오는 동안 어머니는 우편물을 뜯어 보셨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솔트레이크의 사서함 B로부터 온 편지, 즉 선교사 부름을 알리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준비되었는지, 나가길 원하는지, 또는 할만 한지를 묻지 않았었습니다. 감독님은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은 바로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할아버지인 조지 티 벤슨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두 분은 모두 울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은 가족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일곱 명은 마차 주변에 모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실로 가렴. 거기서 이야기해 줄게.’”

“우리는 거실의 낡은 소파 주위에 모였고 아버지는 그에게 온 선교사 부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와 나는 아빠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어 더없이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선교사의 부름은 또한 2년간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울었던 것이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아빠와 엄마는 결혼한 이래로 이틀 밤 이상을 떨어져 지내 본 적이 없었잖니. 그 이틀 밤이라는 것도 아빠가 나무 구하러 산 속 깊숙이 들어 갔을 때 생긴 기간이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선교 사업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아버지가 보여 주었던 헌신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는 아버지가 기꺼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이 그분의 위대한 신앙의 증거라는 것을 잘 압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호, 59~60쪽)

아버지의 모범을 통해서 벤슨 회장은 희생의 힘을 배웠다. 그는 장남이었다.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젊은 에즈라는 가사 일을 돌보아야만 했다. 후에 그도 선교사로 떠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길을 시작했다.

그는 두 번의 스테이크 회장 직을 비롯하여 교회에서 많은 직책에서 봉사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한 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가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야 했던 때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찢겨진 유럽 성도들의 필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헤어져 있던 때였다.

유럽 성도들의 고통을 목격한 벤슨 회장

프레드릭 더블류 바벨 형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벤슨 회장을 수행하여 유럽에 갔다. 바벨 형제가 쓴 책, *신앙의 날개(On Wings of Faith)*에는 벤슨 회장이 유럽 성도들에게서 발견한 희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

다음은 벤슨 회장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행한 말씀의 일부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 보니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오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안에서 저의 마음은 여러분께로 향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감사드리면서도, 사실 저는 이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고 푸르른 땅을 지나오면서 그 모든 도시와 촌락들에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결과로 생긴 끔찍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 누구를 비난하거나 지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생긴 결과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의도에 대해서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여러분의 눈들을 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초라한 행색과 죽음에 가까이 이른 모습을 보지만, 그러면서도 부르르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미소를 지어 보내며, 의롭게 살아온 가운데 증오와 비통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게 놔 두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이자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프레드릭 더블류 바벨, *On Wings of Faith*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72년], 37~39쪽)

다음 이야기는 벤슨 회장이 전쟁에 희생된 성도들을 위한 모임을 마치고 만났던 한 후기 성도 여인과 겪은 실화이다.

그 자매는 “신발 대신 발과 다리를 삼베 자루로 감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누추했다. 이 선한 자매는 동 프리시아에서 살았었다. 남편은 가공할 전투가 동 프리시아에서 막바지에 달했을 때에 살해당했고, 그녀에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네 명의 어린아이뿐이었는데, 그것도 그 중 하나는 갓난 아기였다. 점령국간의 협약으로 그녀를 비롯한 천백만의 독일인들은 고향과 가재 도구를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 서독으로 나와야 했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나무 마차에 실을 수 있는 침구 등 30킬로그램 남짓한 기본 필수품만을 가지고 순수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건너왔다. 1600킬로미터 이상의 노정을, 그녀는 갓난 아이를 팔로 안고 다른 아이들은 견게 하며 도보로 횡단했다.”

“그녀는 늦은 여름에 여행을 시작했다. 먹을 음식도 가진 돈도 없었던 그녀는 길을 가는 동안 근처 들이나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만 했다. 또한 그녀에게는 공포에 찌든 난민들과 약탈을 자행하는 군인들로부터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새 눈발이 날리고, 기온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운 겨울이 되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씩 죽어갔다. 때로는 추위로 얼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림에 허덕이다 죽기도 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기가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그녀는 삼을 대신하여 손가락으로 길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그 아이들을 묻었다. 여행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 그녀가 안고 있었던 마지막으로 남은 갓난 아기마저 숨을 거두었다. 손가락도 잃어버린 뒤라서 그녀는 맨손으로 언 땅을 파헤쳐 무덤을 만들었다.”

“한 간증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토록 많은 어려움들을 회고하면서 당시 자신의 슬픔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아이를 땅에 묻은 그 무덤가 옆 눈 속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모든 가산, 집, 자신의 고국마저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같이 비참한 상태에 처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같은 한없는 슬픔과 당혹스러움을 겪으면서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했듯이 자살할 생각도 해보았다. 근처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려오는 기차 앞에 몸을 던지기란 얼마나 쉬울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 후 그녀는 간증하기를,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녀 안의 무엇인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그녀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보다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 했었던가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결론으로, 그녀는 위대한 간증, 곧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며, 끝까지 진리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이 계신 해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알기 때문에 비록 피폐해진 나라의 고통 받는 백성이라도 그들 중에서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는 간증을 했다.”(프레드릭 더블류 바벨, *On Wings of Faith*, 41~42쪽)

- 여러분은 이 여인이 희생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자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벤슨 회장과 유럽의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가? (반원이 답한다.)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벤슨 회장

유럽에 있는 동안 벤슨 회장은 네덜란드 선교부 회장이었던 코넬리우스 자페이 회장에게 네덜란드 성도들이 스스로 복지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자를 재배할 만한 땅을 찾아보게 했다. 첫째 말에 네덜란드 성도들은 66톤의 감자를 수확했는데, 이는 그들이 거의 자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

“그때 특별한 요청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로테르담에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지역 대회가 열렸는데, 그 모임에서 선교부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독일인은 이번 전쟁으로 여러분이 만났던 가장 잔인한 적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감이 얼마나 크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상황은 여러분보다 훨씬 나쁘며,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분이 수확한 감자 전량을 독일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다.”

“다음 해에 네덜란드 성도들은 약 150톤 가량의 감자를 생산했다. 게다가 그들은 고기를 낚았고 몇 통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청어를 잡았다. 그러한 성공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요컨대 이러한 것이었다. ‘우리는 작년에 독일 성도들에게 수확한 감자를 보내어 큰 기쁨을 맛보았으므로 올해에도 소금에 절인 청어와 함께 수확한 감자 전량을 그들에게 보내길 원합니다!’(프레드릭 더블류 바벨, *On Wings of Faith*, 76~77쪽)

토론

희생뿐 아니라 네덜란드 성도들은 “그들의 적을 사랑할” 것을 요구 받았다.

-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복음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반원이 답한다.)
- 네덜란드 성도들은 어떻게 독일 성도들을 도왔는가? 그들은 어떤 중요한 방법으로 자신을 도왔는가? (반원들이 개인적인 희생은 큰 보상을 가져옴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성구

몰몬경의 베냐민 왕은 모사이아서 2장 18~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보라, 너희는 나를 너희 왕이라 칭하였도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칭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섬기고자 일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고자 일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한 보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일컫는 바 내가 너희를 섬기느라 그 날들을 보내었으되,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온 내가 만일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감사를 받을 만하다면, 너희가 너희 하늘의 왕께 감사드림이 얼마나 마땅하냐!”

주님은 우리의 희생을 이해하시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 주심

이야기

프레드릭 더블류 바벨이 밝힌 다음 이야기는 벤슨 장로의 희생이 어떻게 주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보상받게 되었는지를 예시한다.

특히 전쟁 때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서는 많은 제약들이 있어 교회 지도자들이 자선 사업을 위해 하는 여행 조차도 어려웠다.

바벨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가 베를린과 바르샤바 사이에 구축해 놓았던 공중 회랑을 경유하여 폴란드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 요원이 우리의 베를린 입국에 필요한 군사 명령을 내리는 데 동의하기에 앞서 폴란드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져야만 했다.”

“벤슨 회장은 내가 필요한 허락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걱정스레 물어 보았다. 내가 ‘아니오’ 라고 하자 그는 적이 실망하는 눈치였다. 나는 벤슨 장로와 함께 우리가 일단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깊이 감지했다. 우리 모두 얼마 동안 묵묵히 자기 분석을 한 후 벤슨 장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문제에 관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벤슨 회장은 기도하기 위해 자기 방으로 돌아간 지 두세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나의 방문에 서서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꾸릅시다. 우리는 아침에 폴란드로 출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 나는 거의 나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름답게 비치는 찬란한 빛에 쌓여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빛을 발했던 것처럼 밝게 빛났다.”(프레드릭 더블류 바벨, *On Wings of Faith*, 132쪽)

벤슨 회장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강화시키고 돕기 위하여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비디오 간증

가능하면, 비디오 제9편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간증(3분 19초)을 보여준다.

간증 및 목표

간증을 전하고 반원들이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참된 주님의 선지자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도록 기도해 보게 한다.

반원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목표를 준다.

- 나는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돕고 있는가?
-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반원들에게 과거에 가졌을지 모를 이기적인 욕망을 돌아보며 인류 전체의 더 큰 필요 사항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한다.

목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잘 봉사하는 것이 가능함을 배우게 한다.

- 준비사항**
1. 교재의 끝에 있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그림을 준비한다.
 2. 가능하다면, *Ensign*, 1986년 1월호, 2~12쪽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읽는다.
 3. 스카우트 선서가 담긴 포스터를 준비한다.

스카우트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다음 사항들을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며
소년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강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며
바른 도덕성을 지키겠습니다.

(윌리엄 “그린 바 빌” 힐코트, 소년단 지침서 [어빙, 텍사스:
미국 소년단, 1979년], 27쪽)

4. 신앙개조 제12조를 적은 포스터를 준비한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또는 집회소 도서실에서 신앙개조 포스터(64370 320)를 빌린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우리는 교회, 학교,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는다.

- 교회 지도자들은 어째서 우리에게 교회 봉사 외에 지역 사회 및 국가에서 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당부하는가? (정부 및 지역 사회의 모든 봉사 단체는 도움을 줄 선량한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역 사회 내에서 교회의 이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성구 토론

다 함께 이더서 2장 12절을 읽는다.

- 지역 사회와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구주를 섬길 수 있는가? (반원들의 답변을 들으며 복음대로 생활하는 한 사람의 힘이 지역 사회와 정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효율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98편 9~10절을 읽는다.

-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을 국민의 대표자로 뽑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것을 지금 배울 수 있는가?

교회 회원은 정직하고 사려 깊어야 하며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 위치에서 충실히 봉사했던 벤슨 회장

토론

살아 오는 동안 벤슨 회장은 자신의 지역 사회나 출신 주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위한 여러 가지 공직에서 봉사했다. 그는 또한 미국 소년단 협회의 임원직을 위시한 많은 미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봉사했다.

이러한 봉사 단체, 사업계, 스카우트 조직에서 봉사하는 외에도 벤슨 회장은 또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이 모든 활동은 그의 지역 사회, 주, 국가, 나아가 세계에 도움을 주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벤슨 회장과 함께 봉사했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간 중 하나로 그가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추구하지 않았던 직책이었다. 그가 내각의 일원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당시 교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을 찾아갔다. 맥케이 회장은 ‘나는 어젯밤 벤슨 장로에게 내각 등용이 제안될 경우 교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타진하는 매우 중대한 전화를 받았소. 벤슨 형제, 나에게 이 문제는 명백합니다. 이 기회가 합당한 영으로 오는 것인 한 형제님은 받아들여야 되리라고 생각하오.’ 라고 말했다.”

“벤슨 장로는 그와 같은 제의가 자신에게까지 이를 줄은 거의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으며, 맥케이 회장에게 자신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일을 수행해나가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맥케이 회장은 그에게 임무가 제안되면 가서 면담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 당선자였던 아이젠하워는 벤슨 장로에게 뉴욕으로 와 줄 것을 요청했고, 그곳에 갔을 때 대통령은 벤슨 장로가 가졌던 전국의 농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야기하며 애국의 의무를 받아들여 정부의 부름에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농림부 장관으로서 8년간 봉사했다. 대통령은 그에게 자신이 백악관에 있는 전 기간 동안 함께 내각에서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슨 장관은 그렇게 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Ensign*, 1986년 1월호, 7쪽)

토론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벤슨 장로와 같은 지도자로부터 어떤 종류의 도덕적 지도력을 기대했다고 할 수 있는가? (반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마도 정직과 충실함의 두 가지 자질이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농림부 장관으로 일할 때 벤슨 장로의 결정이 늘 모든 이에게 인기있는 것은 아니었다.

-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반원이 답한다.)

“농림부 장관으로서 러시아를 여행하던 중에 한 번은 일부 러시아 사람들의 깊은 종교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경험을 했다.”

“그는 미국의 대표로서 소련의 흐루시초프 수상 및 기타 소련 고위 관리들과 협의한 적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보도록 허용되어 있는 일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계속해서 부탁한 끝에 그는 모스크바 소재의 한 침례 교회로 안내되었다. 정부 차원의 모임 취재차 소련을 수행하던 기자들 역시 그 작은 교회에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그 큰 도시에서 예배를 보는, 몇 군데밖에 없는 교회 중 하나였다. 예배당은 거의 노인들로 차 있었는데 그 중의 많은 사람이 여성들이었다.”

“확실히 미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서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았다. 미국인 중 한 명이었던 벤슨 장관은 예기치 않게 연단으로 초대되었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그 도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을 간증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말씀은 러시아어로 통역되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청중 사이에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여성들은 그들의 머리를 덮고 있는 베일을 들치고 눈물을 닦았으며 남자들은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 냈다. 장관의 공식 수행원으로 강제로 참석하게 됐다고 느끼며 처음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뉴스 통신원들도 회중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엄숙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영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감쌌다. 모두 손들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기도했다.”

“저는 기도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영향을 주어 우리가 필요할 때 힘과 용기를 불러 넣어 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시간은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수행 기자들은 들어올 때와는 정반대의 겸손한 태도로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들이 복도를 지날 때 반가워하고 아쉬워하는 그곳 성도들의 손길과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때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의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비록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모른다 해도 …”(“러시아에서 겪은 감동적인 경험”, *Ensign*, 1986년 1월호, 12~13쪽)

주님의 사도라 할지라도 벤슨 회장이 농림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전세계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영영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소년단을 사랑한 벤슨 회장

벤슨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한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그는 소년단 단장이었을 때 가졌던 그의 값진 추억들을 회고하는 말씀을 했다. 그는 처음 소년단에 봉사한 이래 생의 많은 부분을 소년단 활동과 함께 했다.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약 65년 전, 훌륭하신 우리 감독님이 제게 오셔서 휘트니 와드의 스물네 명 소년들로 구성된 소년단 단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셨던 일을 언제나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벤슨 회장은 이어서 이들

스물네 명의 소년들과 상향회 합창 경연대회에 나가 프랭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기고 여섯 개 스테이크가 경합하는 로간 지역 경연에 나가게 되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했다. “마침내, 우리 팀이 연단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자가 미국 국가를 연주하는 동안, 스물네 명의 소년들은 한 줄로 서서 통로를 올라간 후에 무대 위에서 반원 형태를 이루었으며, 저는 두 의자 사이에서 몸을 구부린 채 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간에서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승하고 난 후 첫 번째 소년단 모임에서 그 소년들은 (자기들에게 중요한 일은 결코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조마조마해 하던 그 순간에 제가 우리가 로간에서 우승하면 산 너머 베이레이크의 56킬로미터 계곡으로 하이킹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아 “여행 중에 빗으로 머리를 빗어야 하는 귀찮은 일을 덜’ 것을 제안했고, 소년단 대장들은 이발사가 머리를 삭발하겠다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말을 듣고 머리를 삭발했다.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야외의 언덕과 산, 호수에서 그 훌륭한 소년들과 함께 했던 3주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소년들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벤슨 회장은 소년들과 계속 친분을 유지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그들 중 두 명만 제외하고는 모두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소년단 대장, 감독, 보좌, 서기, 고등 평의원 등의 교회 직책에서 봉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벤슨 회장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애리조나 주 남부로 갔습니다. 모임 중에 집회소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소식이 끊겼던 두 소년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팔을 붙들었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별로 큰 일은 아니지만 소년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교회 밖에서 결혼했지만 그 후 그의 아내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이 훌륭한 부부와 자녀들의 인봉을 집행할 영예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아이다호 주 빌리에서 개최된 아이다호 농업국 연례 모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농업 국장과 함께 연단에 올라간 저는 어떤 사람이 문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농업 국장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스물네 명의 소년 중 마지막으로 소재가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과 결혼했지만 성전 결혼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오래지 않아 성전에서 이 사람을 아내와 자녀와 함께 인봉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49~50쪽)

포스터

소년단 선서가 적힌 포스터를 든다. 각 구절의 내용을 검토하여 어떻게 해서 벤슨 회장은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선서의 목표들을 달성했는지 설명한다.

벤슨 회장은 교회와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하여 거의 전 생애를 바쳤다. 다음 질문을 하고 반원들의 답을 듣는다.

- 일생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 그가 느꼈을 기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이러한 봉사를 통해 그가 얻었을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 그는 그가 봉사한 지역 사회에 어떠한 유익을 주었을까?

간증 및 목표

신앙개조 제12조가 적힌 포스터를 보여 주며, 반원들에게 어떠한 직책이 주어지든지 그들의 학교, 지역 사회, 혹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일에 충실히 봉사하도록 목표를 준다. 신앙개조 제12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한 하나의 계획임을 간증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벤슨 회장이 갖는 부름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한다. 아울러 벤슨 회장,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자신과 같은 선한 사람들이 기꺼이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면 세상은 축복받게 될 것임을 간증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구주의 발자취를 따라

제 42 과

출생: 1907년 11월 14일 회장 재임 기간: 1994~1995년

목적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생애를 공부하고 반원들이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헌터 회장의 조언을 따르도록 돕는다.

준비사항

1. 전시할 그림을 준비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62124; 복음 그림 패킷, 206),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62139; 복음 그림 패킷, 214), 예수 그리스도(62572; 복음 그림 패킷, 24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62494; 복음 그림 패킷, 235)
2.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낱말 띠를 만든다.(하워드 더블류 헌터의 인용문,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65쪽 참조)

“부드러움은 잔인함보다 낫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친절은 억압보다 위대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3. 칠판이나 포스터에 다음의 성구 및 말씀을 적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하워드 더블류 헌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4쪽)

4. 가능하다면, 각 반원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 헌터 회장이 전한 말씀을 복사한다.
5. 칠판에 쓸 분필 또는 포스터를 만들 크레용이나 싸인펜을 준비한다.
6. 이용이 가능하다면, 비디오 테이프 *하워드 더블류 헌터, 하나님의 선지자*(53946)의 일부를 보여 주어도 좋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사진을 전시한다.

-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4대 교회 회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이라고 말한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는 1907년 11월 14일 아이다호 주 보이스에서 태어났다. 하워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하워드는 집사가 되어 성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아론 신권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려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대부분의 반원들도 청소년기에 헌터 회장이 한 것과 같은 몇 가지 일들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실례

어린 시절, 그는 일 때문에 늘 바쁘게 지냈다. 신문을 팔고, 망가진 자명종 시계를 고치며, 그림 표구법을 배우고, 탁월한 수리공이 되었으며, 몇 가지 악기 연주법도 배웠다.

그림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여 준다. 예수님과 똑같이 헌터 회장도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실례

십대 시절, 새 예배당의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하워드는 맨 먼저 일어나 그 비용을 위한 기부금을 신청했다. 그가 내겠다고 약속한 25달러는 그의 저축 기간을 말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하워드는 “헌터 크루네이더즈”라는 악단을 조직하여 고향인 아이다호 주의 보이스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사교 모임에서 연주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그와 악단은 1927년에 일본, 중국, 필리핀으로 향해하는 유람선에서 연주했다.

성구

헌터 회장은 좋은 음악을 사랑하셨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25편 12절을 반원에게 읽어 준다.

실례

하워드 헌터는 메리 크라라 제프스와 약혼하면서 음악 일을 포기하고 결혼과 가정이란 새 목표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 그는 결혼과 가정이 기독교인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영원한 결혼보다 가정에서의 사랑과 자제와 헌신을 더 높일 삶의 대 원칙들은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2년 10월, 67쪽; *Ensign*, 1973년 1월호, 65쪽)

미국의 경제 공황 시기였던 1934년에 하워드 헌터는 일자리를 잡고 법학 학위를 따기 위해 학교로 되돌아 갔다. 그는 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한 다음, 1940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성도의 벗, 1994년 9월호, 8쪽 참조)

성인이 된 하워드 헌터는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을 포함한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언제나 교회의 부름에 충실했다.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인 엘마 손 장로는 하워드 헌터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헌터 회장-스테이크 회장을 말함-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부름받은 소식을 듣고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오랜 세월 동안 시온의 지도자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증명하셨으며, 교회가 훌륭한 인물을 지명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59년 10월, 55쪽)

헌터 회장은 구주를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했음

일찍부터 헌터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발견한 선을 깨닫고 구주와 같은 삶을 추구해 왔다. 그의 누이 동생인 도로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려고 했으며, 또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인 저를 잘 돌보아 주었고, 부모님께도 공손했습니다. 오빠는 동물도 좋아했는데, 길 잃은 동물이 있으면 어김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들의 집 옆에는 관개용 개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회원이 아닌 여러 명의 꼬마들이 개울물에 고양이 새끼를 집어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고양이 새끼가 물에서 나오면 다시 물 속에 집어 넣곤 하며 꼬마들은 싫증이 날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장난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오빠가 그 옆을 지나다가 죽어가며 누워 있는 그 새끼 고양이를 집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죽은 고양이라고 염려했지만, 우리는 고양이를 담요에 싸서 따뜻한 난로 가에 두고 잘 간호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살아났고 그 후로 그 고양이는 그들과 함께 지냈다. ‘오빠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 평생 오빠가 나쁜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지요.’ 라고 도로시는 말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독수리의 자취”, 성도의 벗, 1994년 9월호, 5~6쪽 참조)

날말 띠

날말 띠를 붙인다.

“부드러움은 잔인함보다 낫습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친절은 억압보다 위대합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반원들에게 헌터 회장은 전 생애를 통해 온유와 친절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에 관해 즐겨 이야기했던 헌터 회장

헌터 회장은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를 즐겨 말씀했다. 그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때의 이야기이다.

그림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 준다. 그림에 묘사된 이야기를 간단히 복습한다.
(마태복음 8:23~27 참조)

헌터 회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성난 폭풍의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19쪽)

토론

- 우리의 눈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 정신은 행동을 위한 설계도라고 믿었던 헌터 회장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복음만이 아닌 행동의 설계도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의 복음은 행동을 요구하는 복음입니다.”(*That We Might Have Joy*, 131쪽; 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115쪽; *Improvement Era*, 1967년 6월호, 101쪽)

불가피한 일은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명령이며, 우리가 할 일을 두고 피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복음 계획과 함께 놀라운 경험들을 준비해 두셨지만, 우리가 단지 방관자로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단지 말하고 받아 들이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매일의 생활을 활기찬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은 가장 훌륭한 간증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존스 형제님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니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되고, ‘나는 이 원리대로 살아 왔으며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That We Might Have Joy, 133쪽; 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 116쪽; Improvement Era, 1967년 6월호, 101쪽)

칠판 학습

칠판에 다음 낱말들을 적는다. 관찰하다, 뒤로 미루다, 가다, 앓다, 싫어하다, 주목하다, **행하다**, 보다, 무시하다, 느끼다, **주다**, **믿다**, 예언하다, **기도하다**, **회개하다**, **사랑하다**.

반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복음의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낱말에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 이 낱말들은 굵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칠판 성구 학습

칠판에 적힌 두 개의 성구를 참조한다. 반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 성구들 가운데서 복음 행동에 관한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이 낱말들은 굵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던 헌터 회장

실례

헌터 회장은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다.

1993년 2월 7일, 그는 19개 스테이크가 모인 가운데 위성으로 방송되는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하기 위해 브리검 영 대학교 교정을 방문했다. 헌터 회장이 일어서서 메리엇 센터에 모여 있는 약 20,000명의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어떤 사람이 뛰쳐 나와 “뽀짝 마!” 하고 외치며 회장을 협박했다. 그 남자는 폭탄과 기폭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터 회장만 남겨 놓고 모두 단상에서 나가라고 소리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헌터 회장은 두 명의 경호원과 함께 의연한 자세로 연단에 남아 있었다. 회장은 총기같이 보이는 것으로 위협 받고 있었지만 그 남자가 건네 준 성명서를 읽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 남자가 당황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경호원 한 사람이 그를 덮쳐 끌고 가 감금해 버렸다. 나머지 경호원들은 안전을 위해 헌터 회장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물론 장내에는 상당한 소란이 일어났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회장은 잠시 후에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준비한 말씀의 첫 줄을 읽었다.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도전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회장은 연설을 멈추고 청중을 굽어본 다음 이어서 말씀했다. ‘보신 바와 같이’ 말입니다.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설을 계속했다.”(성도의 빛, 1994년 9월호, 16~17쪽)

사도로서 구주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집을 잇은 채 봉사한 헌터 회장

헌터 회장은 1959년 10월에 사도로 부름받은 후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구주께 봉사했으며, 이후에도 그는 죽는 날까지 주님께 그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 봉사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그와 함께 봉사했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헌터 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례

“성격이 온유하신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청년 시절에 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일자리를 거절할 적이 있었는데, 그 까닭은 그가 그 일을 수락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또한 겸손한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나머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분은 남의 눈에 뭘 새라 조용히 제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함은 매일의 일상적인 일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9월호, 13, 15쪽)

그림과 칠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전시한다. 헌터 회장은 우리 모두에게 구주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따르라고 권고했다. 칠판 또는 포스터에 적혀 있는 헌터 회장의 말씀을 읽거나 반원 한 명을 시켜 읽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현재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하워드 더블류 헌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64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가 헌터 회장에게 바친 찬사문을 읽는다.

“헌터 회장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적인 깊이는 너무나 심오하여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영향 받아 온 헌터 회장님의 영성은 놀라운 방법으로 연마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 영성은 바로 그분의 전 인격의 원천입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조용하고 겸손하며, 성스러운 것에 대해 말씀할 때는 신중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평온하고 고요하며 고매합니다. 그분은 수없이 ‘금을 연단 하는 자의 불 같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으로 오늘날 이 지상에서 티끌이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9월호, 19쪽)

지명

다음 주 공과 중에 다음 성구를 읽고 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반원 두 명을 준비시킨다. 교리와 성약 131:1~4, 교리와 성약 132:15~17

간증 및 목표

반원들에게 준비 사항 3번에 나와 있는 헌터 회장의 말씀 사본을 주어 자기 삶을 인도해 주는 문구로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목표를 준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선지자 부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눈다. 반원들이 자신의 신앙과 헌터 회장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목표를 준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성전에 초점을 맞춤

제 43 과

목적 반원들이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통해 생활하는 가운데 성전의 축복과 그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준비사항**
1. 다음 세 개의 전시용 사진을 준비한다. 반원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 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전; 성전 침례탕(62031: 복음 그림 패킷 504); 최근에 성전 밖에서 결혼한 젊은 부부(반원들이 알고 있는 사람)나 와드 도서실에 있는 성전에 가는 젊은 부부 그림(62559)
 2. 가능하다면, 가정의 밤 보충 자료 비디오 2(53736 320)에 있는 10. “성전은 영원한 성약을 맺는 장소임”을 준비한다.(6분 9초)
 3. 공과 일주일 전에 반원 한두 명을 지명하여 교리와 성약 131편 1~4절과 132편 15~17절을 공과 시간에 읽고 그 구절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4. 이 공과 준비에 도움이 될 비디오 테이프, 영원한 가족(53605 320)을 시청해도 좋지만 25분이 걸리므로 시간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교회 회장으로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수단으로 성전의 중요성에 관하여 영감 어린 조언을 주었다. 전 생애를 통하여 헌터 회장은 특히 성전과 성전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스테이크 회장 재임 시절, 그는 로스앤젤레스 성전의 건축과 헌납을 주도했다. 교회 회장으로서 그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유타 주 바운티폴 성전의 헌납식 감리였다.

그림

성전 사진을 보여 주고, 헌터 회장이 19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회장으로 지지 받은 후에 전한 말씀을 읽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게 부여된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또 제게 주어진 부름의 권능으로 여러분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자 하는 소망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자주 성전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고 가족이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데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8쪽)

성전을 교회 회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만들라고 권고한 헨터 회장

헨터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회원의 위대한 상징의 장소이자, 가장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하늘과 같은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시기를 권고합니다. 진심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염원합니다.”(성도의 빛, 1994년 9월호, 4쪽)

토론

- 성전이 교회 회원의 위대한 상징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토론에 포함되어야 한다.)
-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감독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접견한다고 설명한다.)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회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선지자 및 기타 총관리 역원과 지역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를 배도한 자나 무리들, 복음에 위배되는 가르침이나 행위에 동조하거나 연합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충실하게 성찬식, 신권회, 기타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권 권세를 통해 받은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기도, 완전한 십일조, 정직한 언행, 그리고 흥차, 커피, 술, 담배, 기타 몸에 해로운 물질과 나쁜 습관이 되는 물질을 금하는 것 등을 포함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들은 순결하며 덕망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의 순결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회원들 및 가족과의 영적, 물질적 관계에서 복음 원리에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영적,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인 일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위에 열거된 율법 중 심각한 위반 사항은 자신의 감독에게 고백해야 한다.

토론

- 이러한 태도와 행위들은 왜 중요한가? (주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게 한다.)

헨터 회장은 모든 성인들에게 합당하게 살며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성전에 참석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성전 추천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곳에 살았다면 받았을 축복을 그들 모두에게 보장하실 것이다.

헨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어 곧바로 또는 자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하기를 바랍니다”(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6쪽)

성도들이 성전에서 영원한 성약을 맺도록 도운 헌터 회장

비디오	가능하다면, 비디오 테이프 “성전은 영원한 성약을 맺는 장소임”을 보여 준다.
실례	<p>반원 한 명에게 아래에 있는 헌터 회장의 말씀을 읽게 한다.</p> <p>“성전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이 밝혀지는 가르침의 장소이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들을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의 근심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평안의 장소이다.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고 우리가 항상 충실하다면 영원한 약속이 주어진다.”(성도의 벗, 1994년 11월호, 3쪽)</p>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성약은 쌍방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토론 중에 제기되도록 한다.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약에 의해 위대하고도 영원한 약속들을 받는다. 그러나 이 축복들은 성약의 한쪽 부분, 즉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데 따른 조건적인 것이다.) •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이미 맺은 성약들은 무엇인가? (반원들이 대부분이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 <p>침례는 성스럽고 필수적인 성약이라는 것이 토론 중에 제기되도록 한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침례 후에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이 확인으로 우리는 성신의 은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합당하기만 하다면 이 은사는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남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다. 침례 후에는 매주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권고 받는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된다.</p>
그림 및 토론	<p>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했던 반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부탁한다.(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침례탕 사진을 보여 준다.)</p> <p>지상에 살아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거나 침례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 의식이 성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침례는 지상에서 행하는 의식인데, 죽은 자들은 현재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성전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대리 침례”라 부른다. 죽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 행해지는 이 의식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유이다.</p> <p>이 의식이 행해지는 방법을 토론한다.(성전에서 하얀 침례복을 입은 청소년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은 특별히 준비된 침례탕에 들어 간다. 다시 그림을 보여 준다. 침례 받는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 대리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인은 우리가 침례 받을 때와 똑같이 물 속에 잠긴다. 침례 받은 후, 그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 의해 확인 안수를 받는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대리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위해 성신의 은사를 받을 권한을 부여한다.(이는 침례 후 우리가 확인 받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p>

젊은이들이 성전 결혼의 신성한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도록 권고한 헌터 회장

그림 및 토론

최근에 성전 밖에서 결혼한 젊은 부부의 사진을 반원들에게 보여 준다.

- 성전에서 결혼한 부부는 받을 수 있지만 성전 밖에서 결혼한 부부는 받을 수 없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왜 성전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영원히 함께 있으며, 영원한 후손을 갖고 해외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는 약속을 받는다는 쪽으로 토론을 이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위대한 은사에 견줄 만한 것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다. 반원 개개인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강조한다. 우리 각자가 모든 의식을 받은 다음 성전에서 맺는 모든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성전에서의 결혼이 불가능한 곳에 살고 있는 부부들은 합당하게 살면서 성전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가 환경이 바뀌거나 새 성전이 건립되면 성전에 가도록 준비를 하면 된다.)

성구

반원 두 명에게 다음 성구를 읽은 다음 그 뜻을 반원들에게 설명하게 한다. 교리와 성약 131:1~4, 132:15~17

청소년들에게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라고 권고한 헌터 회장

성전에서 맺는 성약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이다.

실례와 그림

반원 한 명에게 아래에 있는 헌터 회장의 말씀을 읽게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생전에 침례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서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과 개인적으로 성약을 맺고 부부 인봉과 가족 인봉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바로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가 의식을 받아 주길 애타게 기다려 온 많은 분들을 위해 그와 같은 구원의 의식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6쪽)

성전 사진을 다시 보여 준다. 헌터 회장은 성전을 교회 회원의 상징으로 삼도록 권고하며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반원에게 헌터 회장의 말씀을 계속 읽게 한다.

“그러나 정말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과 믿음에 관한 한, 유일하고 성스러운 표준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6쪽)

간증 및 목표

복습하면서 반원이 읽은 마지막 말씀 중 사체로 쓰여진 부분을 다시 읽는다. 이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강조한다. 영원히 우리 앞에 성전과 성전 결혼을 “회원의 상징”으로서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간증을 반원들에게 이야기한다.

출생: 1910년 6월 23일 회장 재임 기간: 1995~2008년

목적 반원들이 젊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준비 사항 주: 공과에 앞서 발표할 사람을 지명해 두어야 한다.

1. 반원들에게 아래에 있는 아홉 개의 이야기들에 대한 발표를 하게 한다. 소규모 반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이야기를 맡을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반에선 반원들이 함께 발표를 준비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한다.

- 발표 1: 태버내클에서 배운 교훈
- 발표 2: 북극성으로부터 배운 교훈
- 발표 3: 선교사 시절에 배운 교훈
- 발표 4: 가정에서 배운 교훈
- 발표 5: 위험 표지판에서 배운 교훈
- 발표 6: 학교에서 배운 교훈
- 발표 7: 루이에게서 배운 교훈
- 발표 8: 중학교 1학년 시절 동맹 휴교를 통해 배운 교훈
- 발표 9: 아버지의 신형 자동차로부터 배운 교훈

여러분의 반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교사가 직접 이야기하도록 한다. 반원들에게는 각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배운 것과 그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2. 집중 게임을 활용할 때에는 공과 끝에 나와 있는 보기에 따라 게임 판을 준비한다.

3. 이용이 가능하다면,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비디오 *고든 비 힙클리: 성실한 사람, 교회의 제15대 회장*(53503)을 보여 준다. 비디오를 사용할 경우에는 힙클리 회장에 대한 공과가 진행될 두 주 동안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4. 힙클리 회장의 사진을 보여 준다.

공과 전개 제언

소개

그림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의 사진을 보여 준다. 반원들과 함께 아래의 배경 이야기를 나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이 돌아가신 지 10일 후인 1995년 3월 12일에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5대 교회 회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었다.

힙클리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잘 준비되어 왔다. 그의 올바른 선택은 그가 이 위대한 책임을 준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젊었을 때 그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으로 그의 전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봉사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토론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 긴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방향 설정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 이것은 엘마가 아들 힐라맨에게 준 권고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엘마서 37:35)

젊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함

반원들에게 발표 1, 2, 3을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이 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발표를 하는 동안 칠판에 그 예들을 적는다. 각각의 발표 후에 그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과 그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칠판에 그들이 서술하는 것을 요약하도록 한다.

<p>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버내클에서 배운 교훈 2. 북극성으로부터 배운 교훈 3. 선교사 시절에 배운 교훈 <p>적용할 수 있는 교훈</p> <p>명하신 대로 행할 결심 신뢰-주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음 자신을 잊고 일에 몰두함</p>
--

칠판에 각 이야기의 주요 요점을 계속 적는다.

태버내클에서 배운 교훈

발표1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제 나이 열넷인가 열다섯인가 되었을 때, 이 태버내클 2층의 시계 바로 뒤에 앉아서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이 소년 시절에 물몬경을 읽던 경험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을 듣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니파이에 대해서, 그리고 니파이가 그의 생애에 미쳤던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확신에 차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니파이의 그 위대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저는 결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린 제 가슴에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신앙을 갖고 순종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실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4쪽)

토론

- 결심이란 무엇인가?
- 의로운 결심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북극성으로부터 배운 교훈

발표 2

젊었을 때 힝클리 회장은 여름과 주말, 휴일을 농장에서 일을 하며 보냈다. 그 농장에서 그는 건강이 좋아졌으며 일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흙을 가까이 하며 자연과 벗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가 심고 가꾸고 추수한 많은 과일 나무와 채소들처럼 자라 났다.

“열심히 일하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는 동생인 섬과 함께 낚은 짐마차 바닥에서 별을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라고 힝클리 회장은 회상했다. 그 청명하고 맑은 여름 밤, 우리는 짐마차 바닥에 누워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가에 늘 꽂혀 있던 백과사전에서 본 별자리들과 그 밖의 별들을 알아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더 잘 보이는 별들을 알아맞히곤 했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북극성이었습니다. 우리 앞 세대의 많은 소년들이 그러했듯이 매일 밤마다 우리도 북극성을 찾기 위해, 북두칠성의 그 국자 모양을 따라 손잡이 쪽부터 더듬어 내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의 불변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 별들도 밤새도록 움직이는 것같이 보였지만, 북극성만은 지축선상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년 시절의 명상으로 북극성은 세계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변화 속의 불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불안정하게 보이는 하늘과는 달리 그 속에서도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닻이었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특별 부록 9쪽)

청소년 시절, 고든 비 힝클리의 삶은 그 북극성의 불변성을 본 딴 것이었다. 그는 주님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기를 원했다.

토론

- 힝클리 회장은 북극성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어했는가?
-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결코 변하지 않을 복음의 표준들은 어떤 것들인가?

선교사 시절에 배운 교훈

발표 3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위대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 많은 경험의 과정이었다. 영국에서의 선교사 시절에 그는 참으로 어려운 도전들에 직면했다. 그는 선교사 기금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그 기금을 보내 주시는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도 알뜰히 모으셨던 예금 통장을 기억했다. 이 통장이 그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다소 의기소침해진 고든은 아버지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저는 저의 시간과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후, 짧지만 부드러운 아버지의 답신이 왔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고든, 얼마 전에 네 편지를 받아 보았다. 단 한 가지 충고만 하마. 네 자신을 잊고 일에 전념하도록 해라’”

힝클리 회장은 그 당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아버지의 답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전 공부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가복음 8:35)’(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군세고 용감하게 서 계십니다’, 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특별 부록, 14쪽)

설명	이 부분에서 발표를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잇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설명한다.
발표 3 계속	“그러한 단순한 약속의 말씀에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을 잇고 일에 전념하겠다고 주님과 서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제 인생의 중대한 결심의 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결심 이후로 저에게는 선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성도의 벗, 1995년 6월호, 특별 부록 14쪽)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잇고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 또는 선교사로서의 일에 전념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젊은 시절에 배운 교훈들

교회 청소년들에게 언제나 특별한 사랑을 보인 핑클리 회장은 1993년 4월 3일에 주신 말씀에서 아래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발표 4에서 9까지 지명 받은 반원들에게 차례로 토론하도록 부탁한다.

가정에서 배운 교훈

발표 4	<p>“어렸을 때 저희 집의 부엌과 식당에는 난로가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나중에 난방로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양의 석탄이 필요했는데, 자동으로 석탄을 넣어 주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으로 석탄을 퍼 넣어 밤새도록 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p> <p>“저는 그 큰 난방로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만일 방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삼질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2쪽)</p>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 일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우는가?
발표 4 계속	<p>핑클리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의 아버지는 아들들이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일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천 평의 농장을 사셨고 나중에 그것은 사만 평으로 키셨습니다. 저희는 여름 동안 농장에서 살았고 학교가 시작되어야 도시로 돌아왔습니다.”</p> <p>“우리는 큰 과수원을 갖고 있었으며 봄이 돌아올 때마다 가지치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농업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가지치기 설명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2월에 가지를 치는 방법에 따라 9월에 어떤 종류의 과일을 거둘지 거의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훌륭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방법은 가지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주어서 과일들이 햇빛과 공기를 충분히 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새로운 어린 나무가 가장 좋은 과일을 맺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과도 비슷합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2쪽)</p>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배워 왔는가?

위험 표지판에서 배운 교훈

발표 5	핑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어린 시절, 요즘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도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자주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마셨던 우유는 살균하지 않았던
------	---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접시 닦는 책임이 있을 뿐, 자동 식기 세척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두나 홍역에 걸렸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도시의 보건소에 알렸고, 그러면 사람이 와서 앞 창문에 표지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올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연두나 디프테리아일 경우에는 표지가 밝은 주황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씌어졌습니다. 그 표지에는 ‘이 장소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즉 위험하고 악한 표지를 보고는 그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2쪽)

토론

-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위험한 표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교에서 배운 교훈

발표 6

힝클리 회장은 계속 말씀했다. “저는 커다란 삼층 건물인 해밀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건물은 오늘날의 건물에 비교해 보면 낡고 초라했지만, 저는 학생들의 교육은 건물이 아니라 교사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는 아침에 학교 앞뜰에 모여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질서 정연하게 교실로 행진해 갔습니다.”

“우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갔으며 깔끔하지 못한 복장은 금지되었습니다. 소년들은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반바지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 양말을 착용했습니다. 양말은 면이어서 빨리 헤어졌으며 자주 꿰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구멍 난 양말을 신고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꿰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그것은 그 이후 제 인생에서 축복이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3쪽)

토론

- 단정하고 깨끗한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왜 선교사들은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도록 요청 받는가?

루이에게서 배운 교훈

발표 7

힝클리 회장은 어릴 적 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담임 선생님의 골치를 아프게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루이는 요즘 심리학자들이 강박 관념이라고 부르는 증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에 앉아서 넥타이를 젖어서 못쓰게 될 때까지 씹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그를 나무라곤 하셨습니다.”

“루이는 후에 자산가가 되었고, 저는 비록 넥타이를 씹는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룰 수 있는 한 소년의 가능성을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3쪽)

토론

-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가?

중학교 1학년 시절 동맹 휴교를 통해 배운 교훈

발표 8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 하나도 헝클러 회장의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다음 해에 우리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중학교 1학년인 우리는 해밀턴 학교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상했으며 무척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에서 불만스러운 6년을 보냈으며 이제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방과 후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우를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동맹 휴교를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하실까 봐 집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시내에 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또 공원에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단 결석자 지도 담당이셨던 클레이튼 선생님에게 발견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좋지 않은 농담 같은 것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학교 뒷담으로 가서 그런 이야기나 하고 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약이나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 다니면서 하루를 허비했습니다.”

“그 다음날 스티스 교장 선생님은 학교 정문에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태도는 그분의 이름처럼 단호했습니다. 스티스 선생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솔직히 밝히셨으며, 부모님께 편지를 받아올 때까지 학교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부 받은 경험이었습니다. 스티스 선생님은 동맹 휴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티스 선생님은 우리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며 불만이 있다면 교장실에 가서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부모님한테서 편지를 받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까지 걸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편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써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꾸지람 중 가장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티스 선생님’

“‘어제 고든이 결석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든의 행동은 그저 충동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따른 것입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서명하신 후 그것을 제게 건네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으며 그때쯤 다른 소년들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지를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편지들을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어머니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맹휴교를 주도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바로 그때 다시는 그저 군중을 따르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한 제가 내리 결정으로 얻게 되는 장점과 자신의 표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 후로 저의 인생에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난처한 경우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유혹에 빠진다면 최악의 경우, 심각한 손해와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그나마 최상의 경우에는 자존심을 잃게 하는 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3쪽)

토론

- 그저 군중을 따르거나 남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엔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아버지의 신형 자동차 T형 포드로부터 배운 교훈

그림

발표할 때 T형 포드 자동차 사진을 보여 준다.

발표

헝클리 회장은 계속 옛날을 회상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말과 작은 마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916년의 어느 여름날,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친은 저녁에 집으로 오실 때 반짝거리는 신형의 T형 포드 자동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 차는 당시에는 훌륭한 차였지만, 지금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약간은 조잡하고 말쑥 많은 차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 시동기가 없었습니다. 그 차는 손으로 크랭크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크랭크를 돌리는 것에 관해 신속하게 어떤 것을 배웠습니다. 엔진이 너무 빨리 불꽃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절하지 않으면 크랭크가 다시 확 풀리면서 손을 부러뜨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비가 와서 엔진 코일이 젖는다면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로부터 준비를 갖추으로써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단순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차의 앞 부분에 작은 방수포를 씌운다면 그 코일은 젖지 않았습니다. 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조절하면 손을 부러뜨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차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차에는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차의 전기는 오로지 자석 발전기라고 부르는 곳에서만 나왔습니다. 그것의 출력은 차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면 불빛은 밝아졌고 속도가 늦추어지면 불빛도 희미한 노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길을 내려갈 때 앞을 제대로 보려면 엔진을 계속 빨리 돌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면과 열심과 노력은 영적인 발전을 가져다줍니다. 생활에 빛을 갖고 싶다면 항상 서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1916년 T형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뚜껑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77년 전에 배웠던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53~54쪽)

토론

- 헝클리 회장은 우리 생활에 빛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는가?

간증 및 목표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고, 우리가 젊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선지자의 의로운 모범을 따를 때 축복을 받는 방법을 나눈다.

반원들에게도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

기타

집중 게임 및 토론

칠판에 25개의 네모 칸으로 나는 집중 게임 판을 준비한다. 네모 안에 다음과 같이 서로 쌍이 되는 구절들을 적어 넣는다. 각 네모 칸을 종이로 덮는다.(아래에 적혀 있는 구절을 말할 때 들어 올리도록 한다.) 반원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교대로, 한 번에 두 개의 네모 칸을 벗기면서 서로 쌍이 되는 성구를 찾아보게 한다. 같은 성구가 나오면 종이를 덮어 두고 한번 더 하게 한다. 반원들과 함께 게임 판에 있는 각 성구들을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율법을 준수하라	심판하지 말라	깨끗해라	자신을 잊어라	빈칸
위험을 피하라	분수를 알아라	지도자에 순종하라	깨끗해라	버릇없이 굴지 말라
버릇없이 굴지 말라	오래 지속하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남을 도와주라	깨끗해라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심판하지 말라	지도자에 순종하라	오래 지속하라	위험을 피하라
깨끗해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을 잊어라	남을 도와주라	율법을 준수하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